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우편번호 : 137-87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gods@kira.or.kr

http://www.kira.or.k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52 / December / 2006

0612

칼럼

햇살한포대

시론

도시의기억

회원작품

주식회사피플웍스

군산자유무역지역시설공사

용인시상현동지예슬유치원

부산지하철3호선구포역

청풍헌(靑風軒)

꼬마도깨비어린이집

방배한울타리

작품노트

분당주택 I, II

계획작품

천주교마산교구구산교육원

자재정보

표지사진 : 용인시 상현동 지예슬유치원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Contents



22



29



34

건축사
korean architect

차례 2006 12 452호

칼럼	햇살한포대	장양순	14
시론	도시의 기억	김진송	16
건축만평		유원재	18
화보	본협회신축회관준공식및건축문화신문창간기념송년리셉션		19
회원작품	주식회사피플웍스	안명제	22
	군산자유무역지역시설공사	지 순	28
	용인시상현동지예슬유치원	이규상 · 장기욱	34
	부산지하철3호선구포역	김성민 · 홍사원	40
	청풍헌(靑風軒)	김석환	46
	꼬마도깨비어린이집	문석준	52
	방배한울타리	이창훈	58
작품노트	분당주택 I, II	임채돈	64
계획작품	천주교마산교구구산교육원	손기찬	68
현상설계	영남대학교개교100주년기념관		72
	창동어린이도서관		76
건축기행	상하이에서본것, 느낀것	이관직	78
	상상조차할수없었던중국, 대국을느끼고돌아오다	한영창	82
	중국, 비, 만남	오창은	86
기고	2006년건축문화제평가와과제	류재경	90
건축마당	협회소식		97
	건축계소식		101
	건축인터넷정보		105
	통계		112
	해외잡지동향		114
	자재정보		119

발행인 이철호
 편찬위원 장양순, 양해운, 유원재, 박호건, 이관직, 이종훈, 신호근
 취재·편집 최락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시서초구서초1동1603 - 55 대한건축사협회회관
 우편번호 137-877
 전화 대표(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인쇄 정문사문화(주)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49



41



53



59

Column

A Sack of New Rice	Chang Yang-soon	14
--------------------	-----------------	----

Focus

Memory of City	Kim Jin-song	16
----------------	--------------	----

Cartoon

	Yoo Won-jai	18
--	-------------	----

Works

People works Inc.	Ahn Myeong-je	22
Gunsan Free Trade Zone Construction Project	Ji Sun	28
Jiyeseul Kindergarten	Lee Ku-sang, Jang Ki-uck	34
Nakdong Station, Busan Subway Line-3, 311Block	Kim Sung-min, Hong Sa-won	40
CheongPungHeon	Kim Seok-hwan	46
Kkomadoggaebi Educare Center	Moon Seok-jun	52
Bangbae Hanultari	Lee Chang-hoon	58

Design Note

BunDang Residence I • II	Lim Chae-don	64
--------------------------	--------------	----

Process Works

Goosan Catholic Monastery, The Diocese of Masan	Sohn Kee-chan	68
---	---------------	----

Competition

Yeungnam University 60th Memorial Hall		72
Chang-Dong Children's Library		76

Architecture Travel

Shanghai : What I have seen and felt	Lee Kwan-jik	78
China : nation with Scale beyond imagination	An Young-chang	82
China, Rain and Encounter	Oh Chang-eun	86

Feature

2006 Incheon Architectural Culture Festival: dunes and remains	Ryu Jae-kyong	90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97
Archi-Net	101
Archi w.w.w	105
Statistics	112
Overseas Journal	114
Product Information	119

K O R A Arc hite c t

Vol. 452

December 2006

Publisher Lee Chul-ho
Assistant Editor Chang Yang-soon, Yang Hae-yun, Yoo Won-jai, Park Ho-gyun,
 Lee Kwan-jick, Lee Jong-houn, Shin Ho-guen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햅쌀 한 포대

- 봉사를 통한 건축사의 위상 정립

A Sack of New Rice

- Voluntary Service Stationing Architect at Right position

본 협회의 새 회원관공식도 국내외 회원들을 모시고 성대하게 치렀고, 마무리 공사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입주한 사무처도 정상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건축문화신문은 이와 달리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권의 자유화를 보도하고, 10여년에 걸쳐 끈질기게 추진하는 대형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시도와 이에 부응하는 총리실과 건설교통부의 방침을 치열하게 전하고 있다. 건축사의 생존권과 자존심이 깃발하는 처절하고 절박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치솟는 아파트 가격과 통치권자의 잦은 구설수로 추락한 정부 신뢰도 그리고 정파싸움으로 밤낮을 지새우는 정치 부재 현상은 국민 모두에게 웃음을 잃게 하고 있다.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 버릴 것 같은 세파 속에서 대한 건축사 협회 홈페이지의 회원게시판에 모처럼 마음이 밝아지는 아름다운 글이 올라오는 이를 미소 짓게 하고 있다.

『우리 지역(경북 상주) 건축사회는 수년째 태풍이나 폭우로 파손된 농가주택을 무료로 설계 지원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도 회원들은 어김없이 찾아온 폭우로 인해 파손된 농가주택을 위해 설계 봉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내가 맡은 곳은 공성면 오광리였다.』

수재현장을 가보면 지적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을 돌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고단하게 농사일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가옥과 우사는 오래된 흙벽이 폭우로 반파되고 지붕의 일부도 내려앉아 있어 새로 지어야만 했으며, 지적 또한 맞지 않았다. 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잘못된 지적을 바로잡아 주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16평 규모의 주택을 설계하고 신고까지 해 주었다.

11월이 되어 주택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준공을 위한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보니 설계대로 아담하고 실용적인 벽돌집이 지어져 있었다.

준공을 위해 사무실에서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건축사님, 농사지으세요?”

“아니요”

내가 대답을 하자, 타작을 끝낸 후 준공신청서류를 가지러 사무실에 가겠노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틀 후, 사무실로 찾아 온 아주머니는 “방금 방앗간에서 찢은 것이라며 햅쌀 한 포대를 내려놓았다. 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간 설계부터 준공까지 지원해준 것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고 총총히 떠나갔다.

다가오는 겨울, 외동딸과 부부 세 식구가 사는 아담한 새 집에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나길 소원해 본다.』

이상은 우리 회원장일환 건축사(명성 건축사사무소)가 게재한 글이다.

자원봉사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나서서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애쓰는 것이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삶

그간 건축사들은 재해를 입은 가옥들에 대하여 안전진단과 건축설계 등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활동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도시클리닉 등 우리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지역마다 펼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사회로부터 건축사가 전문직으로서 누려야 할 위신과 존엄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보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봉사활동이 많지 않고 그나마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건설업체 설계겸업이란 공룡과의 힘겨운 싸움 중에 있다. 이를 이기려면 정연한 논리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다. 국민들이 건축사의 편이 되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조직적인 봉사가 필요하다. 주는 만큼 받는 것은 삶의 일반법칙이기 때문이다.

의의의와보람을찾게되고, 개인의발전에도모할수있으며, 연대의식과지역사회에대한소속감을가질수있다. 또한국민의식을갖게되고국가와사회에대하여긍정적인견해를지니게된다. 이는복지국가를향하는통과의례이다.

선진국이공통적으로이룩하고있는복지국가는다소득, 영양, 보건, 주택, 교육의최저수준을국민이당연히받아야할권리로보장한 국가를일컫는것이다. 이의성취도는그사회의이타주의와같은도덕성, 봉사의정도에따라결정되는것이다. 따라서국민들의자발적인자원봉사가말로온전한복지국가를형성하는원동력인것이다.

세계적으로전문직에기대하는의무중에는공공의건강과복리의옹호, 개인의이익에앞선공공의복지와이익존중이있다. 이는물론개인보다사회를위한다는것이지만이미사회를위한봉사의개념이내재되어있는것이다. 건축사들의경우, 개인은물론지역별로힘을함께뭉쳐수해를입은가옥들에대하여안전진단과건축설계등전문성을활용한자원봉사를해왔다. 그러나이러한봉사활동이세상에많이알려지지않고있다. 이는홍보의부족과기법의미숙에서비롯된것도있겠으나, 봉사자체가들어내는것이아님을아는 건축사들의공통된인식이가장크다하겠다. 그러나이제는도시클리닉등우리의전문성을살려사회에기여할수있는다각적인봉사활동을지역마다펼치고이를체계적으로홍보하여야한다. 사회로부터건축사가전문직으로서 누려야할 위신과 존엄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보수를제공받지못하고있는이유중하나가바로봉사활동이많지않고그나마홍보가부족하다는점이다. 지금우리는건설업체설계겸업이란공룡과의힘겨운싸움중에있다. 이를이기려면정연한논리만으로는성취할수없다. 국민들이건축사의편이되어주어야하며, 이를위해서라도조직적인봉사가필요하다. 주는만큼받는것은삶의일반법칙이기때문이다.

수년전, 나보다 남을더생각하는서민들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모은 ‘연탄길’이라는책을읽고감동이커, 20여권을사서주위에돌린적이있다. ‘헝살한포대’또한진한감동을주는이야기이다. 바라지않았던것, 돈으로환산할수없는사랑의선물. 수재로소출도많지않았을것이고질도떨어졌겠지만, 그들은아마그중에서가장좋은것으로가져왔으리라.

이제장건축사는헝살한포대로행복한고민을할것이다. 가족끼리밥을지어먹으며순박한주인내외의미소를떠올릴지, 떡이라도해서지역건축사들과나누며지난여름수재봉사를반추할지, 그도아니면회원들과함께그쌀에무엇인가더보태어소년소녀가장이나양로원이라도방문해야할것인지를.

고통은나눌수록작아지고기쁨은나눌수록커진다.

불가에서는남을위해기도할때자신이더큰복을받는다고한다. 자원봉사는대가를바라지않는순수한봉사이지만, 결국이같은선행또한모두자신에게돌아온다는옛말을되돌아볼때이다. 봉사를통한위상정립이필요하다. ■

도시의 기억

Memory of City

건축은 도시를 떠올리게 한다. 미끈하고 세련된 그리고 우람하게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른 건물군은 도시가 그려놓는 가장 그럴듯한 풍경이다. 그 풍경은 우리에게 어느덧 버릴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 되었다. 누구나 도시를 꿈꾼다. 사람들은 도시를 동경하고 도시에서 살고 싶어한다. 도시가 그려내는 풍경의 바깥도 존재한다. 그곳은 도시가 미처 그려내지 못한 여백과 같은 곳이다. 여백은 점점 좁아지거나 사라져간다. 그 풍경의 바깥, 도시의 변방에도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

도시의 풍경이 점점 늘어날 때마다 변방의 주민들은 환호한다.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여백은 빈 공간이 아니라 풍요의 잠재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토목과 건설 공화국에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다. 여백이 해체되면서 들어선 도시는 물질과 자본으로 점유된 장소이다. 도시는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유전인자를 지니고 그 대척점에서 있는 시골과 자연의 우성인자로 군림한다. 도시의 DNA는 수많은 유전자를 복제해 변방에 퍼뜨린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도시가 아니다. 도시가 늘어갈수록 우리의 또 다른 풍경은 사라진다. 그곳은 과거의 기억이며 무는 곳이다. 과거의 기억이 짙을수록 있을 곳은 어디나 잘려나간다. 오직 현재와 미래만 존재하는 곳. 땅이 뒤집히고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풍경이 송두리째 뒤바뀌고 그럴 때마다 기억의 한 자락이 몽텅이로 뜯겨져 나간다. 짧은 현대의 역사에서 유사 이래 벌어졌던 어떤 전쟁보다 철저하게 파괴적인 개발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적어도 나의 기억속에서 도시의 역사는 추방과 폐허의 역사였다. 개발의 폐허속에서 사람들은 저개발의 낙오와 열등감에 시달린다.

강박증처럼 과거의 기억을 소멸시키는 도시를 생각하다가 문득 도시와 함께 사라진 나의 잃어버린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다. 나의 과거는 이 도시의 어디쯤에 살아있을까? 또는 어디쯤에서 사라져버렸을까? 그러나 기억할 수 있는 있는 가장 오래 전으로 돌아가 모든 기억을 날날이 회복하려는 나의 시도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유감스럽게 내 기억의 장소가 바로 도시의 변방이었던 게 비극이었다. 수십 년 만에 찾아간 강변마을은 여지없이 도시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고 뛰어놀았던 골목길과 낙서를 해뒀던 콘크리트벽, 집이며 우물이며 하다 못해 나무 하나까지 남아있는 게 없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 길비극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즈음 벤야민의 글을 보게 되었다. 아마 건축과 도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벤야민의 파리아케이드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완성되지 못한 그의 연구, 파리아케이드에 대한 글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분석이다. 나는 벤야민의 책을 읽으며 수없이 낙담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 비슷한 시도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옛날의 장소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낱알이 다시 보여주는 마술과 같은 공간,
 기억의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개인의 과거는 사회의 역사이며, 개인의 기억은 사회적으로는 문화,
 과거와 기억을 상실한 역사와 문화가 어디 가당키나 한가?
 일상적 공간의 끊임없는 파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어쩌면 최근 집값 광풍으로 미쳐 날 뛰는 현상이 그 징후의 단편일 것

파리에는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은 장소의 연속성이다. 옛날의 파리가 모두 사라졌다면 벤야민의 글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쓴 다른 글, 베를린의 유년 시절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기억과 모상은 30년 전으로 회귀할 수 있는 실재의 공간이 사라졌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벤야민의 글이나에게 준 하나의 가르침은 적어도 그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도시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건 또 다른 비극이다.

나역시 기억과 기억을 환기하는 과거의 장소를 기웃거렸던 것이 단지 추억과 모상에 젖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은 아니다. 어쩌면 내까지 살고 있는 시골의 풍경이 매일처럼 달라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초조감이 옛일을 생각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도시의 변방에 머물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도시란 추방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괴물 같은 존재이다. 그것은 단지 자본에 밀려 물리적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없는 자의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물리적 변화보다 더 치명적인 정체성의 혼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장소는 기억의 보고이다. 첫사랑의 그녀와 들었던 음악을 다시 들을 때마다 아련했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옛날의 장소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낱알이 다시 보여주는 마술과 같은 공간이다. 기억의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인간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듯이 과거의 공간을 상실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개인의 과거는 사회의 역사이며, 개인의 기억은 사회적으로는 문화이다. 과거와 기억을 상실한 역사와 문화가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우리의 도시에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단지 개발과 발전 혹은 역동성이라 수사학으로 말해지는 현상만 존재할 뿐이다. 과거의 풍경을 끊임없이 해체하려는 현재의 욕망을 보여줄 뿐이다. 역사적 건물의 보존과 문화재의 복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적 공간의 숨겨진 변화가 더 치명적이다. 개인의 기억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작된다면 일상적 공간의 끊임없는 파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어쩌면 최근 집값 광풍으로 미쳐 날뛰는 현상이 그 징후의 단편일 것이다. 대안으로 앞다투어 내놓는 정책이 끊임없는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사실은 아직도 비극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도시의 풍경이 미쳐 그려내지 못한 공간들마저 순식간에 광풍의 진원지가 되는 현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에게 집, 아파트 혹은 건물은 아직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 일상적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물질적인 공간일 뿐, 말그대로 부동산, 들고다닐 수 없는 재산에 불과하다.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는 일상의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팔아 넘길 수 있는 자본의 공간이다. 여기에 대고 나의 기억과 사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장광설에 불과할 것이다. 그게 또 슬프다. ■



본 협회는 지난 12월 8일 오후 4시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신축회관 1층 대강당에서 신축회관 준공식 및 건축문화신문 창간 기념리셉션을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회관 준공과 함께 지난 2006년 9월 9일 창간한 「건축문화신문」의 창간기념 송년 리셉션을 겸한 행사로 강길부 국회 건설교통위원, 김진애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최창식 서울특별시 부시장, 심우갑대한건축학회회장, 최영철건설공제조합이사장등외빈과 우리협회전임회장등협회관계자및해외사절단으로게이텐슈우 세계건축사연맹 회장과 바짜프 몽골건축사협회 회장, 쉘우루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 부회장, 와타나베 사다오 일본건축사회연합회 부회장 등 내외귀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치러졌다.

회관 준공식에 앞서 회관 입구에서 내외귀빈이 함께한 테이프 커팅식이 거행되었으며, 개식 선언으로 준공식이 시작되어 내외빈 소개, 회관 설계자인 오근석 건축사(유진인터내셔널 종합건축사사무소)의 회관 준공 경과보고에 이어 우리 협회 이철호 회

장의개회사가있었다.

이철호회장은“ 오늘 많은 분들의노력과헌신, 그리고성원에 힘입어우리건축사뿐만아니라전 건축인의보름자리이자건축 문화 창달과 발전의 산실이 될 대한건축사협회 신축회관 준공식을갖게되었다 ”고감격해하며“ 앞으로이곳회관에서협회와건축사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대외적인 역량을 강화시켜나갈 「건축문화전당」건립, 건축자재인증, 건축사공제사업등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것 ”이라며“ 건축사회관 준공을 계기로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고, 또한 많은 건축인들과국민들이왕래하는, 그리고모든건축인들이기억하고다시 찾는회관이될 수있도록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 ”며개회사를마쳤다. 이어강길부국회건설교통위원과김진애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게이텐 슈우 세계건축사연맹 회장, 최창식 서울특별시 부시장의 치사와축사가, 바짜프몽골건축사협회회장, 쉘우루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 부회장, 와타나베 사다오 일본건축사회연합회 부회장의해외사절단의축사가이어졌다.



- | | |
|------------------------------|--------------------------------------|
| 1_ 치사중인강길부국회건설교통위원 | 6_ 외국사절단으로참석해치사중인바짜프몽골건축사협회회장 |
| 2_ 치사중인김진애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위원장 | 7_ 외국사절단으로참석해치사중인우루중국건축사등록위원회부회장 |
| 3_ 축사중인이준회건설교통부차관 | 8_ 외국사절단으로참석해치사중인와타나베사다오일본건축사회연합회부회장 |
| 4_ 축사중인게이맨슈우세계건축사연맹회장 | 9_ 감사패수여식 |
| 5_ 축사중인최창식서울특별시부시장 | 10_ 공로패수여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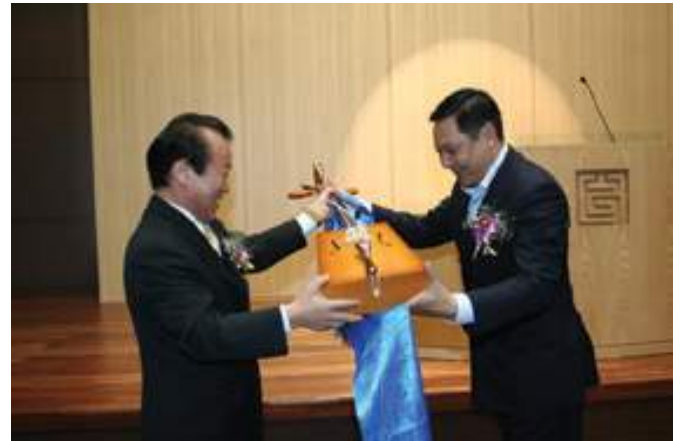
이어회관건립을위해물심양면으로성원해준업체에대한감사패 수여식으로 (주)유진인테너셔널종합건축사사무소 오근석 건축사와 남흥건설(주) 박명우 대표이사, (주)우슬재디자인 박찬우대표, 삼성전자(주) CE B2B 박종갑상무, (주)LG화학H.S 사업부석종만부장, 우성세라믹스공업(주) 이응원대표이사, (주)코리아파킹시스템 임봉철 대표이사, (주)중앙후로아케미칼 한원석 대표이사, 상명전기(주) 정찬조대표이사, (주)우신알루미늄이종운 대표이사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고, 회관건립 공사에 노고가 큰회관건립위원회담당이사박무길회원과위원장김순명, 위원 김영수, 이규홍, 이무열, 최선규회원에게공로패가수여되었다.

또한본협회회관준공을축하하는의미에서김석환건축사가

20호그림한점을기증해주어박수를받았다.

잠시후개최된제2부행사로회관준공과건축문화신문창간을 기념하는송년리셉션이개최되었다.

이철호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기념사에서“ 건축의 선진화를 이룩하려면 건축사들의 창의력과 열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건축문화에 대한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가 핵심 사업으로 삼고 추진하는 CT(컬쳐테크놀로지) 사업에서건축분야를성공적으로이끌려면 이제는우리건축인들이능동적으로나서지않으면안되는시점에 와있다. 이에 본 협회는 장기간의 숙고와 준비 끝에 건축문화



11. 회관준공을 축하하는 의미로 김석환 회원이 20호 그림을 기증했다. 15. 바짜프 회장이 이철호 협회장에게 '머린호르'를 선물하고 있다.
 12. 2부 행사인 회관 준공과 건축문화신문 창간을 기념 송년 리셉션에서의 심우갑 대한건축학회 회장 축사 16. '머린호르'를 시연하는 몽골 건축사협회 일행
 13. 케이크 커팅 17. 우우루 부회장이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14. 건축계 원로인 한창진 본 협회 고문의 축배제의 18. 와타나베 사다오 부회장이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신문을 창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건축계에 국한되지 않고 건축, 건설을 비롯해 건축자재 생산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종합신문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건축사들에게는 창작의 밑거름이 되고, 일반국민들에게는 건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맡게 될 건축문화신문이 범건축계 유일의 정론지로서 신문본연의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함없는 지도"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심우갑 대한건축학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날을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과 건축계 원로이신 한창진 본 협회 고문의 축배제가 이어졌고, 특별공연으로 판소리와 대금이 연주되었다.

아울러 해외사절단의 준공기념 선물 증정식에서 바짜프 몽골 건축사협회 회장은 흥미롭게도 몽골 전통악기인 '머린호르(마두금)'를 전통복장을 갖춘 일행에게 '아리랑'과 전통음악을 연주하게 한 후 전달하여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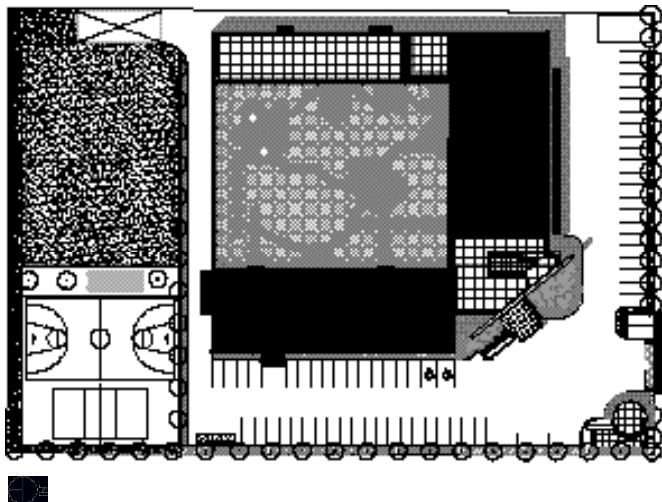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신축 회관 준공을 계기로 국내 유일의 법정건축전문가단체로 제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삼고, '건축문화의 전당' 건립사업과 건축자재 인증사업, 건축사 공제사업 등을 비롯해 건축사위상과 권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주식회사 피플웍스 People works Inc.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부분 우수상 수상작>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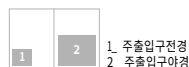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북 구미시 공단동 260-2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국가산업단지
대지면적	10,158.00㎡
건축면적	3,845.52㎡
연면적	18,888.54㎡
건폐율	37.86%
용적률	86.05%
규모	지상 3층
구조	철골조
구조설계	하우건축구조사무소
기계설계	연엔지니어링
전기설계	(주)태양전기
조명설계	(주)알토
조경설계	예전조경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이은미)
시공사	공간종합건설(주)
건축주	주식회사 피플웍스



Location	260-2, Gongdan-dong, Gumi-si, Gyeongsangbuk-do, Korea
Site area	10,158.00㎡
Bldg area	3,845.52㎡
Gross floor area	18,888.54㎡
Bldg coverage ratio	37.86%
Gross floor ratio	86.05%
Structure	S.R
Bldg. Scale	F3



1. 주출입구전경
2. 주출입구야경

이 건물은 구미공단에 지어진 산업시설이다. 휴대폰, LCD 모니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들과 같은 IT 관련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사무실, 제품들을 개발하는 연구실 등이 한 곳에 집적된 복합시설이다.

건축주와 초기에 정한 설계 기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한 가지는 공장의 외관도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건물 형태나 외장 재료가 전형적인 공장 이미지를 벗어나 특색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단 안에 지어지는 건물이라 가능한 많은 녹지 공간을 계획하여 푸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외관 재료로는 일반적인 금속 패널보다는 베이스 패널과 유리를 사용하였다. 또한 북쪽 전면 도로에서 진입할 때 주출입구 앞 공지를 확보할 겸 건물 외곽 쪽 모서리를 잘라내고 얇은 벽체를 세워 공장 정면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각 형태 건물 외관에 변화를 주도록 하였다.

공장 주변의 옥외공간은 주차장이나 운동 시설 때문에 충분한 휴식 공간과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3층 일부에 식당과 체력단련실을 두고 나머지 500여 평의 넓은 공간을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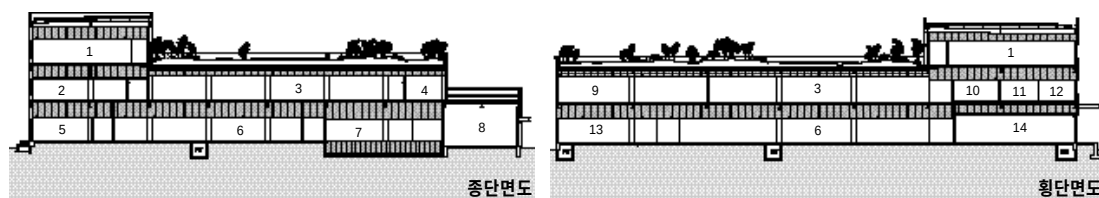
상 녹지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이 옥상 정원은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주변 공장들 넘어 멀리 금오산이나 낙동강 등 자연 경관을 조망하는 휴식 공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바베큐 파티 등 다양한 사내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어 직원들이 공장에서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소가 되었다.

공장 내부는 바이어나 방문객을 위한 견학 통로를 계획하고 내부는 클린룸 설비로 된 첨단 공장 이미지에 맞게 주로 흰색으로, 회의실이나 식당 등은 칼라 유리로 마감하였고 로비와 주계단 주위에는 키 높은 대나무를 심어서 층을 오르내리면서도 항상 푸른색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 내외부에 별도 야간 조명을 계획하여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 되는 활력 있는 공장의 움직임이 야간에도 주변에 그대로 노출되게 하였다. ㉡



- 01_ 식당
- 02_ 사무실
- 03_ AMP/중계기라인
- 04_ Aging Room
- 05_ 환경실험실
- 06_ INERT LINE
- 07_ CAMERA MODULE
- 08_ 기계실
- 09_ SURPLUS AREA
- 10_ 전산/방송통신실
- 11_ 회의실
- 12_ 기술자료실
- 13_ SMD
- 14_ 수입창고



- | | |
|---|---|
| 1 | 2 |
| 3 | 4 |
- 1. 3층 옥상 정원에서 본 식당 전경
 - 2. 주현관
 - 3. 주현관 계노피
 - 4. 주계단 외벽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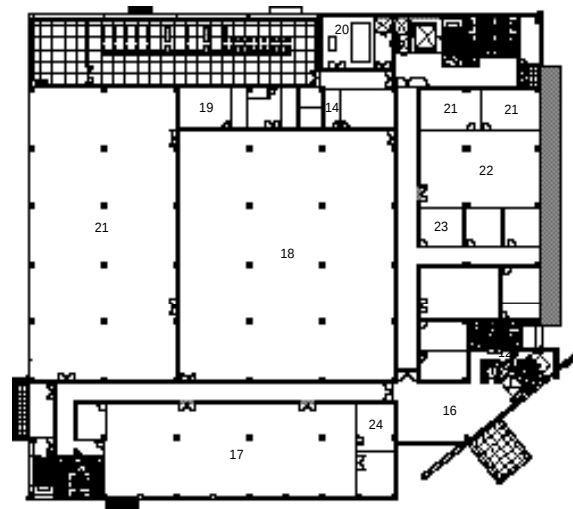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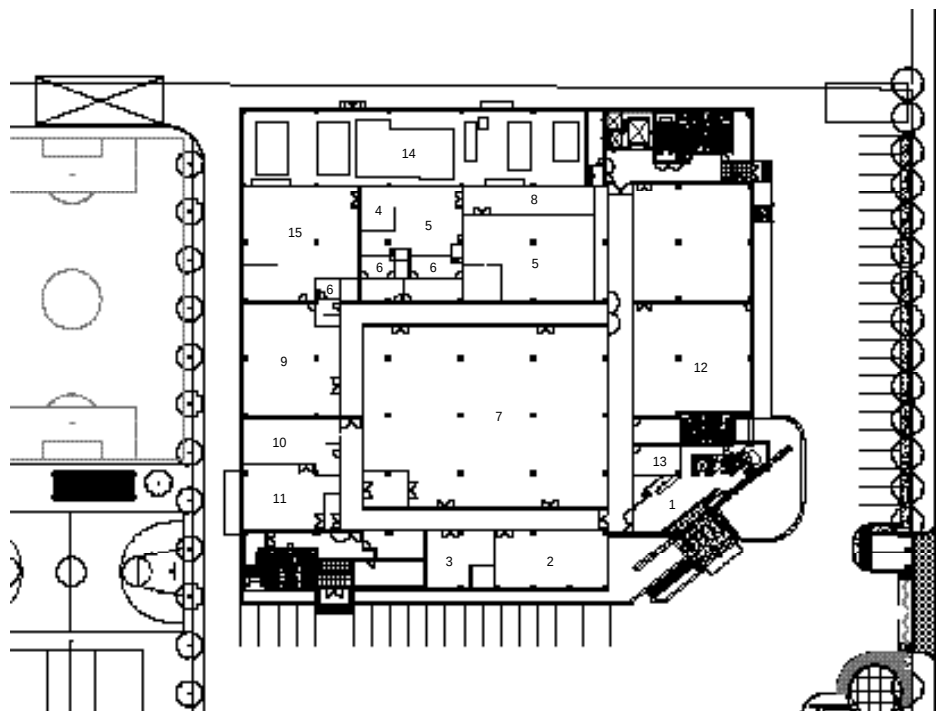
- | | |
|-------------------|-------------------|
| 01_ 로비 | 16_ HALL |
| 02_ Burn-in Room | 17_ 사무실 |
| 03_ 환경시험실 | 18_ AMP/중계기 |
| 04_ PM Room | 19_ 품질상황실 |
| 05_ CAMERA MODULE | 20_ 발전기실 |
| 06_ SMOCK ROOM | 21_ 시작실 |
| 07_ INVERT LINE | 22_ Surplus Area |
| 08_ C.M.예비실 | 23_ 전산/방송실 |
| 09_ SMD | 24_ 주재임원실 |
| 10_ 군수라인 | 25_ 옥상정원 |
| 11_ HMIC | 26_ RESERVED AREA |
| 12_ 수입창고 | 27_ 살수시험실 |
| 13_ 고객상담실 | 28_ 주방 |
| 14_ 기계실 | 29_ 식당/다목적 홀 |
| 15_ TEST | 30_ 체력단련장 |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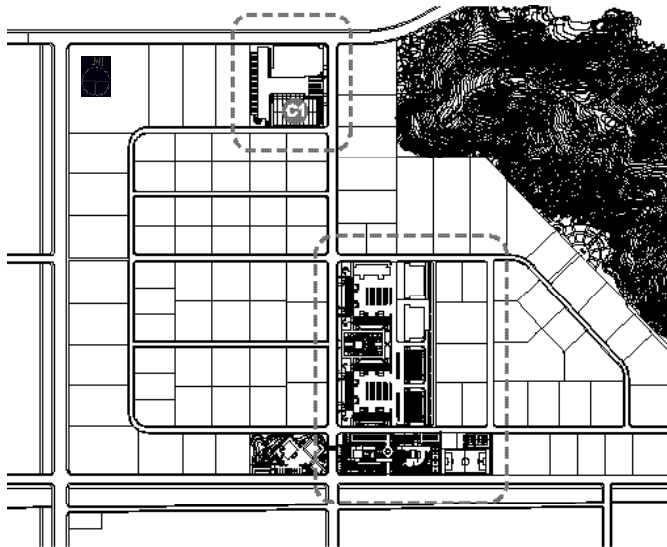
- | | |
|---|------------------|
| 1 | 1. 체력단련실쪽에서본옥상정원 |
| 2 | 2. 식당에서본옥상정원 |
| 3 | 3. 식당 |

군산 자유무역지역 시설공사 Gunsan Free Trade Zone Construction Project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문부문 우수상 수상작>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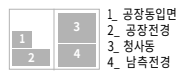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산업단지내
용도 창고시설
대지면적 36,901.4㎡
건축면적 5,084.34㎡
연면적 13,187.25㎡
건폐율 13.78%
용적률 33.35%
규모 지하 3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후동석 정다듬, 후동석 물갈기, ZINC패널
시공사 (주)국제종합토건
건축주 산업자원부



Location Osikdo-dong, Gunsan-si, Jeollabuk-do, Korea
Site area 36,901.4㎡
Bldg area 5,084.34㎡
Gross floor area 13,187.25㎡
Bldg coverage ratio 13.78%
Gross floor ratio 33.35%
Structure R.C
Bldg. Scale B3, F3







21세기대한민국대표산업기지의건설

세계는 각국의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경제특구를 통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쟁국인 동북아의 중국, 대만 등은 최근 우수한 시설과 조건으로 세계적인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70년대 마산, 익산 등의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으로 수출한국의 기반을 다졌던 우리도 성장위주의 산업시설을 뛰어넘는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산업기지를 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군산자유무역단지시설은 친환경 및 근무자를 우선으로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시설로서 기존 공장의 형식과 이미지를 탈피하며 기능적으로 완벽한 표준공장을 건설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기지를 상징하는 당당함을 갖춘 청사와 입주업체의 윈스톱 서비스를 위한 지원시설과 물류시설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대표산업단지로서의 당당함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지역의 청사는 국가의 위상을 표현하는 장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자유무역지역 시설로서의 당당함을 부여하고자 업무동과 지원동이라는 2개의 시설을 수평으로 기다란 지붕판으로 하나의 매스로 엮음으로 수평선이 가지는 힘과 출항의 닻을 올리는 무역선박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무역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동성을 표현하였다.

국가안의 작은 국가, 또 다른 관문

자유무역지역은 바깥 세상과 격리된 그들만의 작은 국가이다. 그곳에 들어가는 첫 만남은 커다란 게이트(GATE)이다. 이 상징물은 두 세상을 공간적으로 심리적으로 구분짓는 경계의 역할을 한다.

공장 같지 않은 공장, 질서, 시스템

표준공장은 자체 단독 건물을 가질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업체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임대형 공장이다.

공장은 입주업체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입주예상업체의 특성을 분석하여 경공장동과 중공장동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동선처리를 위한 코아시스템, 장비 LAY-OUT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장스팬 처리에 의한 무주공간 구현, 서비스 발코니 등 철저한 첨단 산업시설의 기능에 충실하였다.

외장은 유지관리에 용이한 친환경 소재인 적벽돌을 사용하고 사무공간에는 커튼월을 적용하여 기존 공장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공장 같지 않은 공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안과 밖으로의 열림, 내외부 공간

청사동은 1, 2층의 지원 서비스 공간과 3층의 무역원 청사로 수직적으로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안으로 열린 청사동의 중앙 홀은 내부 공간의 구심 공간이 되며 행정 서비스 공간의 중심이 된다. 3층의 중정은 무역원 청사의 중심으로서 하늘로 열린 공간은 그들만의 휴식처이다. 유리박스안의 대형 홀은 전체 자유무역지역을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의 역할을 한다.

친환경 휴게공간, 외부 조경 시설

21세기 산업단지의 화두는 친환경이다. 공장 주변 곳곳에 근로자들을 위한 크고 작은 옥외공간과 공장과 공장을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공원 같은 단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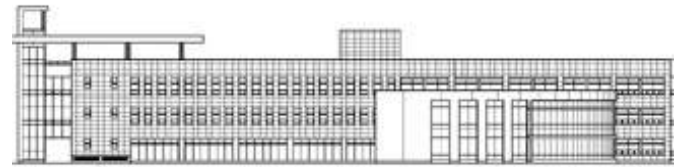
물류창고 입면도



청사동 입면도



물류창고 입면도



복지동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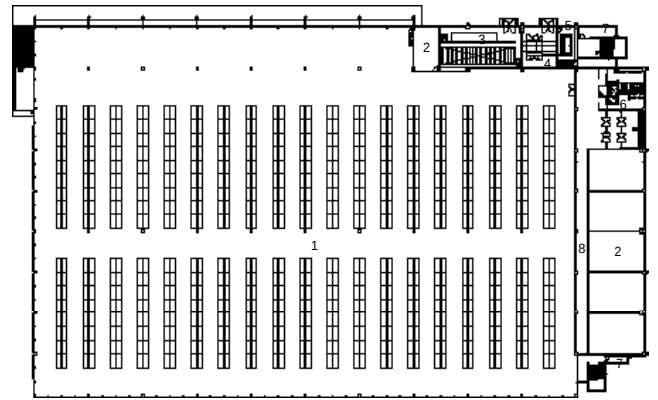
- | | |
|---|--|
| 1 | |
| 2 | |
1. 물류창고동
2. 메인전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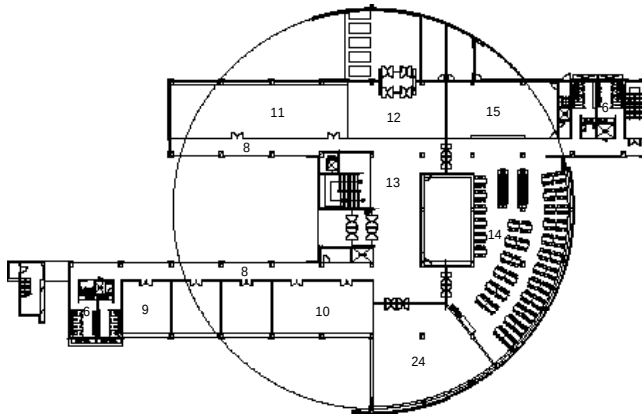
- | | |
|---|---|
| 1 | 3 |
| 2 | 4 |
1. 진입구측면
 2. 정사및복지동중정
 3. 메인진입구필로티
 4. 사무동의부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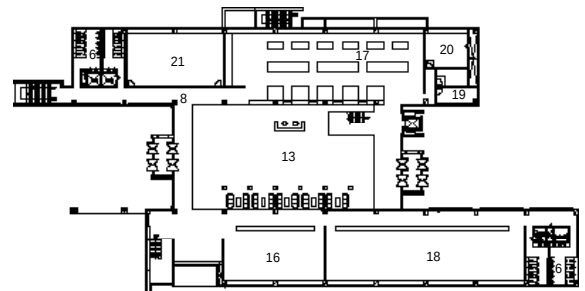
- 01. 창고
- 02. 사무실
- 03. 기계실
- 04. 전기실
- 05. 발전기실
- 06. 화장실
- 07. 발코니
- 08. 복도
- 09. 문구
- 10. 편의점
- 11. 금융기관
- 12. 로비
- 13. 홀
- 14. 식당
- 15. 주방
- 16. 우체국
- 17. 전시관
- 18. 세관
- 19. 관리실
- 20. 숙직실
- 21. 예비군대대
- 22. 중기계작업장
- 23. 로딩데크
- 24. 커피라운지
- 25. 육외휴게테크
- 26. 작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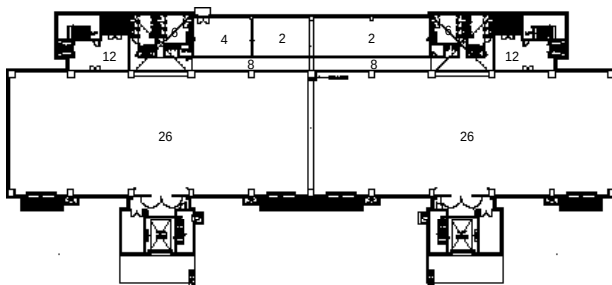
물류창고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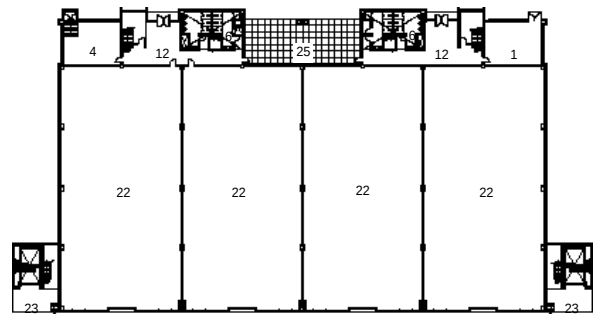
업무지원동 평면도



청사동 평면도



표준공장 A 평면도



표준공장 B 평면도

용인시 상현동 지예슬유치원

Jiyeseul Kindergarten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부분 우수상 수상작>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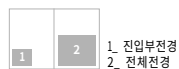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06-번지 외2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966㎡
건축면적	393㎡
연 면 적	1,308㎡
건 폐 율	19.97%
용 적 륜	49.80%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골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적삼목, 폴리카보네이트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석고보드 위 페인트, 강화마루
설계담당	김정은, 권미리
시 공 사	(주)이안알앤씨
건 축 주	김명철
설계기간	2005. 04 ~ 2005. 05
공사기간	2005. 05 ~ 2006. 01



Location	306-1, Sanghyeon-dong, Yongin-si, Suji-gu, Gyeonggi-do, Korea
Site area	1,966㎡
Bldg area	393㎡
Gross floor area	1,308㎡
Bldg coverage ratio	19.97%
Gross floor ratio	49.80%
Structure	S.R.C
Bldg. Scale	B1, F3
Design period	2005. 04 ~ 2005. 05
Construction period	2005. 05 ~ 2006. 01





지예슬유치원프로젝트는양쪽동산을끼고아늑하게자리잡은넓지막한대지의양상과는달리건축주가요구한과밀한수용원아수와 20%라는 건폐율조건 그리고 지상 1, 2층에만 교실을 배정해야한다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공유면적의 여유가 없는 집적된 교실군의 단순한매스는필연적이었다.

또한 인접 아파트 밀집지구에 위치한 여타 유치원과 차별성을 위해 야외 유원장은 건물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건물 안에서 마련할수없었던여러가지활동놀이들을종합적으로담기위해짜집기된 덩어리로서의대치여백을필요로하였다.

그리고 인접한 거대한아파트 단지 및 부지와 근접하여예정된 기간도로는당해부지주변의급속한도시화를예고하고있어앞의이유들과더불어유치원의도시적스케일을야기시켰다.

우리는일련의배경에서탄생된지상3층규모의경직된직육면체의기본조직의틀속에서이와는상반되게건축적‘자율성’을획득하고자실험적인구조적시스템을고안하게되었다.

이것은 직사각형 평면의외부경계선을따라 구조요소를 배분하여 내부에는유니버설스페이스를구축함과동시에다양한레이어의플랫 슬라브시스템이 가능토록 하고자 했고, 유원장과의 소통이 필요하여 열려있는 면은 개방적인 구조 조직을 통해 - 실제로 125×65×15T의철재각파이프기둥을 1.8미터간격으로설치 - 외부로돌출된다양한기능들이꼴라주의형태로입면상의어떤위치에든존치될수있는가능성을생성시켰다.

이를 통해 직사각형의 기본적인 구조적 수직틀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 요소들 - 슬라브 및 외부면에 매달린 매스, 그리고 수직통로(계단) -은 언제나 필요에 따라 변화될수 있는 자율성을 획득하였다. 이것은내외부를자유롭게넘나드는다양한프로그램편제를가능케하고변화하는도시로열려진개방된입면을따라자율적인의사소통을원할하게한다.

건축사의 손에 의해 완공과 동시에 종결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구성이다할때까지건축사의손을떠난이후라도변화하는주변과호흡해야 하고 또한 수많은 내부 용도변화에 대응하며 스스로 변형이 가능한실험적건축을생각한결과이다.

실제로 지예슬유치원 건물은 개방된 입면상에 원무실, 수직계단 등이중력의방향과관련없는듯하게거대한실제스케일로레고블럭의취합방식처럼자유롭게매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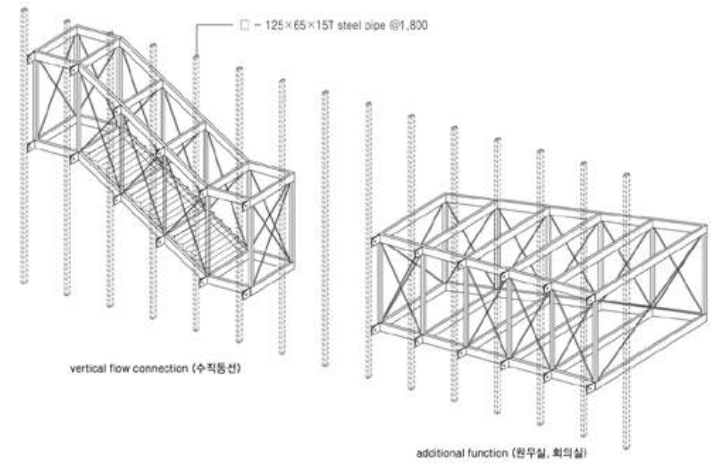
이것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될 수도 있을 것처럼 말랑말랑한 시스템으로 원아들에게 받아들여져, 건물자체가 체험되어지는 ‘공간인지’교제가될것이다.

또한교실로부터외부세상을경계짓는개방적구조스크린을빠져나온자유로운형태의매스는아이들의영글어진꿈을형상화한것이기도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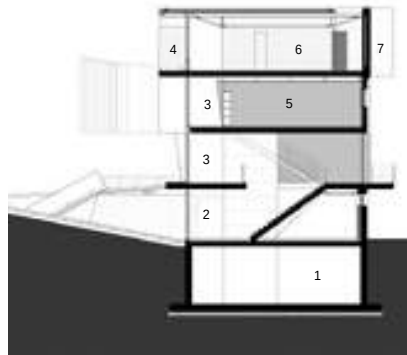


Hung-Mass Structure System

rigid mass + pin-connection to vertical 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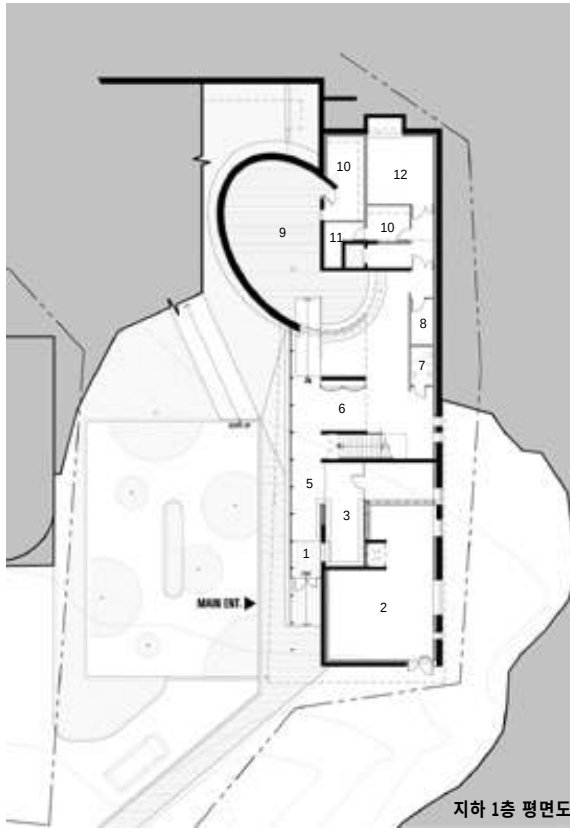


- | | |
|---------|----------|
| 01_ Pit | 08_ 다목적실 |
| 02_ 홀 | 09_ 기계실 |
| 03_ 복도 | 10_ 조리실 |
| 04_ 계단실 | 11_ 원무실 |
| 05_ 교실 | 12_ 화장실 |
| 06_ 강당 | 13_ 사프트 |
| 07_ 테라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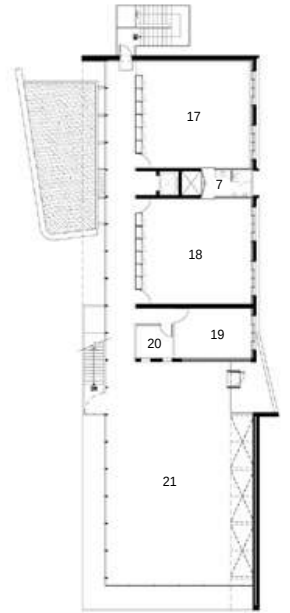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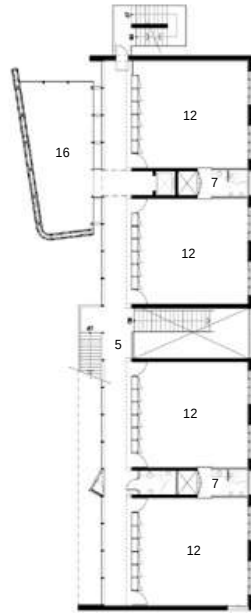


- | |
|------------|
| 1. 전면야경 |
| 2. 부출입구 |
| 3. 원무실 |
| 4. 전면디테일-1 |
| 5. 전면디테일-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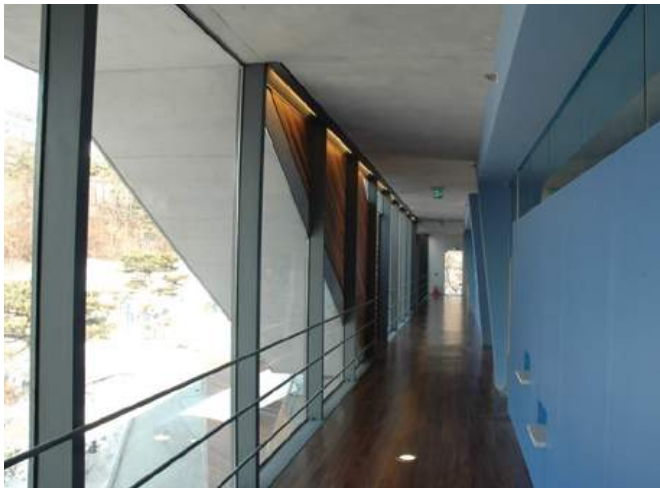
- 01. 현관
- 02. 기계실
- 03. 신발장
- 04. 원장실
- 05. 복도
- 06. 홀
- 07. 화장실
- 08. 펄프실
- 09. 다목적실
- 10. 창고
- 11. 조리실
- 12. 교실
- 13. 세탁실
- 14. 부출입구
- 15. 유원장
- 16. 원무실
- 17. 미술실
- 18. 소체육장
- 19. 양호실
- 20. 조정실
- 21. 강당



- | | | | |
|---|---|---|---|
| 1 | 2 | 3 | 4 |
|---|---|---|---|
- 1. 원무실지붕디테일
 - 2. 2층복도
 - 3. 3층강당
 - 4. 1층 Hall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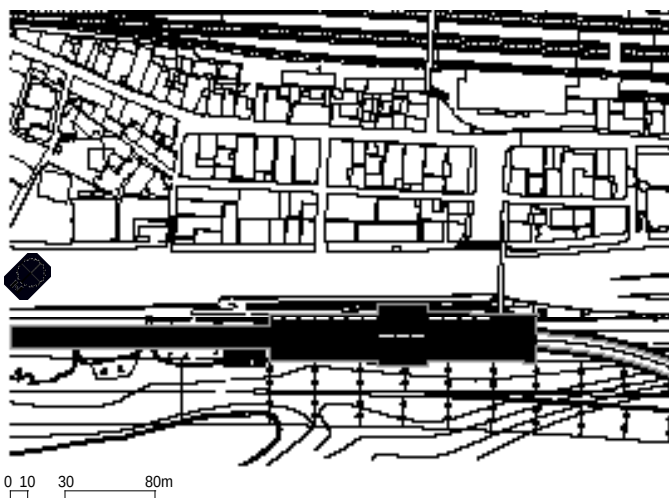


부산 지하철 3호선 구포역

Nakdong Station, Busan Subway Line-3, 311Block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경부선 구포역앞 낙동로변 구포배수장 ~ 강서구청(시점) 구간
연면적	5,434.13㎡
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철도역사)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주요수직동선	계단, 에스컬레이터6기(옥외용 2기), 엘리베이터3기(옥외형1기)
승강장길이	149m
승강장형식	상대식
외부마감	폴리데크판넬, 강화유리(강변측), 복층유리(기능실)
내부마감	화강석, 압출성형 시멘트판넬
설계담당	권혁중, 강창근, 임동연, 김태현
토목설계	서영기술단
시공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Location Gupo-dong, Buk-gu, Busan-si, Korea

Gross floor area 5,434.13㎡

Structure S.R.C

Bldg. Scale F2



1. 남측전경
2. 야경



97년에 터키 방식으로 진행된 구포역은 지난 2005년 11월 28일 개통되었다.

선형으로 발달한 부산광역시 북동에서 남서로 따라가는 기존 지하철 1호선과 북서에서 남동으로 교차하는 2호선에 이어 3호선을 신설, 부산광역시 북부지역을 동서로 관통하여 부산광역시의 균등한 발전과 장래 교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함이 그 목표였다.

낙동강을 따라 흐르는 역사

부지 배면으로는 낙동강이 인접하여 흐르고 있으며, 전면 도로 맞은편에는 경부선 구포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상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경부선 구포역으로 인하여 동서로 분리된 개발 제약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기존 구포교와 신설 구포대교의 완공으로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교통의 요충지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역사를 따라 흐르는 동선 계획

역사와 같은 교통 시설의 건축 계획은 합리적인 동선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에 부합하여 구포역의 동선은 크게 정거장 진입 동선,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의 연결 동선, 역무관리 동선 및 장애자 동선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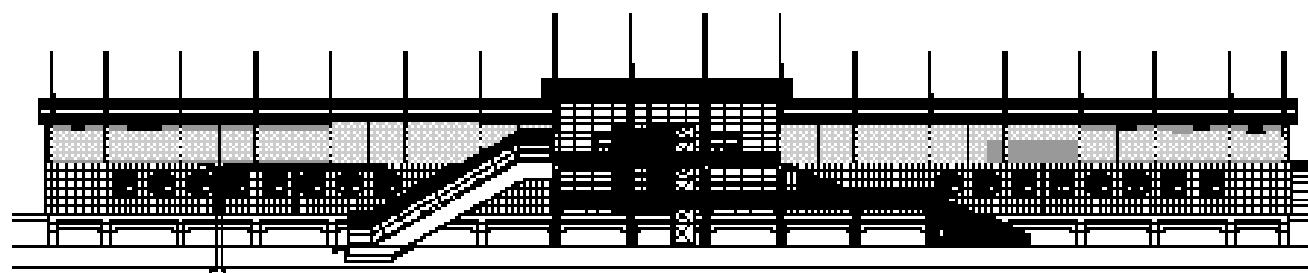
정거장 진입에 있어서 주보행 접근 방향인 구포역 측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량 수송을 감

당하는 계단에서 돌음 동선을 배제하고 순방향으로 처리하여 원활한 보행 및 사고 방지를 고려했다. 승강장 연결 계단은 폭원산정 결과에 따라 계단수, 폭원을 결정하고 승강장 계단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을 경우 방향성 상실, 계단부의 정체 구역 감소 증가 및 개소 당 계단 폭 감소에 따른 보행 효율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정수의 계단을 승강장에 설치토록 계획하였고, 상주 역무원의 기능실은 분리하여 역무 효율 극대화 및 보안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또한 일반적 인 고가 정거장과 달리 승강장이 대합실 하부에 있으므로 지상에서 대합실까지의 동선이 길어 장애자 및 노약자를 위해 도로면과 제방 사이를 연결하는 별도의 승강 시설을 설치하였다.

낙동강과 하나 되는 역사 개념

부산 구포역은 항구 도시라는 부산의 이미지와 낙동강을 배경으로 위치한 대지의 지형성을 살리는 데 설계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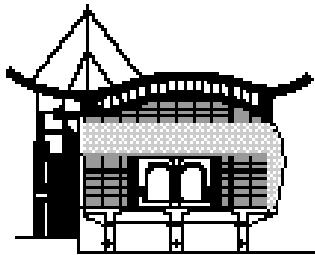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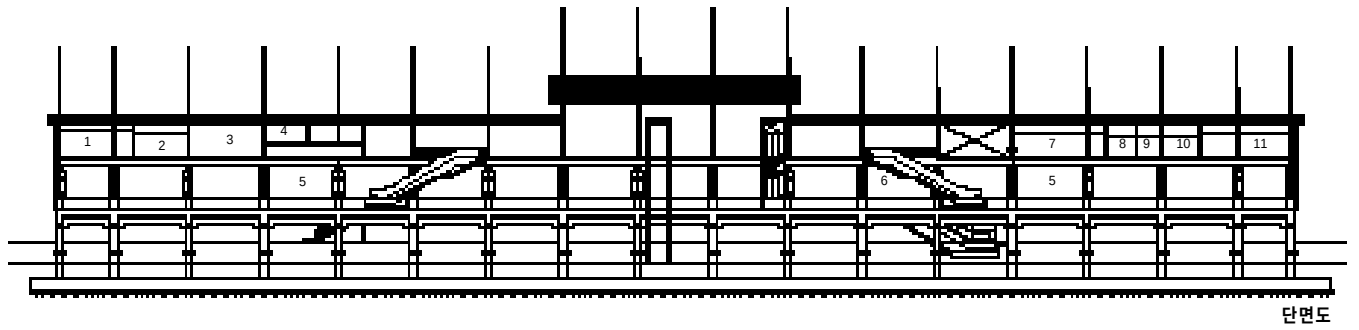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대표적 항도인 부산은 바다, 부두, 해운대로 인식되는 강렬한 해양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파도, 바람 및 배라는 오브제로 대치될 수 있다. 또한 한국 전쟁 시 낙동강의 부정적 이미지를 제외하면 낙동강은 철새, 갈대, 강변 산책로 등 휴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 속의 휴식처, 경관 확보라는 조형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



0 5 15 40m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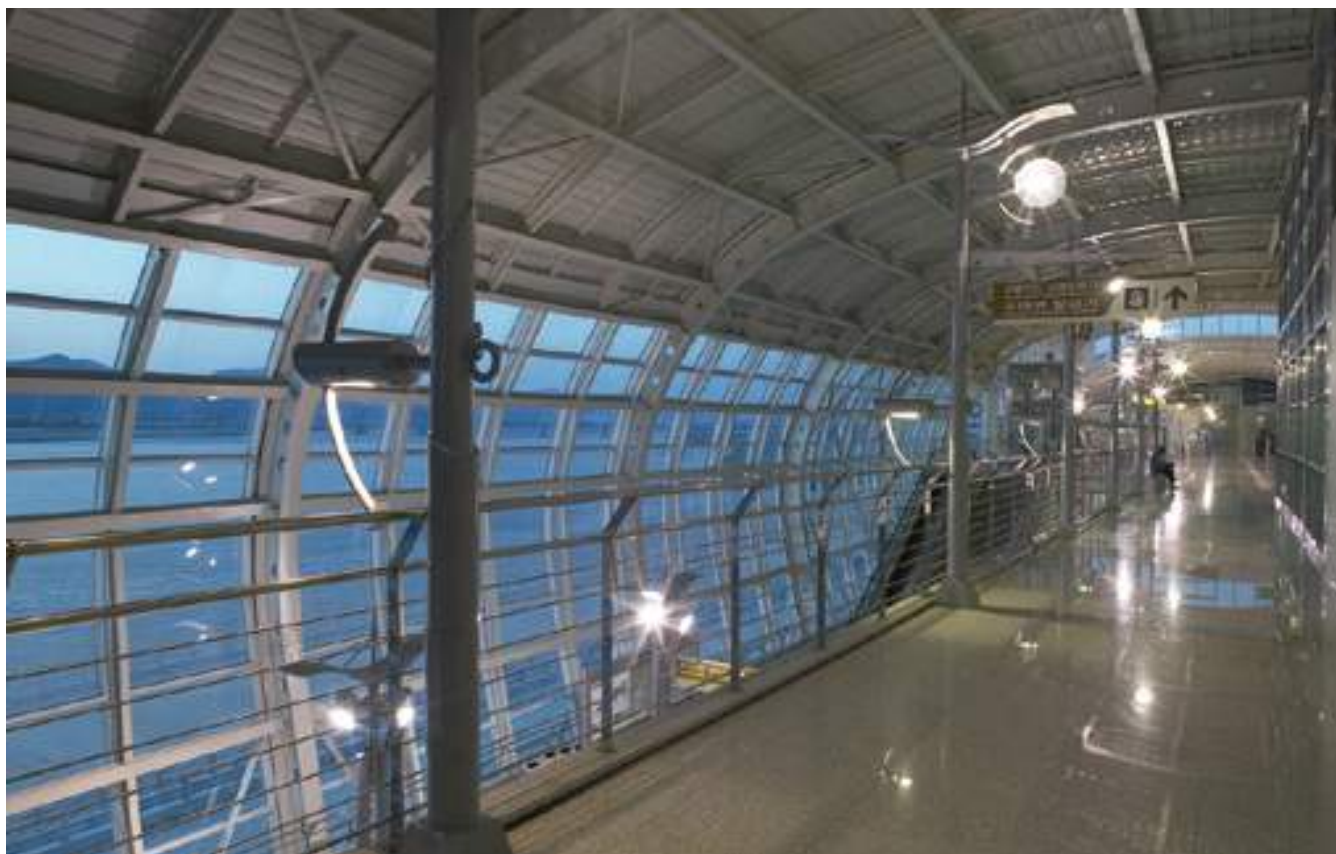


- | | |
|-------------|-----------|
| 01. 전기실 | 07. 역무실 |
| 02. 미화원실 | 08. 발의실 |
| 03. 물탱크실 | 09. 샤워실 |
| 04. 화장실 | 10. 침실 |
| 05. 승강장 | 11. 통신기계실 |
| 06. 승강기 기계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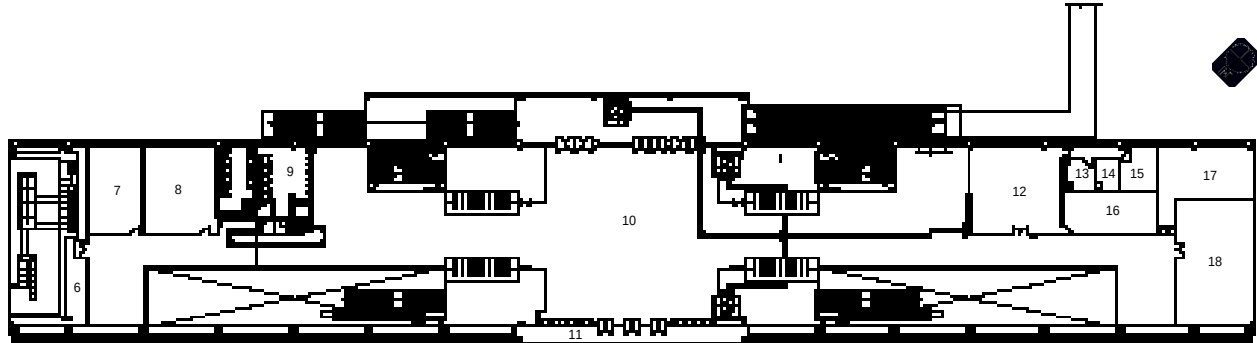
- | | | | |
|---|---|---|---|
| 1 | 2 | 3 | 4 |
|---|---|---|---|
1. 외부전경1
2. 외부전경2
3. 외부전경3
4. 외부전경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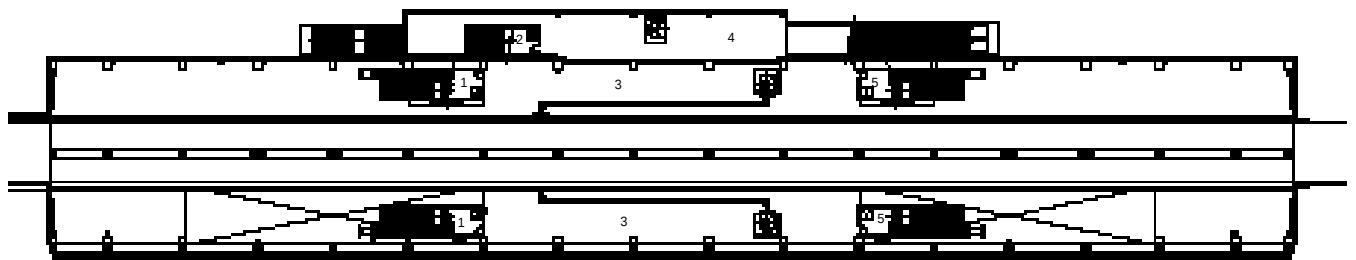
2		1. 승강장1
3	4	2. 대합실2
		3. 승강장2



- | | |
|-----------------|-----------|
| 01_ 계단 하부창고 | 10_ 대합실 |
| 02_ 승강기 기계실(외부) | 11_ 휴게공간 |
| 03_ 승강장 | 12_ 역무실 |
| 04_ 만남의 장소 | 13_ 탈의실 |
| 05_ 승강기 기계실 | 14_ 샤워실 |
| 06_ 전기실 | 15_ 침실 |
| 07_ 미화원실 | 16_ 승차권창고 |
| 08_ 물탱크실 | 17_ 통신기계실 |
| 09_ 화장실 | 18_ 영선분소 |



대합실층 평면도(2층)



승강장층 평면도(1층)

0 5 15 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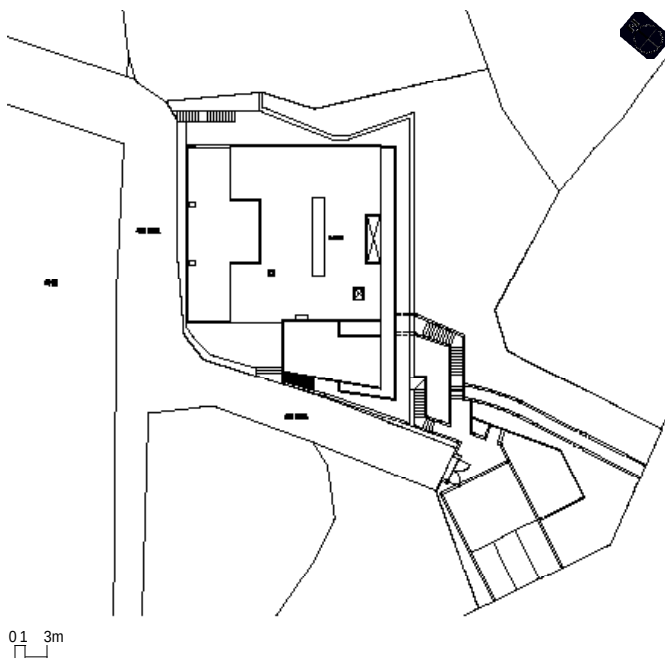


청풍헌(靑風軒)

CheongPungHeon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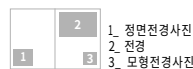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 종로구 신영동 72-10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대지면적	1,190.00㎡
건축면적	354.38㎡
연 면 적	1,778.03㎡
건 폐 율	29.78%
용 적 륜	79.86%
용 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규 모	지하 2층, 지상 3층
구 조	R.C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화강석 잔다듬, 맑은유리, 백토벽돌
내부마감	소송널 붙임, 석고보드위 락카페인트, 벽지
설계기간	2004. 12 ~ 2005. 03
공사기간	2005. 03 ~ 2006. 04



Location	72-10, Sinyeong-dong, Jongno-gu, Seoul, Korea
Site area	1,190.00㎡
Bldg area	354.38㎡
Gross floor area	1,778.03㎡
Bldg coverage ratio	29.78%
Gross floor ratio	79.86%
Structure	R.C
Bldg. Scale	B2, F3
Design period	2004. 12 ~ 2005. 03
Construction period	2005. 03 ~ 2006. 04





입지와균형

이계획대지는북한산전체산세의연속선상에있다. 뒤로는그산세를이루는백악산이있고대지앞에는개울물이흐른다. 지금은강양쪽이 도로와 축대 등 인공 구조물로 이루어져 자연의 모습을 잃고 말았지만, 소나기가 온 후 한번쯤 시원스레 큰 물길이 휩쓸고 난 후 가라앉아몇일간맑게흐르는그개울물만큼은, 그옛날집들이들어 서지않았을때흐르던계류의체취를간직해보인다. 그리고그러한 생각을할때이터가갖고있는본래의감각을살릴수있게된다. 이 건물의 구상은 그러한 자연 지형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여 각각의 공간에서맑은느낌을갖게하려한것과, 터의존재성을간직하게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건축행위에 의한 터의 상실이 아닌 그 힘을느끼며생활하게하고자했다. 또프로그램에따른층별공간의 성격과 대지가 갖는 자연지형 및 도시 여건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간의 배열과 동선이 고려되어 있다. 우선 외부로부터 동선의 흐름은 다리건너에서곧바로오를수있는계단과전면경사도로를따라우측계단으로접근하는두갈래의순환로를이루고있다. 그리고그로부터 당도된 로비에서는 수직 동선 및 뒷마당으로 향하는 외부 공간과 연계되어 있다. 그 흐름은 멀리 뒷산의 산책길과도 연결될 수 있다.

평면계획상에서지하2층은빛이직접유입될수있도록썬큰바닥에유리블럭을깔고환기와채광을위한천창을설치했으며지하1층은 마당과 피로티, 썬큰 등의 외부 공간에 의해 건물 주위를 순환할 수있게했다. 그리고1, 2층은앞뒤로전면창을두어자연채광에유리하게 하고 기둥과 보 등은 노출 콘크리트 마감의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되어구조질서의힘이공간에미치도록했다.

3층주택은기준층평면의윤곽에서면적이좁혀진상태로서앞뒤로마당을갖고있다. 전면쪽은시선이높아진지반이되어원래의지반에서보다전망을훨씬 좋게한다. 그래서그테라스를거닐며더멀리 개방된시선을누릴수있게했다. 그곳에선물윤곽을 따라프레임을 설치함으로써 건축적 감각과 비움의 공간감이 느껴지게 했다. 그리고후면식당앞은발코니와셋백된폭을더하여마당공간을형상하고, 깊어진공간을고려해상부를오픈시켰다.

이 대지는 북한산 자락이 펼쳐보이는 조망 요소와 뒷산의 녹지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있다. 하지만 북사면이어서 일조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조망은북쪽시선이좋지만따뜻한태양은남쪽에있다. 그래서 채광과 조망이 동시에 충족되도록, 조망이 좋은 북측에는 큰 창을설치하고실내에남측햇살이비추는천창을두었다.

덤덤함

현대인들이바라는변화추세는설비장치의의존성과도시와의연관성이 커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써 편리를 누리려 한다. 그러나건축의본질적가치와의미는어느시대사회환경이나문명적 이기의 장치로서가 아닌, 원초적자연 환경에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시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현대의 상황에서 도 도시의 하부 구조가 아닌



인간 본연의 정서 회복에 적합한 환경적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건축을 시대상에 맞게 개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는 건축의 덕목이 시대에 적합하게 변화해가는 것보다 변화할 수 없는 의미에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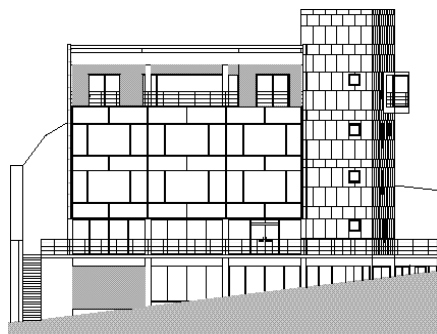
나는 덩덤한 건축을 지향하고자 한다. 장치와 도구가 잘 갖추어져 고형태적 맵시를 드러내려 하기보다 구축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물의 질서, 그 자체로써 표출되는 정직한 모습과 공간적 질서를 지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의 건축작업은 그러한 생각들을 구현해가는 과정이었다.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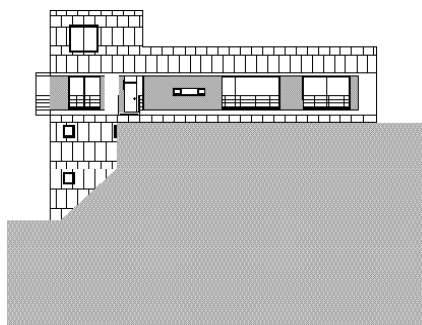
부로 드러나는 건물 이미지는 규모 조건에 의해 필요한 구조체가 갖는 건축적 질서가 솔직하게 표출됨으로서 건강한 건축적 감각을 지니게 하려 했다. 그 질서의 바탕에서 프레임에 의해 공간감이 표출되기도 하고 팍채워진 표면에 쓰인 재료에 의해 물질적 감각이 표출되기도 한다. 이 건물에 쓰인 재료는 천연의 물성을 발하도록 고려했다. 그것은 고대로부터 인류가 주변에서 획득 가능한 천연 재료를 써서 축조 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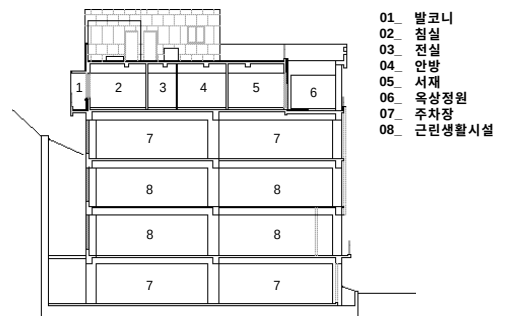
- 1. 뽕큰
- 2. 정면외관상세
- 3. 외벽상세
- 4. 지하1층피로티부분의통로
- 5. 로비와마당
- 6. 뽕큰바닥의채광과환기창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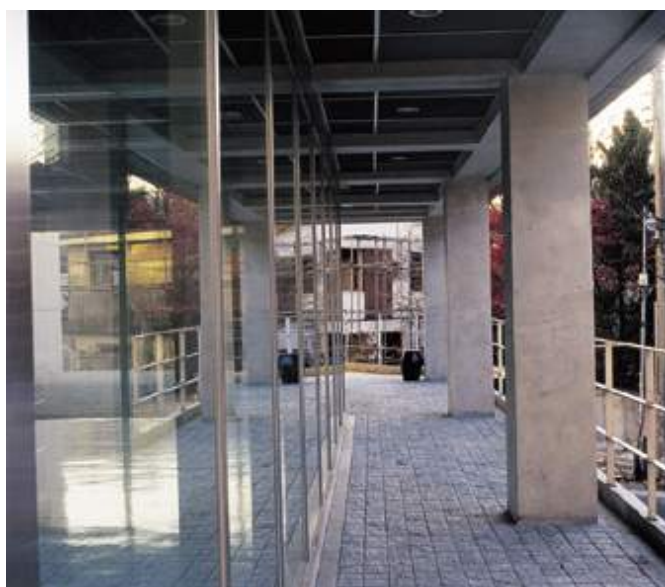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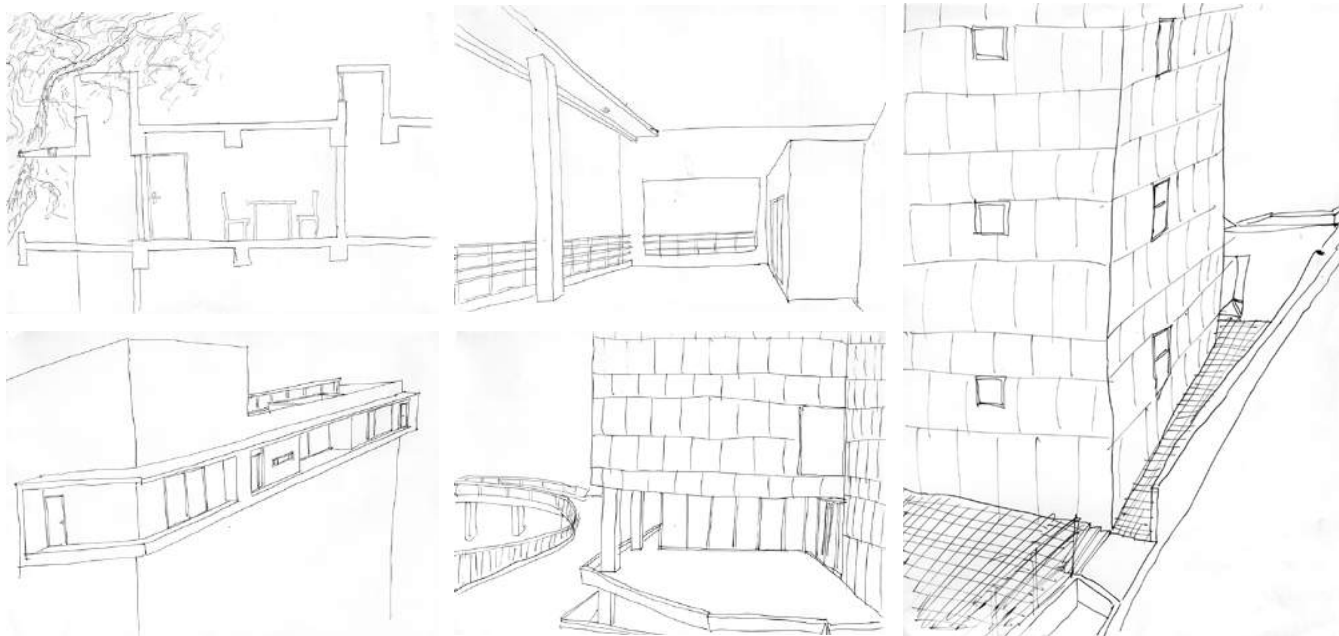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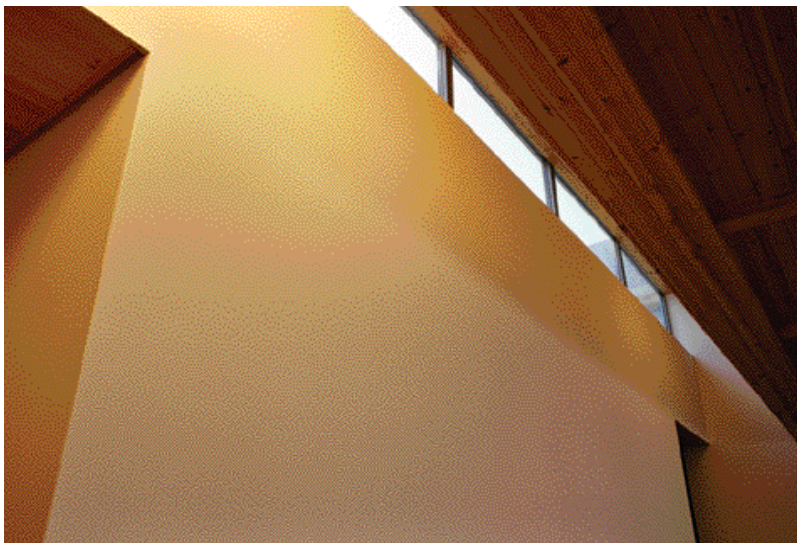
배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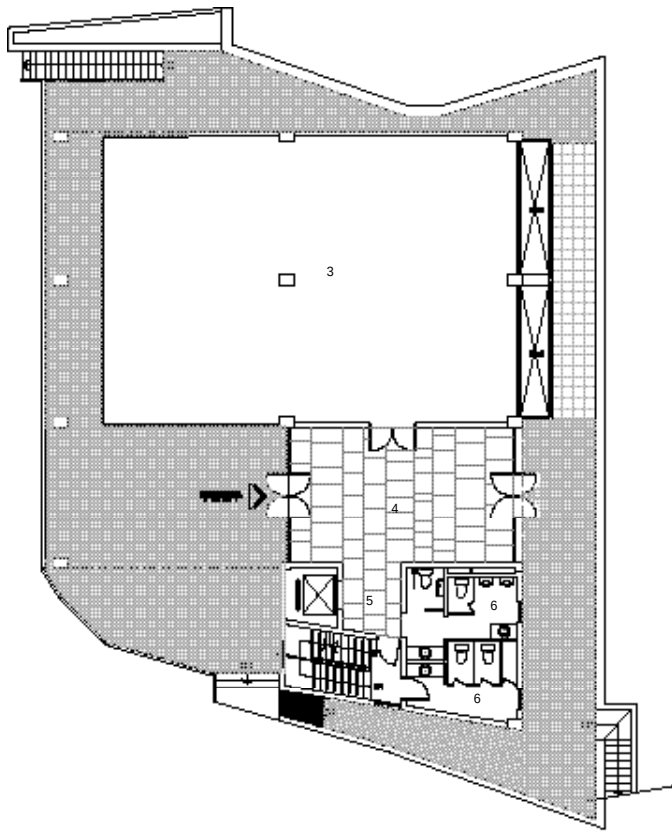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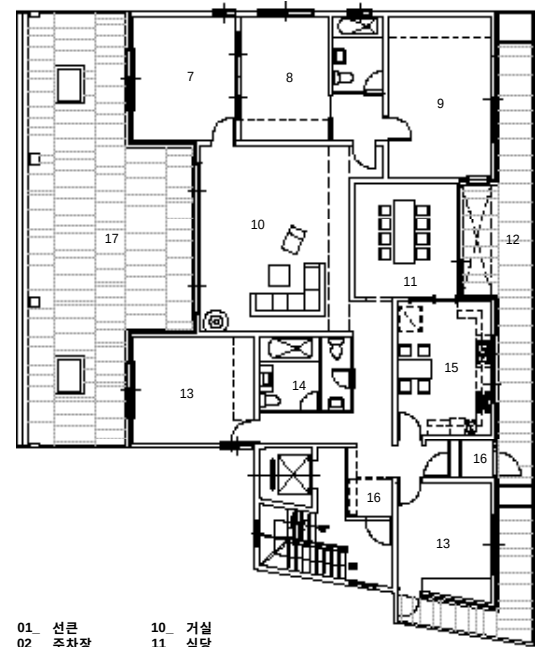


- | | |
|---|---|
| 1 | |
| 2 | |
| 3 | 4 |
- 1. 북측거실앞옥상정원
 - 2. 거실천장부분
 - 3. 거실과식당사이커와재광
 - 4. 남측식당앞테라스상부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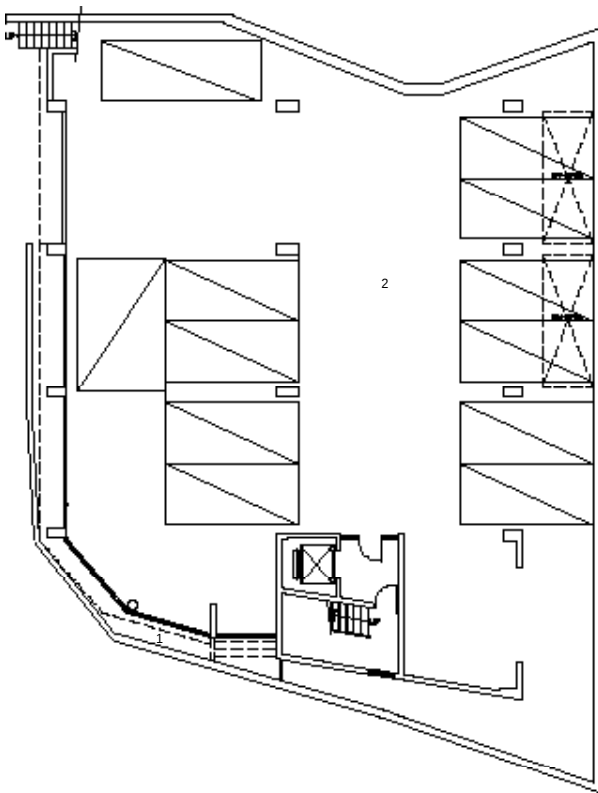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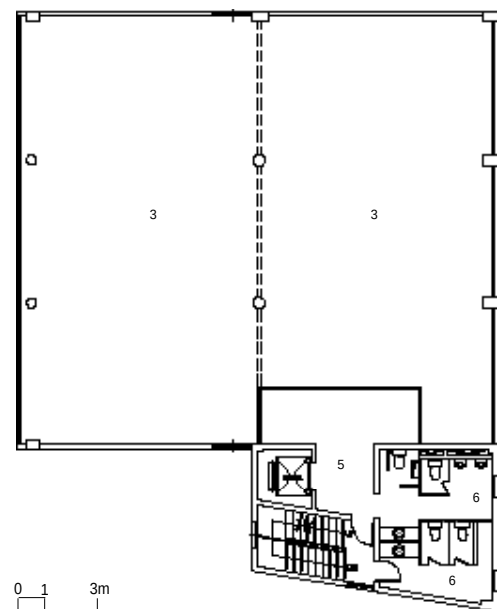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 | | |
|------------|----------|
| 01. 선큰 | 10. 거실 |
| 02. 주차장 | 11. 식당 |
| 03. 근린생활시설 | 12. 발코니 |
| 04. 로비 | 13. 방 |
| 05. 홀 | 14. 욕실 |
| 06. 화장실 | 15. 주방 |
| 07. 서재 | 16. 현관 |
| 08. 안방 | 17. 옥상정원 |
| 09. 침실 | |



지하 2층 평면도



1~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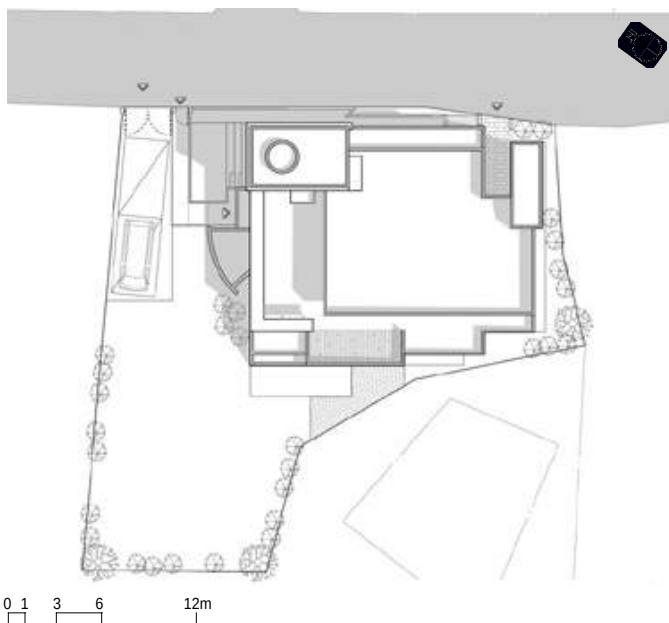
0 1 3m

꼬마도깨비 어린이집

Kkomadoggaebi Educare Center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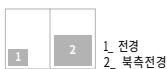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시 아라2동 1481-4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 자연취락
대지면적	661.00㎡
건축면적	261.42㎡
연면적	550.70㎡
건폐율	39.55%
용적률	83.31%
용도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규모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두께 0.5 아연도금 골강판, 방부목 위 오일스테인, 자기질타일, 외단열시스템
설계담당	안혜숙, 이승미
구조설계	고만영
전기설계	홍산 엔지니어링
설비설계	하나기술사사무소
시공사	세종건설
건축주	양문실
설계기간	2005. 08 ~ 2005. 10
공사기간	2005. 11 ~ 2006. 05



Location	1481-4, Ara2-dong, Jeju-si, Jeju-do, Korea
Site area	661.00㎡
Bldg area	261.42㎡
Gross floor area	550.70㎡
Bldg coverage ratio	39.55%
Gross floor ratio	83.31%
Structure	R.C
Bldg. Scale	F3
Design period	2005. 08 ~ 2005. 10
Construction period	2005. 11. ~ 2006. 05





Post school

사회와 처음 만나는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다채롭고 풍부한 공간, 다양한 장치 등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경험들을 이끌어낸다.

전체적으로 절제된 조형언어 속에서도 다양한 공간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 촉각, 시각적 풍부함을 유도하고, 내부에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장치들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매스의 일정부분을 비워내어 내, 외부의 중간영역을 만들고, 가변성을 지닌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이야기가 담긴 공간 안에서 서로의 경험들과 관계 맺으며 나 자신과 서로를 알아가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아이들 각자의 상상력과 꿈을 가득 키워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골목길 (Alley)

아이들의 공간은 길에 의해 연결된다. ‘골목길’ 이 자연스러운 커뮤니티의 공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길을 통해 아이들의 자연스럽고 다양한 만남들을 담고자 하였다.

길에서 이루어지던 행위들은 마당을 통해 더 크게 확장된다. 길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 마당에서의 서로와의 행위를 통한 관계 맺음의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시작하는 첫 사회활동인 것이다. 가족의 품이 아닌 보육시설이라는 작은 사회로부터 시작하는 다양한 체험이나 참여를 통해 사회로의 진정한 발디딤이 시작된다.

마당 (Utility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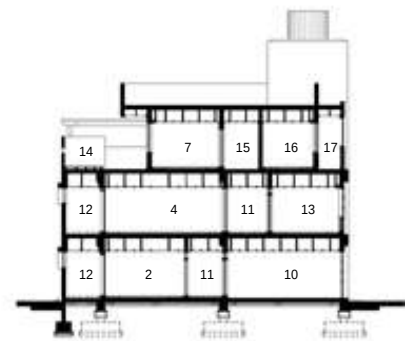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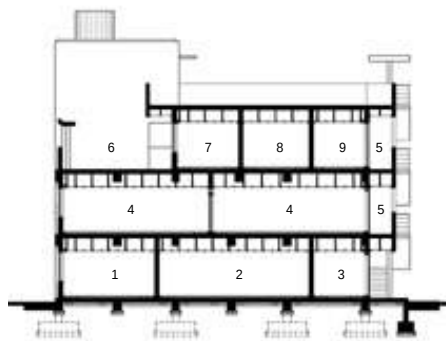
유아의 공간은 어른과 달리 지정된 기능만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닌, 다채로움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에 대응하는 가변적 공간으로, 이를 위해 건축사는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Utility Space를 제안한다. 이는 하나의 Multi - Purpose(다목적)로서, 또는 Variable(가변성)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으로서 유아스스로 만들어갈 때 더욱더 풍부한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



1. 서측전경
2. 외부재료의질감대비
3. 하늘마당에서의바다조망
4. 소집단영역과주원관
5. 외부사이공간
6. 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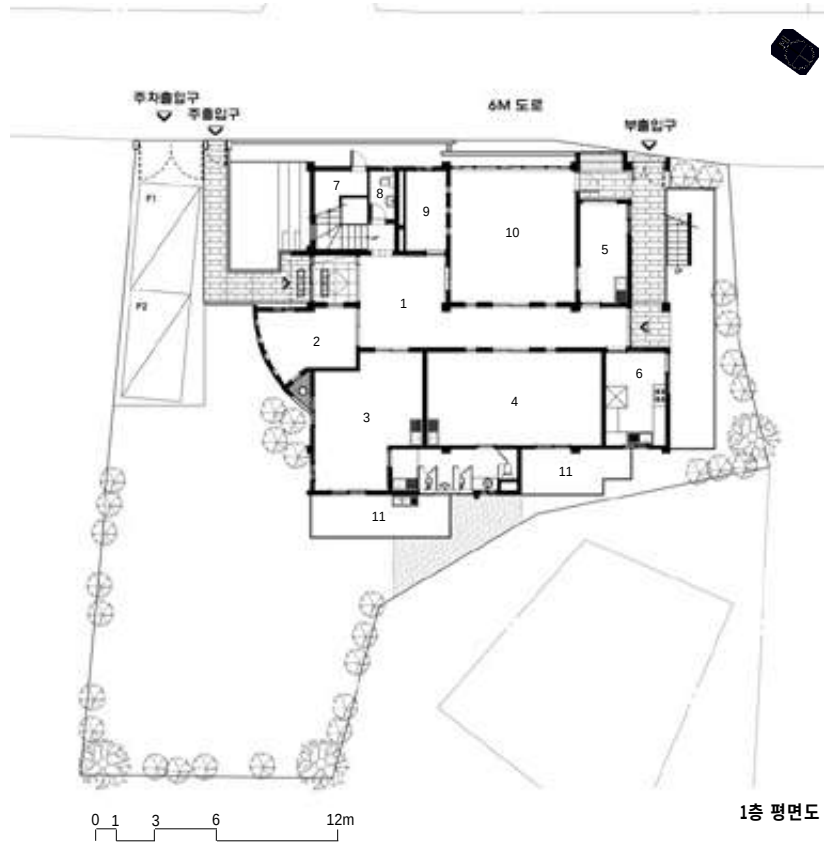
1	3	5
2	4	6

- 01_ 1세반
- 02_ 2세반
- 03_ 주방
- 04_ 4세이상반
- 05_ 테라스
- 06_ 하늘마당
- 07_ 숙직실
- 08_ 휴게실
- 09_ 회의실
- 10_ 유치실
- 11_ 복도
- 12_ 화장실
- 13_ 3세반
- 14_ 누마루
- 15_ 창고
- 16_ 원장실
- 17_ 다용도실



단면도





- | | | | | |
|---|---|---|---|---|
| 1 | 2 | 3 | 4 | 5 |
|---|---|---|---|---|
- 1. 내부복도
 - 2. 유치실
 - 3. 하늘마당에서의오름조망
 - 4. 이야기마당
 - 5. 내부계단





- | | |
|---------|----------|
| 01_ 홀 | 13_ 4세반 |
| 02_ 교무실 | 14_ 휴게실 |
| 03_ 1세반 | 15_ 회의실 |
| 04_ 2세반 | 16_ 숙직실 |
| 05_ 0세반 | 17_ 탕비실 |
| 06_ 주방 | 18_ 원장실 |
| 07_ 창고 | 19_ 다용도실 |
| 08_ 화장실 | 20_ 전실 |
| 09_ 자료실 | 21_ 하늘마당 |
| 10_ 유회실 | 22_ 누마루 |
| 11_ 테라스 | |
| 12_ 3세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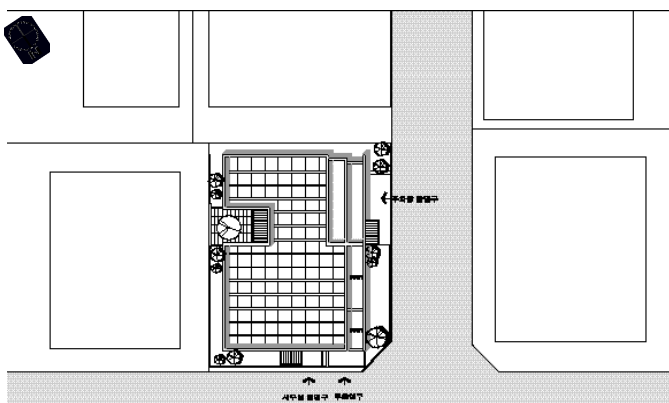


방배 한울타리

Bangbae Hanultari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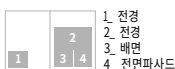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79-1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08.95㎡
건축면적	124.92㎡
연 면 적	606.66㎡
건 폐 율	59.78%
용 적 륜	225.27%
용 도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프로데마 보드, 베이스패널, T24, T8강화유리
내부마감	황토, 솔잎가루, 콩가루, 은행잎가루 혼합위 부직포/벽지, 나무마루
설계담당	조세형, 정택수
사진제공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이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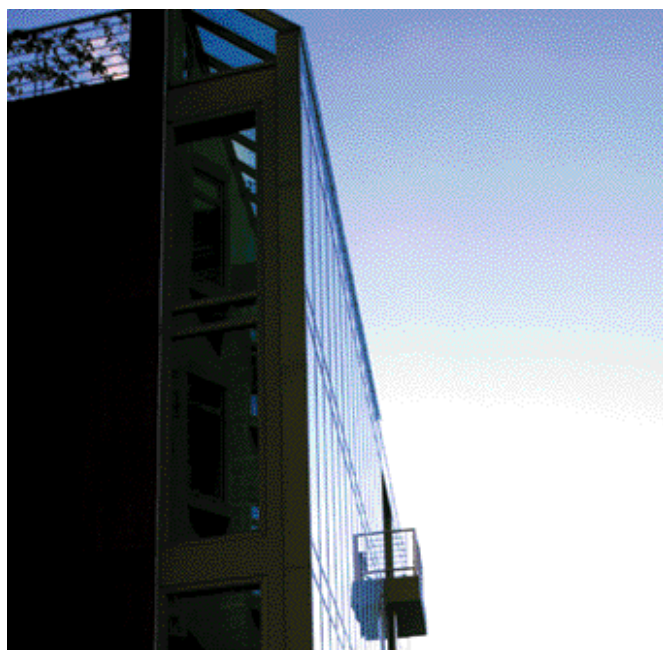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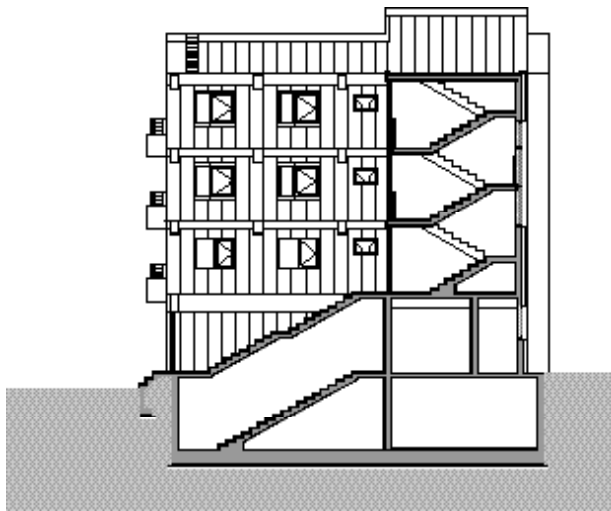
Location	879-18, Bangbae-dong, Seocho-gu, Seoul, Korea
Site area	208.95㎡
Bldg area	124.92㎡
Gross floor area	606.66㎡
Bldg coverage ratio	59.78%
Gross floor ratio	225.27%
Structure	S.R.C
Bldg. Scale	B1, F4



이 project의 부지는 주변이 정리가 그나마 잘되어있는 단독주택지에 위치해 있는 대지로써 부지가 작고 건축이 규모도 작지만 어떻게 더 넓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를 찾고, 대지 전체를 이용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또한 이웃과의 경계를 구획하지 않으며 건축으로서 주변의 활기를 되찾게 하고 우울한 대지 주변의 가식적인 모습들을 부정하며 단순한 조형에 의해 시원하고 깨끗한 환경을 모색하고자 했

다. 주변 건축들에 의한 조망이 차단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를 해소하고 노을지는 태양을 바라다보며 사색적 공간으로 유도한다. 가끔은 눈과 비를 맞으며 내외부 공간을 오고가고, 건축으로서 풍경을 만들어가며, 자동차는 자유롭게 차고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집에 맞는 차고를 만들었다. 정직한 건축의 모습으로 탄생하도록 노력하였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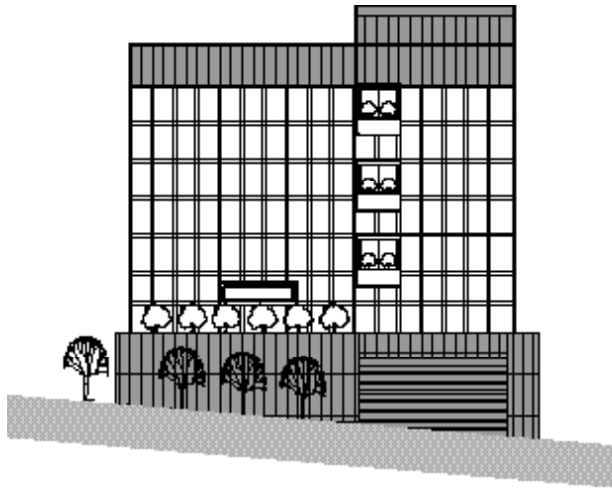




단면도



- | | | |
|---|---|---|
| 1 | 2 | 3 |
|---|---|---|
1. 측면전경
2. 측면
3.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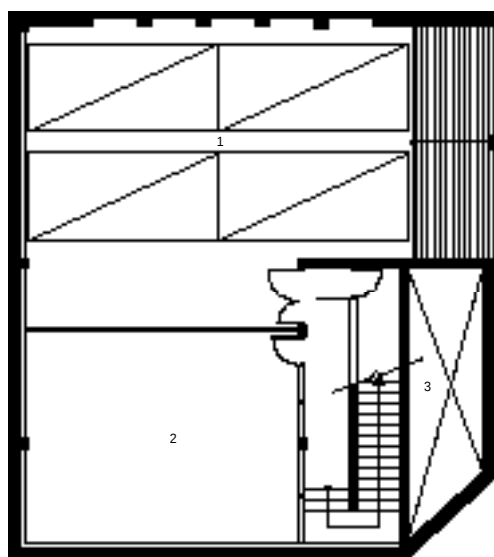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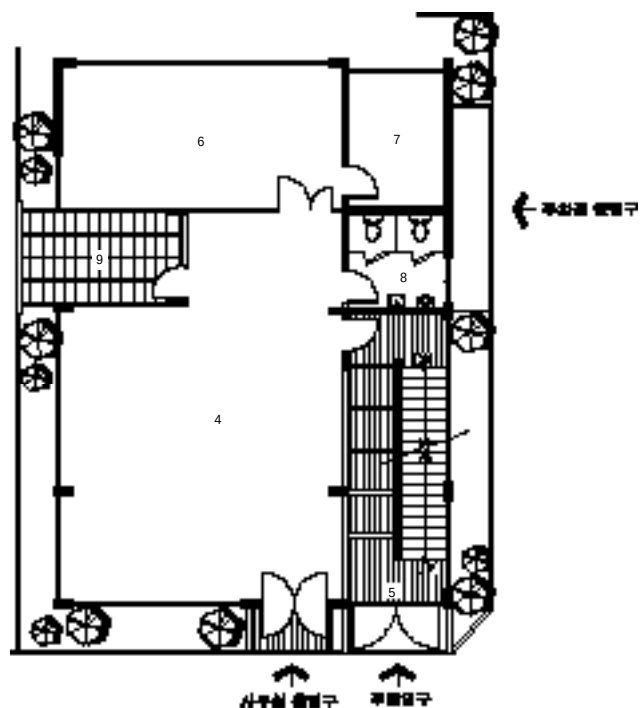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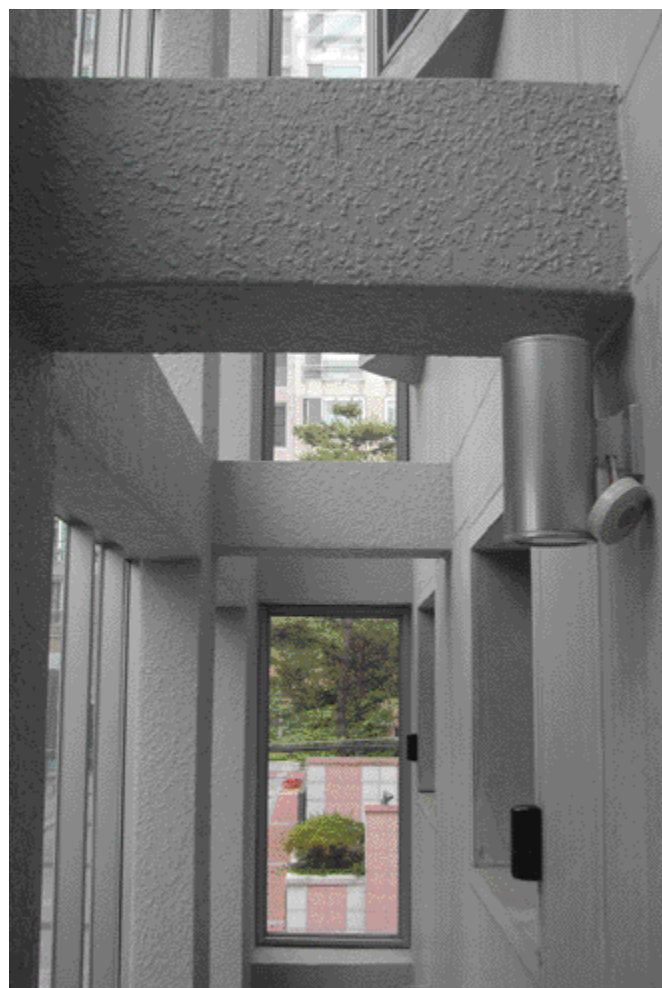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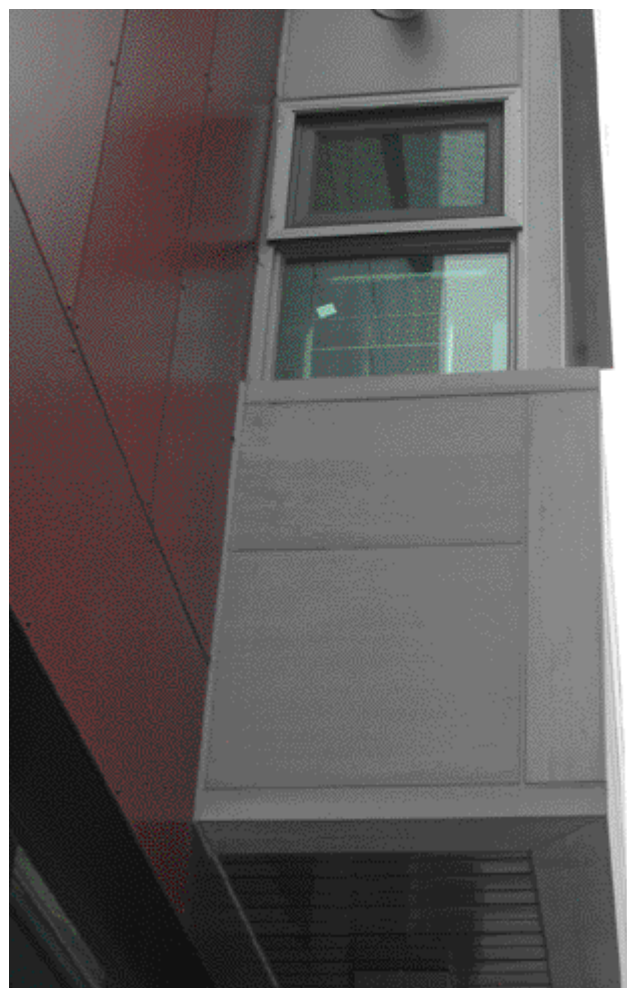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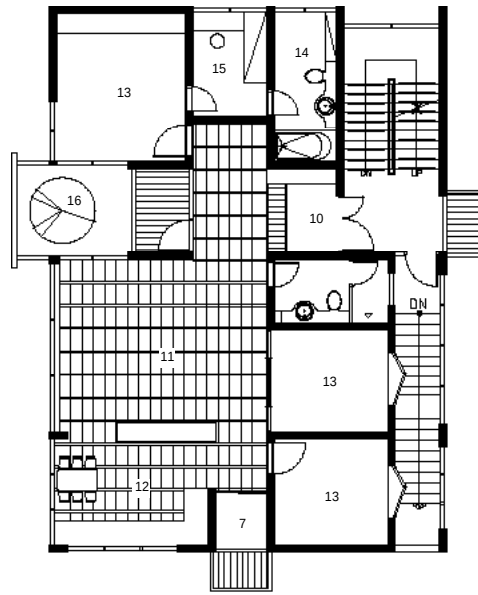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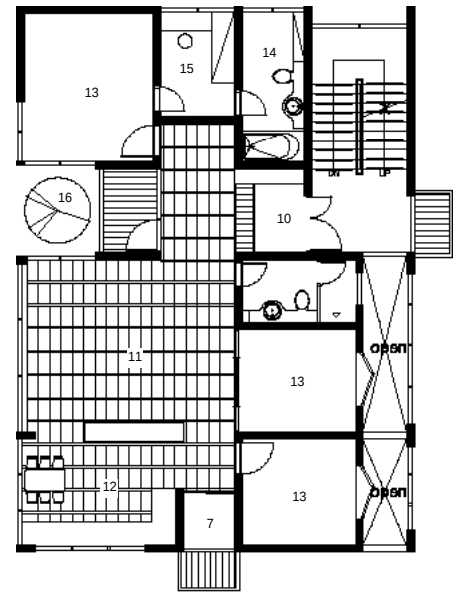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01. 주차장
- 02. 운동실
- 03. 정화조
- 04. 사무실
- 05. 주출입구
- 06. 임원실
- 07. 다용도실
- 08. 화장실
- 09. 데크
- 10. 현관
- 11. 거실
- 12. 주방, 식당
- 13. 방
- 14. 욕실
- 15. 파우더룸
- 16. 오픈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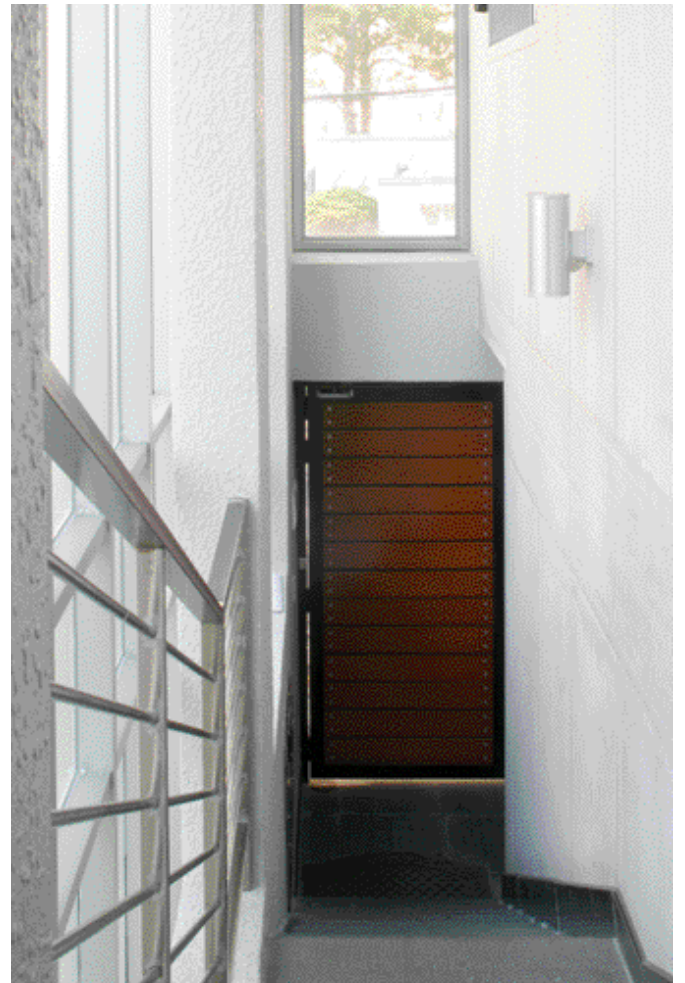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4층 평면도

- | | | | |
|---|---|---|---|
| 1 | 2 | 3 | 4 |
|---|---|---|---|
- 1. 측면
 - 2. 진입상부
 - 3. 실내
 - 4. 출입구



분당주택 . II

BunDang Residence I • II

첫번째프로젝트와의만남

1994년 분당 신도시에 ‘새로운 주거문화의 창조’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주택전람회가 개최되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이미개최된바있지만, 우리로서는처음시도하는것으로그당시사회각층의관심을고조시켰다.

이전람회에서공동주택(빌라)은대부분건축이실현되었지만, 개인주택은 나대지로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2001년이곳에대지를구입한건축주로부터설계의뢰를받고대지와의만남이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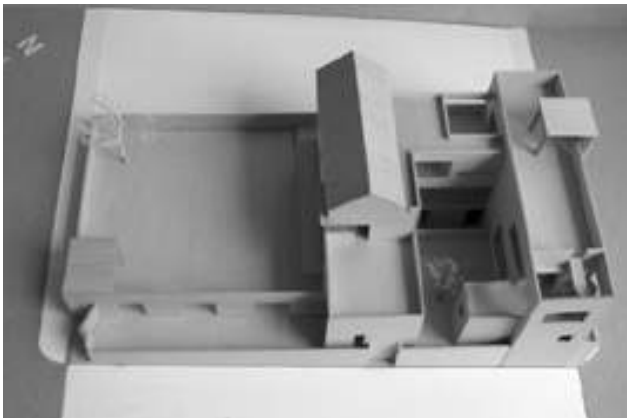
그러나 곧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 전람회 부지는 처음 계획 설계에 참여했던 작가만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당 관청에문의한결과참여작가의동의를구하거나또는건축심의를

통하여건축이가능하다는답변을얻고약간의희망을갖게되었다. 8년 정도 주인을 찾지 못한 대지는 최초설계는 paper work 도 사라진 상태여서 건축주와의 미팅을 통하여 새로운 계획안을 완성하였다. 또한건축심의를통하여나의작품을이곳에실현하게되었다.

작품의계획과정

배치 및 평면계획은 대지의 조건과 설계지침에 의거하여 대문 및 주차장 출입구가 결정되었다. 후면도로의 레벨차이를 이용하면 전면의 정원이 더 쓸모 있게 계획되었을 텐데 출입구를 낼 수 없는관계로현재의안으로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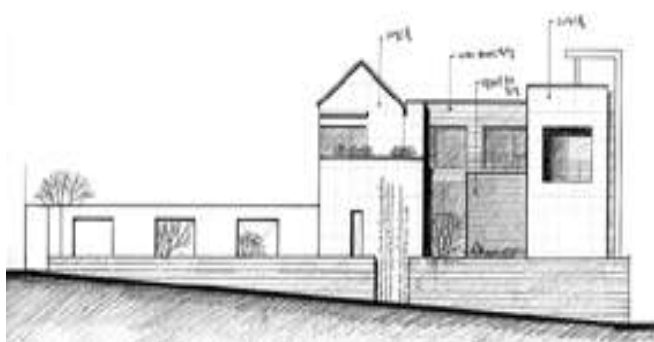
전면마당과중정등을계획하여주택에서다양한공간을제공



하였다. 후면 도로에서의 소음을 고려하여 개구부를 최소화하였고, 옥상 등 데크공간을 할애하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거실과 식당에 레벨차이를 두어 식당에서 거실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번째프로젝트와의만남

첫번째작품이완성된후, 두번째의기회가주어졌다. 건축주와의 처음 만남으로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2년간의



휴지기간이흘렀다. 포기하고있었는데건축주로부터설계의뢰의부탁을받고한없이반가웠다.

작품의계획과정

노부부의 설계조건은 단순한 공간, 소박한 재료를 사용한 편안한 주택이었다. 처음 대안은 유럽풍의 경사지붕 형태의 주택이었으나, 다시 단순하고 소박한 건축재료의 주택을 짓고 싶다는 주문이었다. 내심 반갑고 의욕이 불타올랐다. 여러 대안을 제안하여 백색 외벽의 주택을 설계하게 되었다. 각실들은다양한기능을담기원하여기본 적실들의에다다미방, 참선방, 다실등여러용도로사용가능토록각 실의분위기를연출하였다. 거실에서도2개의공간으로나누어변화 를주었다. 좋은건축주를만나는것은건축사에게좋은작품을만들 수있는행운이라생각한다. 다만역량이부족함을느끼며최선을다 해작업에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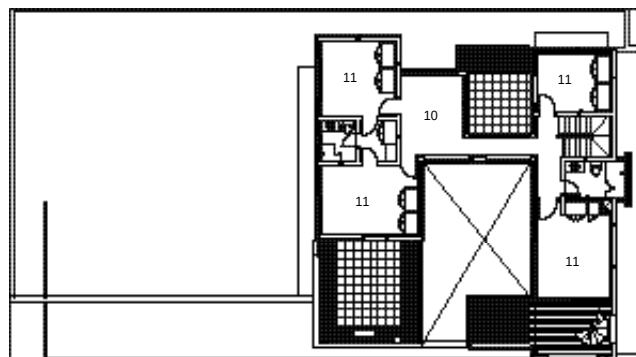
에피소드

건축주는처음이 대지에 계획한 작가에게 의뢰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2년이 흐른 후에 다시 필자에게 설계 디자인을 의뢰했다. 처음 작가와의만남이너무힘들었고건축주의의견반영이어려웠다고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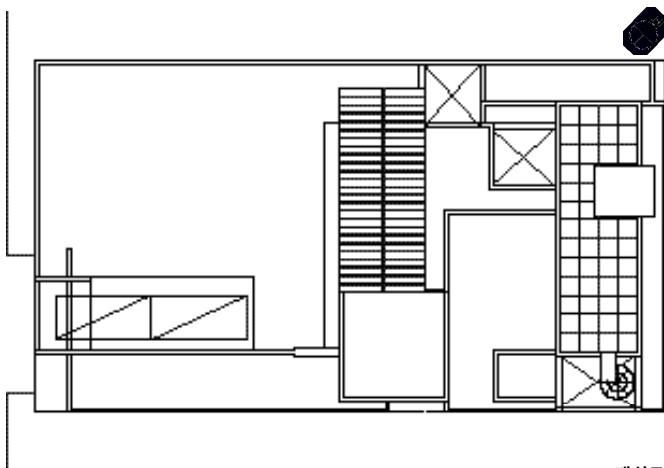
설계개요

대지위치 성남시분당구분당동 57-번지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662.2㎡
건축면적 216.8㎡
연 면 적 458.5㎡
건 폐 율 34.85%
용 적 륜 53.42%
용 도 단독주택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층 수 지상2층
외부마감 라임스톤, 징크패널, 목재루버(덜바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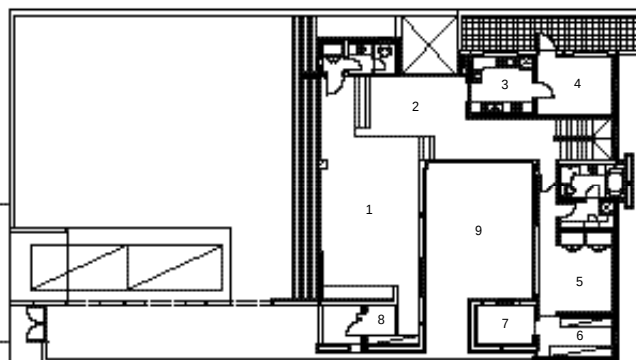
- 01_ 거실
- 02_ 식당
- 03_ 주방
- 04_ 다용도실
- 05_ 안방
- 06_ 드레스룸
- 07_ 서재
- 08_ 현관
- 09_ 중정
- 10_ 가족실
- 11_ 침실



2층 평면도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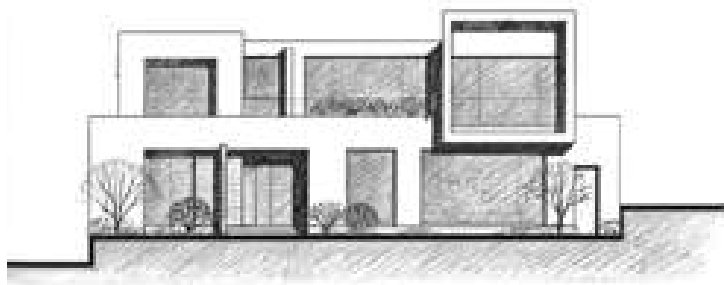
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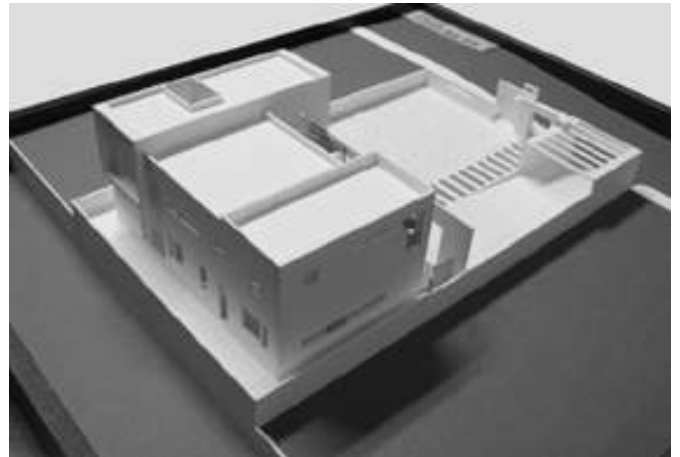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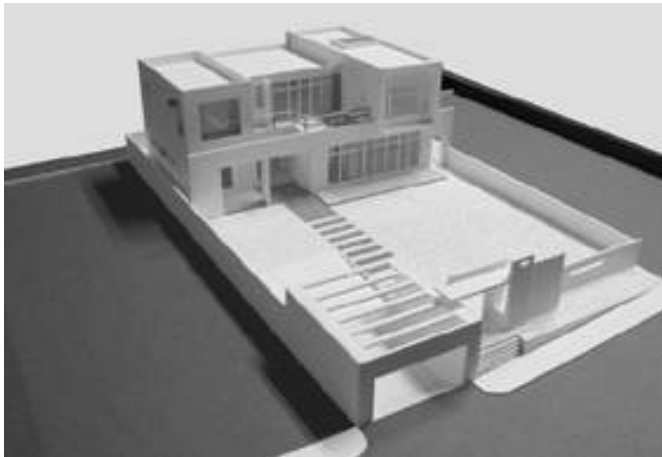
또한건축주의배려로전면도로의 담장을후퇴시켜 조경공간을확보, 이웃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였다. 매우 흥미롭고 아름다운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일이일어났다. 이웃대지의건축주가 담장이 자기대지를 침범하였으니, 담장을다시시공하여줄것을요구하였다. 담장은대지경계선상에설치하는것이상식인데, 그것마저인정치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담장허물기 운동이 미담으로 여겨지는데, 담장때문에민원이야기되어서로가불편한이웃이되었다. 이런아이러니하고이해못할 일이마음씨 고운 건축주에게일어난 것이다. 아직미해결인 상태로이 사건은 법원의판단을기다리고있다. 좋은이웃을만나는것도큰복일텐데, 우리들마음의담장은언제나허물어질지아직해결되지못한마음의상처로남아있다.

이제 세번째만남이기다리고 있다. 다음에는더 잘할수 있게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또한이웃의도움과상식이통하는사회가되길간절히바라며...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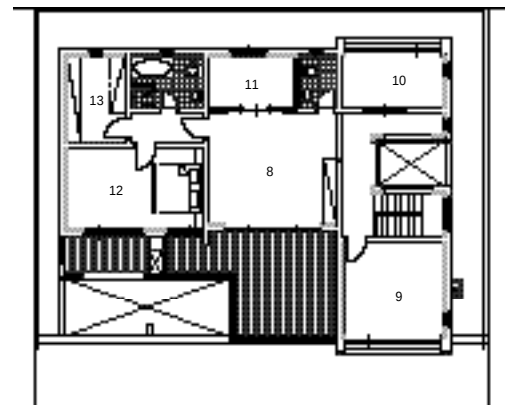
설계개요

대지위치	성남시분당구분당동 57-번지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640.5㎡
건축면적	178.5㎡
연면적	312.2㎡
건폐율	27.88%
용적률	48.76%
용도	단독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상2층
외부마감	드라이비트고운봉철, T22복층유리
내부마감	벤자민무어페인트, 원목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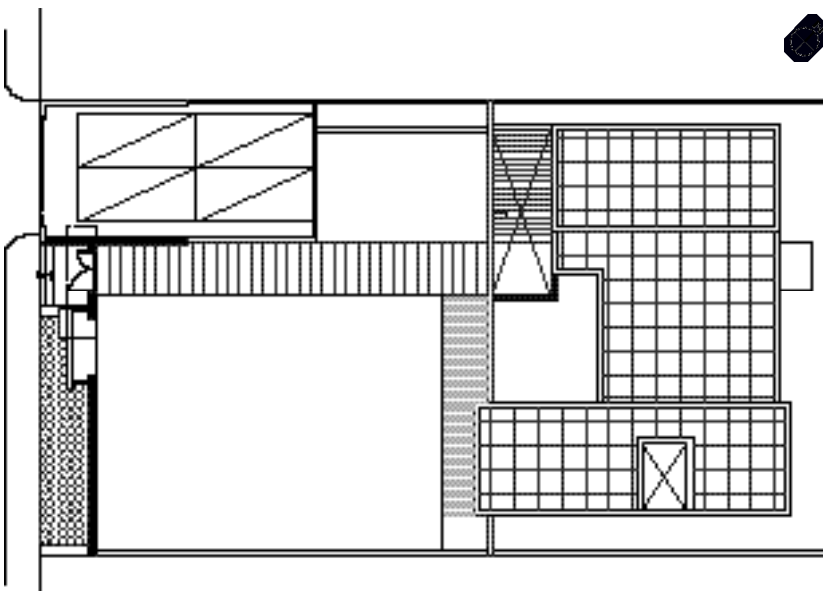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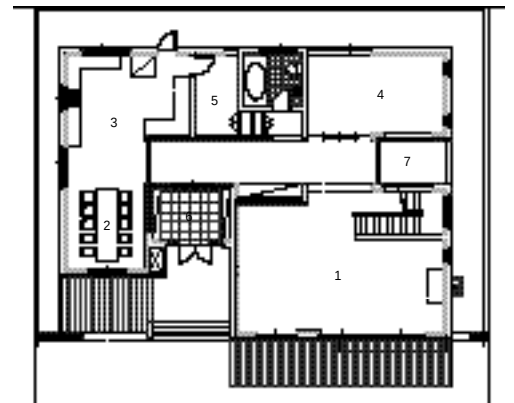
- 01. 거실
- 02. 식당
- 03. 주방
- 04. 다다미실
- 05. 다용도실
- 06. 현관
- 07. 중정
- 08. 가족실
- 09. 침실
- 10. 서재
- 11. 다실
- 12. 안방
- 13. 드레스룸



2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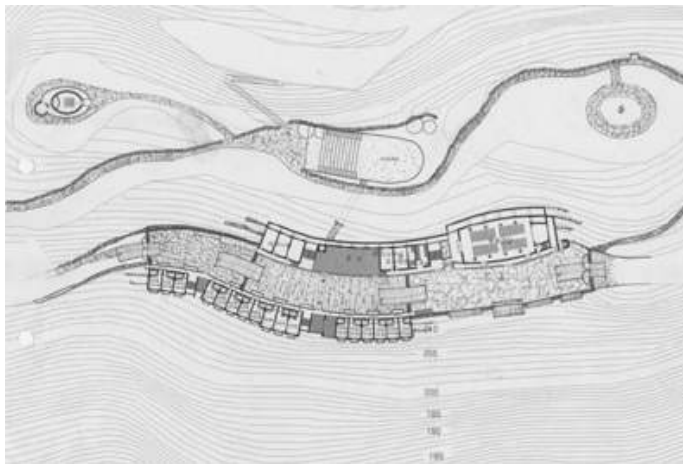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 1 2m

천주교 마산교구 구산교육원

Goosan Catholic Monastery, The Diocese of Masan

●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난포리 산37외
지역/지구	농림지역, 해군기지지역, 보전임지(생산)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수도원)
대지면적	9,889.0㎡
건축면적	1,906.4㎡
연 면 적	5,914.9㎡
건 폐 율	19.28%
용 적 률	48.44%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석고보드위 핸드코트마감
외부마감	점토벽돌치장쌓기, 동판지붕잇기
설계담당	손관호, 하혜란, 김수진, 진범성, 김종주, 이인구, 이승연, 손다익, 정경준
구조설계	한일구조기술사사무소
설비설계	(주)선화설계사무소
전기설계	(주)선화기술단사무소
설계기간	2004. 10 ~ 2006. 03



계획노트에서

이 계획안은 장소로부터 단절된 건물이 개입한다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확신과 함께, 현대사회의 방만함과 경계에서 집단생활을위한장이라는의미와조용히기도하고관상하기위한종교적장으로서의두가지의미로부터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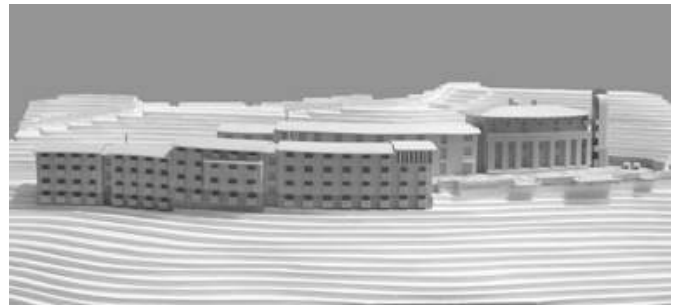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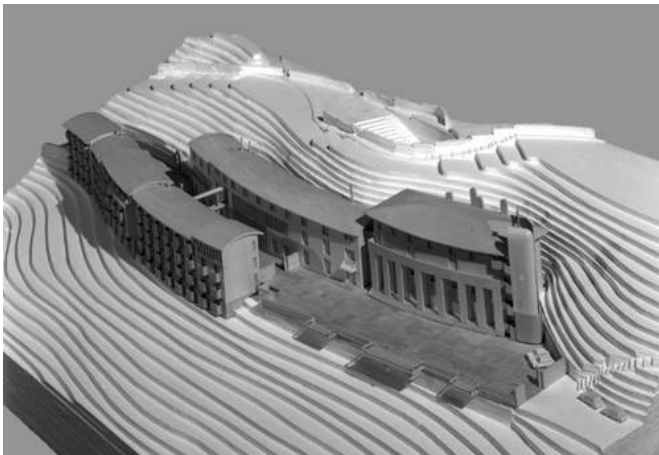
- 제한된 부지와 지형 및 물리적인 규제와 주변자연환경에 의해 단절된 건축이 아닌 장소와 조응하는 배치 및 공간 계획을 설계 하고,
- 이미훼손된기존도로를최대한활용하여교육동과숙소동의기능과동선을분리배치함으로써개인과공동체교육공간의영역구분을피함.
- 정문에서 성당이 동측을 향하게 하면서, 전면광장과 함께 트인 바다로의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상징적이고도 전례중심공간이 되도록 하며, 필요시 교육동은 별도의 행사(일시적)가 숙소동과의장애없이(특히강당) 출입이가능하도록함.
- 기능공간의영역구분
 - 개실영역: 개인적인기도, 묵상
 - 교육영역: 공동기도, 교육, 독서, 친교(교회가 본질적으로는 공동체= 커뮤니티를구성)
 - 전례영역: 성당, 강당(종교, 문화적외부행사등)
 - 야외공간: 외부교육, 집회, 묵주기도, 노동(환경관리작업)
- 내구성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내진구조설계)

• 외벽: 점토벽돌(보편적이미지)

• 지붕: 징크판(동판)

- 검박함: 간결하고자연적인소재와환경적인마감재료사용.(페인트등치장적인마감지양)
- 실용성(효율성):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와 공간을 구성하고, 에너지 관리측면에서 열원을 가스연료로 하며, 교육동에서는 사용시간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개별 식냉난방패키지시스템을도입.
- 자연환경과의 격리와 접근: 교육원을 산만한 자연환경과 개방되어 있는 봉화산으로의 외부인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벽돌벽면과 담장으로 구획하고(독립적인 내부마당 형성) 동시에 대문(후문)을나서면외부자연환경과접할수있도록함.(경관)
- 기념성당은 교구청 단지 내와 인근지역에서의 상징적인 신앙조형물로서, 신자들에게는순례지로서, 일반인에게는종교적체험의장소로서환경과공간을제공함.(전기, 설비일체배제)
- 진입도로는현도로를보수하는데그쳐자연환경을보존하되연결도로와중정, 광장은빗물이스며땅이호흡할수있는투수성포장재로마당의역할을함.(생태와환경)
- 기념성당과 비워둔 산 정상까지의 도로는 한 측면 성벽(돌벽)과 일부돌계단을설치, 경사순로를설치함으로써고난의길과고결한신앙의길에이르는기억의장소성을갖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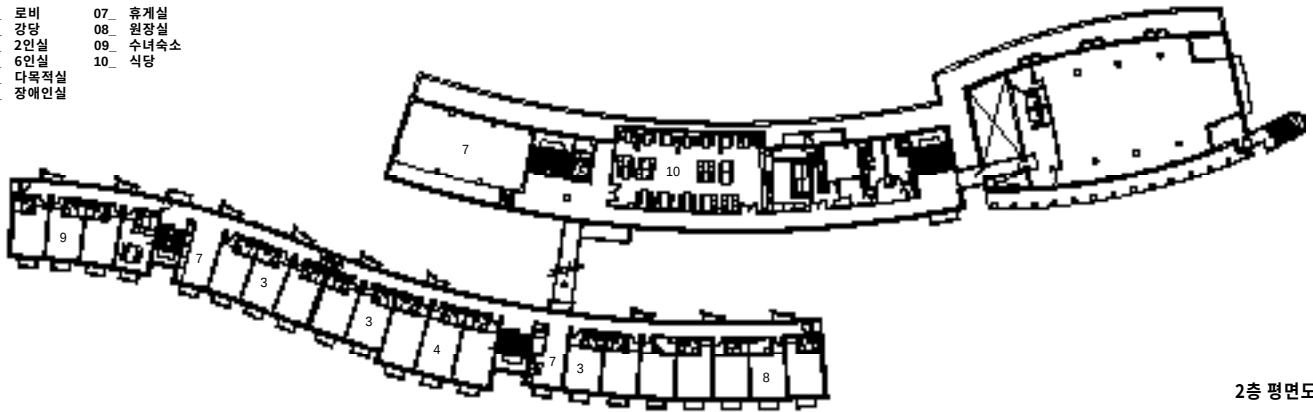


- 중세 수도원의 엄격성과 품격을 전형으로 삼고, 한국 개톨릭 전
래의 가치를 지역적 전통과 현대적인 건축 해석으로서, 집단생
활을 위한 주거, 혹은 생활의 장이라는 의미와 조용히 기도하고
사색하기 위한 종교적 장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 공간 환경
으로 설계함.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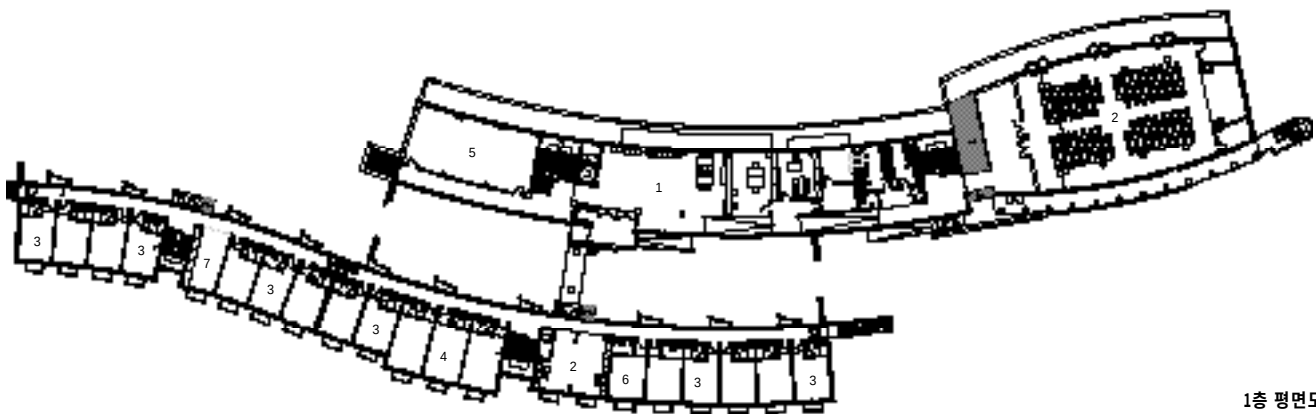
“Nobile claret opus, sed opus goud nobile claret clarificet
mentes.”

이집을 고귀하게 빛나게 하시고, 빛나는 이집이 우리마음을 밝히게
하소서. -최초의고딕창시자, 생드니수도원장쉬제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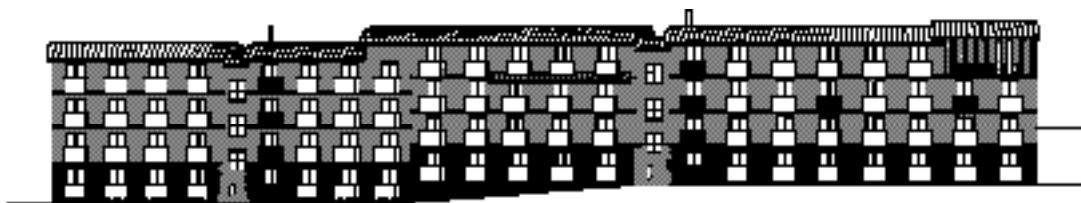
- | | |
|----------|----------|
| 01_ 로비 | 07_ 휴게실 |
| 02_ 강당 | 08_ 원장실 |
| 03_ 2인실 | 09_ 수녀숙소 |
| 04_ 6인실 | 10_ 식당 |
| 05_ 다목적실 | |
| 06_ 장애인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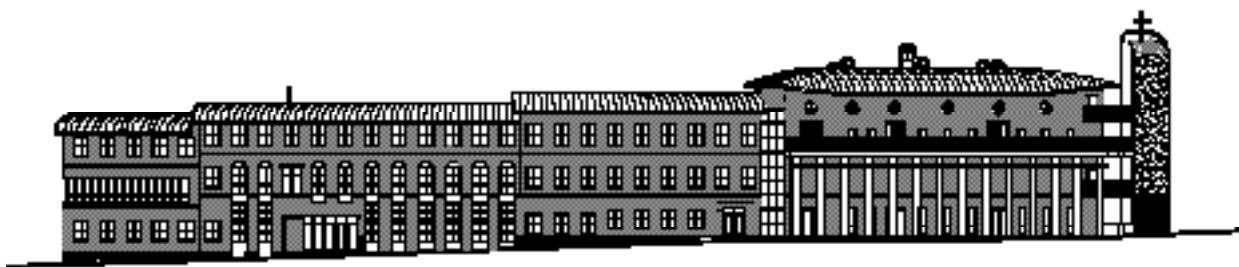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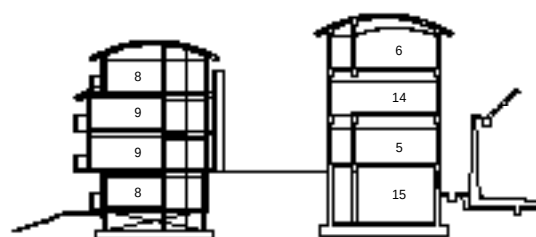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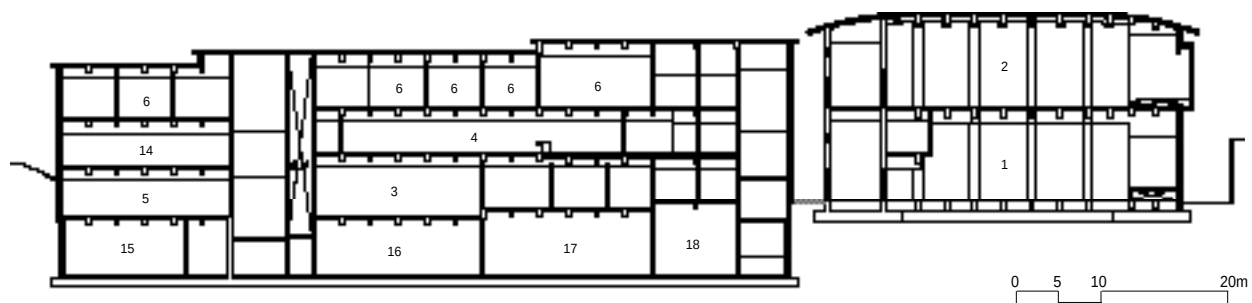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숙소동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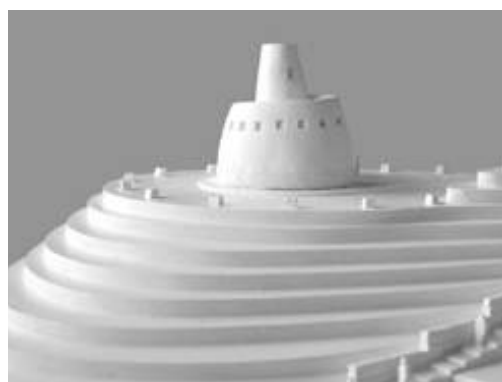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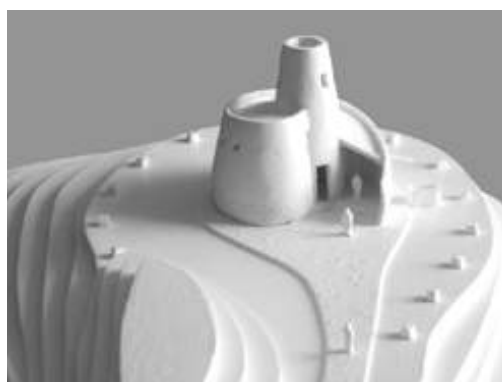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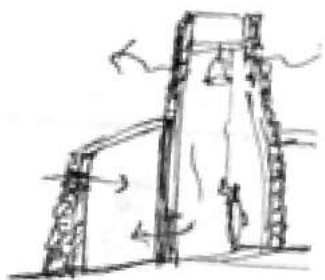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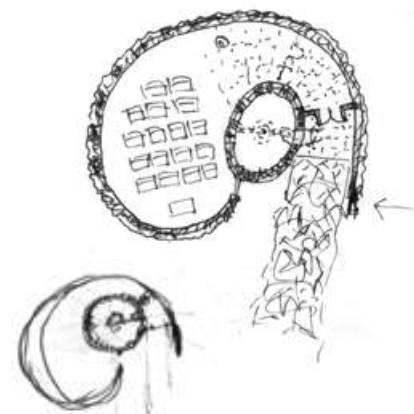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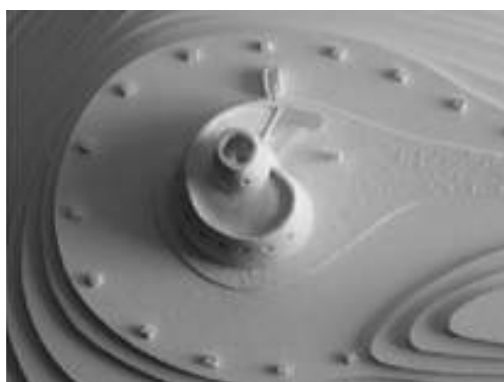


교육동, 성당동 입면도



단면도

- | | |
|----------|-----------|
| 01. 강당 | 10. 수녀숙소 |
| 02. 성당 | 11. 원장실 |
| 03. 로비 | 12. 장애인실 |
| 04. 식당 | 13. 성체조배실 |
| 05. 다목적실 | 14. 휴게실 |
| 06. 세미나실 | 15. 전기실 |
| 07. 2인실 | 16. 기계실 |
| 08. 4인실 | 17. 저수조 |
| 09. 6인실 | 18. 창고 |



설계경기 Competition

영남대학교교60주년기념관

Yeungnam University 60th Memorial Hall

당선작/ 종합건축사사무소이공(이관직)

대지위치 경북경산시대동214-1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내학생주차장부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학교

대지면적 23,70㎡

건축면적 5,535.4㎡

연면적 16,767.9㎡

건폐율 23.36%

용적률 56.82%

주용도 문화및집회시설

규모 지하2층, 지상6층

발주처 영남대학교

설계담당 한철희, 한웅식, 허일민, 유은미,

형진, 김정래, 권재영, 김경아,

이삼화, 조현주, 허유미, 김신철

이프로젝트의핵심적문제는캠퍼스내에서 건축의 기능적 해결과 대학 창학 60주년 기념관이라는 상징성의 건축화였다.

기능적 문제에 대한 분석은 캠퍼스내의 교통과 접근성의 도시적 기능의 문제와 공연장과 회의실, 전시실, 피트니스실 등복합용도의 해결의두가지가핵심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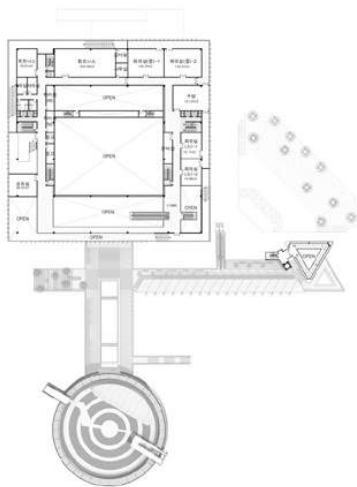
이러한두가지의핵심문제에대한해결로서두개로나누어져있었던대지를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더불어서 기능에따른분리된 건물의구성으로계획하였다. 주된 건물은 1,800석의 대강당으로서 전시실과 휘트니스실이 포함되었다. 두번째건물은 프로그램상중강당으로 명시된 480석의 회의장으로서 중소 회의실을 포함한다. 다른 하나는 전시동으로계획하였다.

세개로 나누어진 기능별 건물의 삼분화는세개로구성된 조형적인개념과연결된다. 우리는 세가지의 형태가 자기 주장을통하여대립하고혹은조화되는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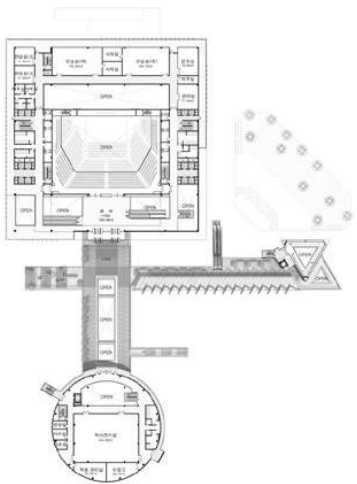
식이가능한가를 실험하였다. 우리는각자가 주체적이면서 조화적인 개념을 동양에서세계구성의핵심적인사상인천지인과 연결지었다. 대강당은 사각형의 평면형태로서육면체로형태를가지고, 중강당은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의 평면에서 시작하여 드럼의 형태로 건축화하였다. 전시장은 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삼각형의 평면으로 하여 수직적인조형요소로건축화하였다.

건물들은 형태는 전형적인 기하학적 도형이지만 경쾌하면서 진취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것이다. 지붕을 접근하는 경사계단이 전형적인 육면체의 형태에 변화와흥미를주고투명과불투명의재료들이 대비되면서 반복과 변화가 리듬감을부여한다. 천지인의개념은오래되고 고전적인 테마이지만 건축적 형상과 기능을 부여 받음으로써 영남대 캠퍼스에 역동적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징으로미래지향적인모습을드러낼것으로기대한다.





3층평면도



2층평면도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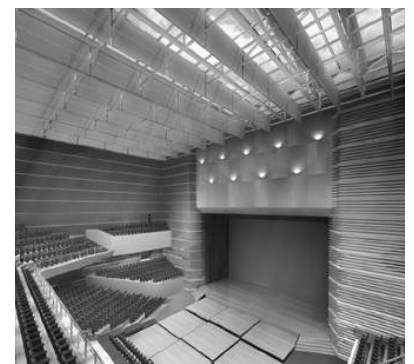
배치도



좌측면도



단면도



영남대학교 60주년기념관

The 60th Anniversary Memorial Hall of Yeungnam University

가작/ (주)필립건축(윤경수) +
(주)소오건축(오경근)

대지위치 경상북도경산시대동214-번지
영남대학교경산캠퍼스내학생주차장부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23,700㎡

연면적 16,715.05㎡

건축면적 5,157.6㎡

주용도 교육연구및복지시설

건폐율 21.76%

용적률 70.53%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발주처 영남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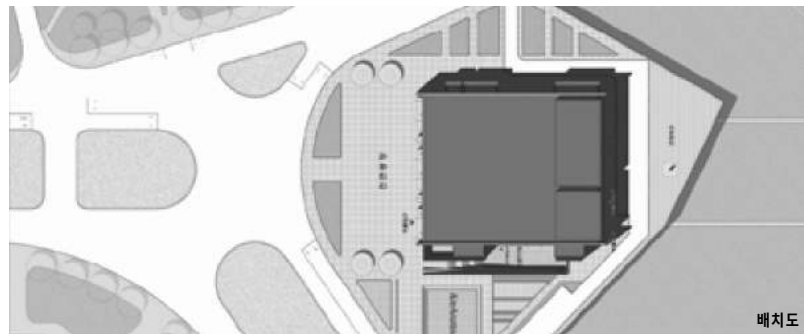
이번설계안의장소는대학캠퍼스전체의중심공간을마무리하는곳으로,미완성의형태로남아있는캠퍼스중앙공간의한쪽끝단에위치한다.설계부지는그맞은편의대학본관건물과함께이중앙공간의중심축을이루며,이러한축좌우에놓여있는일련의건물들과더불어중앙공간을형성하고있다.그러므로설계부지의빈공간을제외한다면이중앙공간은대형의캠퍼스중심광장으로서이미그형태적윤곽을어느정도드러내고있다고말할수있다.그리고설계부지뒤편에,좌우의도로를따라도시가전개되고,도시와의형태적,공간적관계가시작된다.본설계안의주제는대강당,중강당,전시실,회의실등다양한프로그램들의공간을

필요로하는기념관이다.따라서기념물이라는단일주제와그기념물에서전개되는다양한프로그램들간의형태적규정은이설계안을결정짓는주요문제가된다.다양한프로그램들의공간은기념관으로서의명확한기능과형태속에서존재하여야한다.기념관의일반적인기능과형태는그것이수행해야하는다양한프로그램들에의해분절되고종속되는것이아니라그프로그램들을보다명확한기능과형태로질서화하고통합하여야한다.기념관과그형태는다양한프로그램들의단순한집합이나표상이아니다.도리어다양한프로그램들은구체적인기념관의기능이나형태를통해전개되어야한다.건축은기능해야한다.그러나그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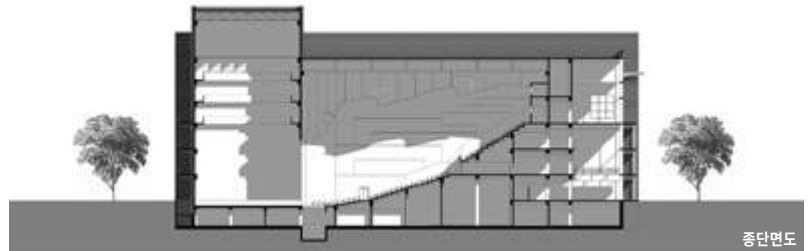


한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의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내용이나 프로그램들을 이끄는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기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상의 기능은 형태에 의해 수행된다. 이것이 진정 기능과 형태가 갖는 관계이다. 기념관의 형태는 기념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넘어서 존재함으로써 기념관의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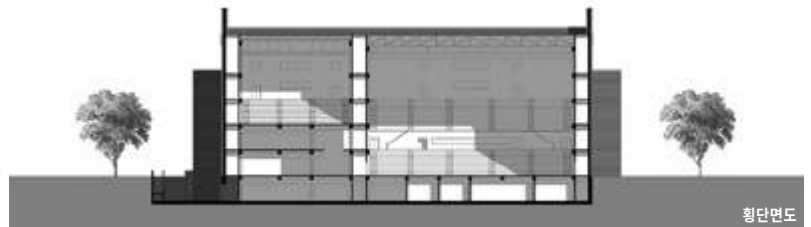
공간체계와 건설체계는 그 명확한 건축적 테마에 따라 전개되며, 이것들의 관계는 앞서 언급한 장소연구 및 주제연구의 복합적, 종합적, 구체적 결과물이다. 건축자체의 세계와 관계가 깊은 이 용어들(장소연구, 주제연구, 건축적 테마, 공간체계, 건설체계)은 본 설계안의 형태를, 건축을 언급하는 데 중심이 되는 필수적인 것들이며, 진실의 문제를 사실의 문제로 드러내는 구체적인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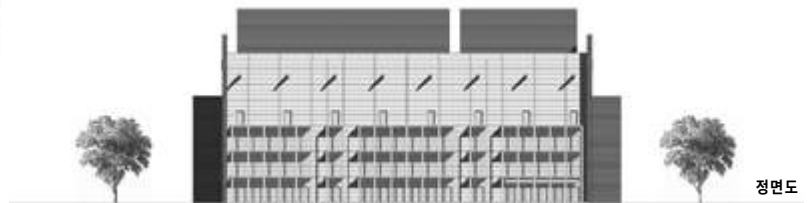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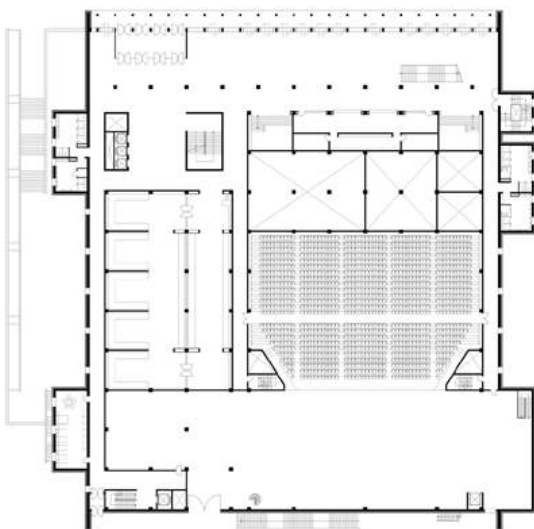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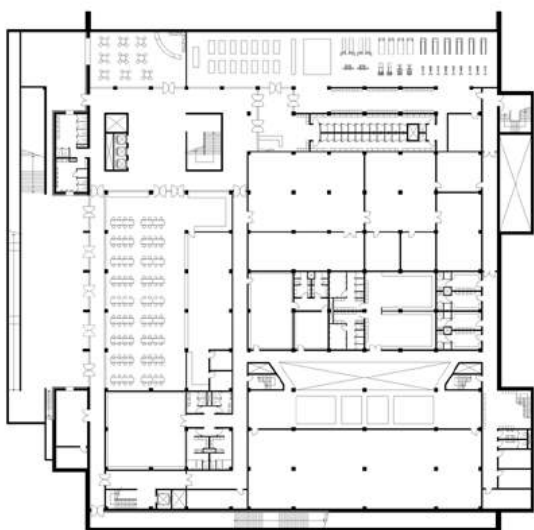
횡단면도



정면도



1층평면도



지하1층평면도



설계경기 Competition

창동어린이도서관

Chang-Dong Children's Library

당선작/ (주)다중종합건축사사무소(유병현)

대지위치 서울특별시도봉구창4동 808-호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869.7㎡

건축면적 459.0㎡

연 면 적 1,396.8㎡

건 폐 율 52.78%

용 적 륜 128.57%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발 주 처 서울특별시도봉구청

설계담당 신희철, 서우진, 조인기, 박진우

자연환경

동부는 한강상류 지류인 중랑천이 서남 부엔우이천이흐르고있다.

북부는 도봉구의 상징인 도봉산이 있는데, 최고봉인 자운봉(739.5m)를 비롯하여 만장봉(718m), 선인봉(708m), 등이 깎아지른듯 솟아있다.

사업목적

교육·문화공간으로 어린이 시기에 생동감이넘치는도서관으로조성한다.

예술성 및 창의성이 조화된, 접근이 쉽고 안전하고편안하게책을가까이할수 있는공간으로설계하고자했다.

단순히책을읽는 공간만이아닌사색을 즐기며휴식과스스로학습할수있는공간을창조하고자했다.

배치계획

기존대지형상을 활용하고 생활가로에 대응하는 배치에 의해 보행가로와 생태

가로형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행동선의 교차점에 입구광장을 형성하여 거주민의이용성을극대화한다.

입구광장은 고밀도 주거단지를 고려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진입동선을 유도하는 완충공간으로 웰빙도봉의 지역적,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적 상징성을 부여한다.

향후도서관과주거단지 및유치원의연계를 통한 거주민의 편의성 도모하고, 대지의 동쪽에 위치한 25m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전달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조경식재와 소음완충공간을 배치한 후 열람실은 소음원으로부터 최대한 이격시켰다. 또한서쪽에위치한유치원의 소음은 주차공간및 조경식재를 두어 소음을완충시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접근성을 고려한출입구를계획했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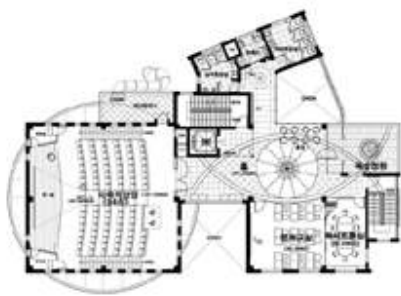
학습공간과 유희 및 휴식공간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곳곳에 매개공간을 두어 공간의 연계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어린이 및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입구안전에 대한 완충공간을 확보한다.

옥외문화공간의 극대화(독서데크, 옥상광장, 독서정원, 옥상정원)하고,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배려하여 시설간의 합리적으로 집약,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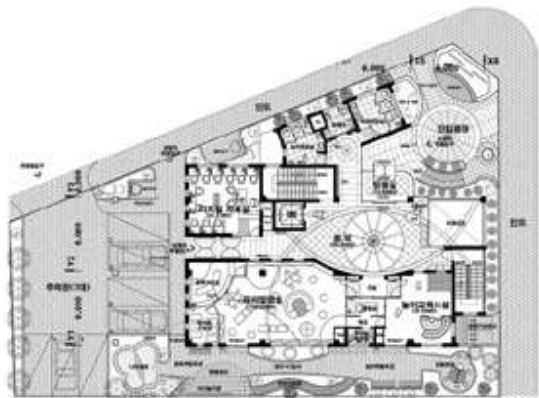
지붕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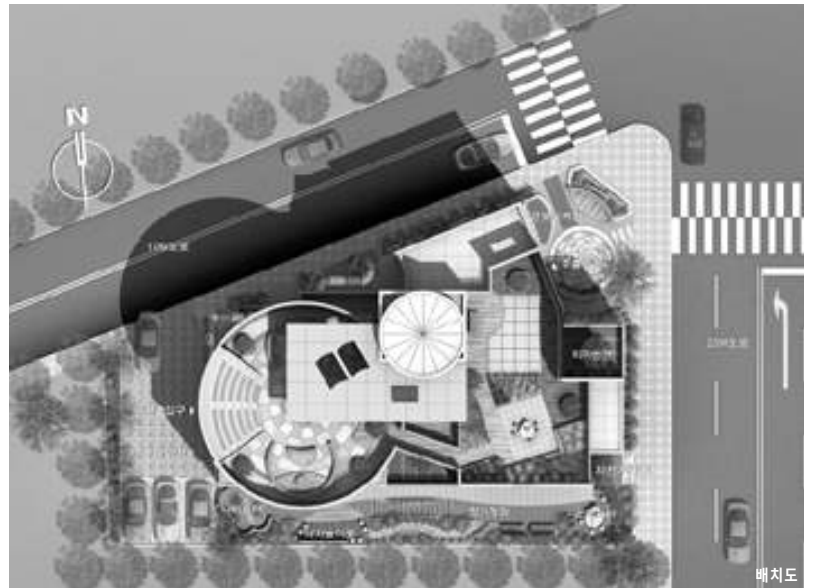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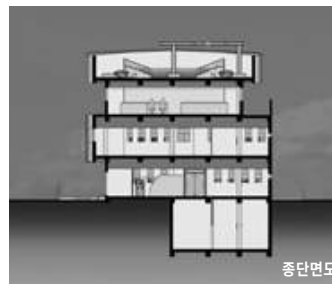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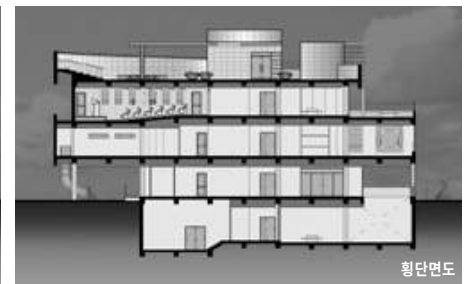
1층평면도



배치도



중단면도



횡단면도



동측면도



북측면도



이 관 직
비온드스페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jik, KIRA

상하이에서 본 것, 느낀 것

-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 해외건축탐방 I

Shanghai ; What I have seen and felt

본 기행문은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건축탐방에 함께 참가한 심사위원단을 대표하여 필자가 건축기행문을 게재한 것이다.

내게있어여행은그자체가큰설레임이다.

다른모습과다른시간을축적시켜온도시들, 그안에담겨있는새로운장소들, 이색적이고독특한건물들, 낯선사람들...이모든 것들이내게는커다란기쁨이고설레임이다. 이런점에서여행은나에게책읽는즐거움과크게다르지않다. 나는책속에서도, 또여행에서도언제나변화무쌍한사건을겪고, 새로운인물을만나며, 미지의장소를경험한다.

언제나그렇듯여행은기대의크기만큼긴장과약간의두려움으로부터시작한다. 자신의신분을증명하기위해여권을가까운곳에두고, 입국목적과체류기간에대한간단한질문에나름대로혀를굴러가며영어로답변을하고입국심사를준비한다. 다행히이번여행은대한건축사협회의공식적인행사로서현지가이드가있는경우라이국에서의언어에관한불안은덜어놓고다닐수있었다.

상하이에대한여행자들의의견은크게두가지로나뉜다. 첫째는즐비하고층건물과밤의화려함에대한감탄과찬사이며, 다른 하나는마치세트장과같이보여주기에가까운노력, 그리고그이면에개발의부조화와모순에대한비판이다. 상하이는나의눈에무엇으로비춰질까...

예상과달리상하이의첫모습은높은습도와낮게드러온회색구름, 그리고간간히뿌려지는빗발속에서시작되었다. 카메라삼각대까지준비해온일행중에몇몇은실망의눈빛이역력했다.

탐방단이가게될첫 번째방문지는상하이임시정부청사건물이 다. 구시가지 지역에위치한 전통적인상하이의 가로건물로다행히 아직남아 있기는하지만 재개발지역에포함되어 있어앞으로 어떻게될지는 모른다는것이 가이드의설명이다. 소박하지만복원의 노력을통해보존되어있는임시정부의흔적들은우리에게우울함과속연함을동시에느끼게해주었다.

도시를본다는것과, 민족의역사적고통의흔적을본다는것은과연 어떤 심리적, 문화적 관련성을 갖는 것일까? 상하이 현대건축의 눈에띄는발전과우리독립의역사, 또지금의우리의건축과국가적진로는 어떤 위상 관계인지... 임시정부 청사의 방문으로 시작된 상하이여행은꽤나복잡한느낌을갖고여행을시작하게하였다.

다음으로방문한상하이건설홍보관은그규모와미래적비전, 홍보 전략에있어서 우리 일행에게 적지않은충격을 주었다. 특히2개층을오픈 하여만든상하이시전체의 모형은차라리감동스럽기까지했다. 관광, 도시개발, 건축, 국가적규모의홍보전략이어울어진 대작전이었다.

그들의 조형적 거침음, 그러나 거침없는 자기 표현의 조형의지가 고층건물들에 집중적으로드러나 있다. 그에비해 우리서울의 도시적조형은오히려소박하고절제된점잖음이란생각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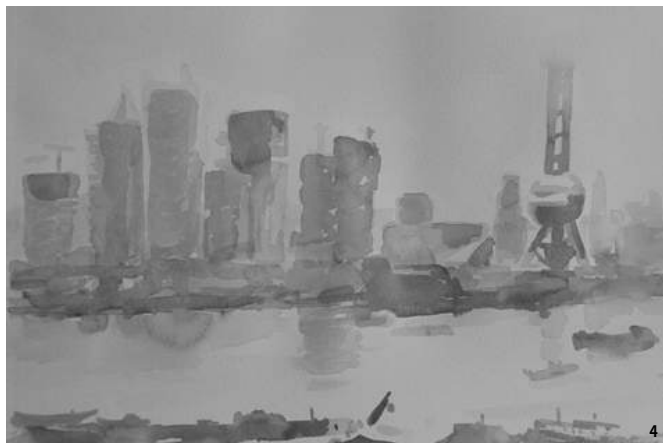
예전에상가풍을여행했을때열대지방의건물이가지고있는형태적인역동성과는또다른느낌이다. 과도한형태적조급증이느껴진다.

상하이에서의첫저녁식사는허기를참으며많은일정을마친후에 중국남방족의하나라는 태가죽 식당에서갖게되었다. 한국여행사가 지정한식당이라서그런지 우리의입맛에 맞는충분한양의 쌀밥이나왔다. 열대풍의중국무용이결어들어진맛있는저녁이었다.

아침일찍 공항으로 나오느라 대부분 아침을 거르고, 샌드위치 기내식으로요기를한후과도한첫날스케줄을보낸터라, 피곤함과허기에모두들허겁지겁이국의음식을먹는다.

저녁식사 후, 구 시가지의 야경을 보러 나선다. 상하이의 야경은 서양문화의유입흔적을, 이제는도시관광으로만족스럽게소화해낸 가로조명과현대식LED 광고조명의화려한조화를보여준다. 과천 서울대공원의코끼리열차와비슷한관광열차와경찰이타고다니는 전기자동차가인상적이다. 환경에대한배려인지, 단순한관광상품인지는모르겠지만...

- 1_ 상하이공항내부- tension구조의반복되는 pos카천정의분위기를만든다.
- 2_ 임시정부청사의입구풍경, 재개발예정지역으로앞으로의운명을모른다.
- 3_ 소주에서작은운하에밀집되어있는건물들을그린다.
- 4_ 호텔에서새벽장밖의풍경을수채화로그린다. 비안개속에무동정의등방명주탑이보인다.





5. 동방명주TV 탑, 비안개로 상부가가려져있다.
6. 소주출정원, 작은휴게정자인데 네개의 원형오피스를 통하여 4계절의 진풍경을 볼 수 있다.

속칭 ‘썩통’이라 불리는 이미테이션 상품으로 유명(?)한 상하이답게 ‘썩통’ 상품에 대한 호객꾼의 호객행위가 거리의 보행과 관광을 방해할 정도였다. 시계, 가방, 의류, 만년필 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이 밤에 모순으로 만나고 있다.

상하이의 화려한 건축조명과 네온사인 광고들은 10시 30분에 소등된다. 지금도 시골은 일주일에 삼일을 단전한다고 한다. 상하이의 야경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시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일 것이다.

이러한 소모적 방식에 의한 상품화는 어떤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상업적 화려함의 홍콩 야경과 건축적 만천루의 시카고 야경과 전혀 다른 도시 현상이다. 마치 어떤 부조화 때문에 우울한, 그리고 얼룩진 환상을 꿈꾸는 화려함일까...

첫날 일정은 발맞사지의 코스를 거쳐 소주의 호텔에서 끝났다. 생전 처음으로 발을 남에게 맡긴다는 낯설음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옛날 공리주연의 ‘홍등’이란 제목으로 기억되는 영화처럼 로틱한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다.



출정원, 전형적인 중국식 개인정원, 지붕의 처마 끝선이 인상적이다.

호텔에서는 건축과 진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밤늦게까지 있었다. 이번 여행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한 2006 한국 건축 문화 대상의 계획 작품 부문 입상자들에 대한 부상으로 시행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어서 대부분 참가자들이 젊은 학생들이었다.

두번째 날은 소주시의 전원적인 아름다움이 주제였다. 출정원이라는 2만여 평의 규모의 개인정원에서는 중국식 규모와 인위성을 열볼 수 있었다. 십여 년 전에 북경에서 보았던 이화원의 황가식 정원과는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다양함과 섬세함 만큼은 굉장한 수준이다. 일행 중 한 학생이 우리의 소재원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소재원의 아름다움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물론 나 역시 소재원의 자연스러움과 빼어난 배치 방식은 가히 최고의 수준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원이라는 구체적인 인간 정서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원의 자연물 - 나무, 물, 언덕 - 과 건축 - 정자, 주거, 석축, 바닥, 다리, 지붕, 회랑 등 - 을 장악하고 다루는 솜씨는 보통의 차원을 넘는 빼어난 것이다. 낙향한 관리로서 황제 모르게 황제를 의미하는 여러 상징을 개념으로 조원했다는 일화가 재미있다.



외탄거리에서 본 푸둥의 야경, 동방명주탑이 보인다.



7_ 상하이의전시내가모형으로만들어져있다. 푸동지역이보인다.
8_ 외탄거리, 개화초기에지어진근대식건물, 야경이아름답다.
9_ 상하이의상업적인거리야경, 화려함이극을이룬다.
10_ 진마오빌딩, 엄청난높이의건물, 비만개속에상부가가려져있다.

운하와 물의 도시의 서정을 보려면 주황을 가야 한다지만 우리의 짧은 일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주도 경향 대운하의 경유지로 서나름대로많은소운하가얹혀있고운하지역의마을의풍경을최근 비교적유사하게만들어놓은곳을돌아보는정도로만족해야했다.

소주에서 상하이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버스는 엄청난 교통 혼잡과 약간의 운전기사의 실수로 오후 시간의 대부분을 놓치고 말았다. 덕분에엄청난규모의고가도로를돌면서한낮의상하이를차안에서감상했다. 밤과는달리 거칠고남루한 모습의건물도많았지만 상하이의엄청난경제규모를건물들을통해서볼수있었다. 가이드의 말로는상하이지역 전체에 40층짜리건물이 1,200개가 있고 중심지역에도 120개나된다고한다.

저녁식사 후에 상하이에서 제일 높다는 진마오 빌딩을 갔다. 날이 흐렸지만혹시나하는마음으로전망대층을올라갔는데, 창밖은 그 야말로백색의종이를붙여놓은듯하양기만하였다. 약간속은듯한 느낌마저들었지만어쩔수없었다. 덕분에크리스탈로만들어진작은 건물모형들과관광 상품을소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사[山寺]를방문했을때접하게되는관광상품들과비교되었다. 건물은미국의설계를반영하듯스테인레스스틸의디테일이눈길을사로잡는다.

두번째날이자마지막밤의일정은개화기에경제, 정치의중심이 었다는외탄지역을방문하는것이였다. 가로변은근대초기의클래식한몰딩과 조명이어우러지는 환상적인풍경이 펼쳐져있고, 황포강건너의 푸동지역은고층건물들이조명과 함께마치미래도시를

보는듯하였다. 밤은빛이있어서아름답다고했던가...그빛을이토록화려하게, 또아름답게다룰수있는상하이의능력에감탄한다.

마지막날은 오전일정만있었고동방명주탑을가기로했다. 노출콘크리트의거칠지만힘있는구조가가장먼저눈에들어온다. 형태 자체는속된말로약간엽기적인모양을하고있지만, 그안에담겨있는 구조적인 해결과 기능적인 완성도, 랜드마크적인 강력함은 우리의남산타워나다른도시의전망탑들처럼점잖은척절제된모양으로는도저히이룰수없는유혹이있다.

비행기에서의두시간은일종의문화적충격으로인해생각이복잡했다. 건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의 도시에서 보여지는 그 정적인 느낌과 상해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서의산물인것인지..., 유럽도시들의아름다움은진정격조높은것이고, 상하이나서울의근대적인모습은그저모방에지나지않는것인지..., 세계어느도시라도이미그도시는그들스스로의기능과생활의장소일것이다. 그렇다면서로다른도시의모습과이미지는그들 삶의 다른모습들을반영하는 것일까...어쩌면 그것은그도시의 역사, 성향, 그리고미래에대한 도시자체의 비전과방향의차이에 기인하는것일지도모른다.

도시를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낯선도시 상해를 떠난비행기는나의도시, 그리고우리의도시서울에점점가까워져간다. ■

안 영 창
고려대학교건축공학과
by An Young - chang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중국, 대국을 느끼고 돌아오다.

-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 해외건축탐방 II

China ; nation with Scale beyond imagination

본 기행문은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건축탐방에 참가한 수상자가 탐방단을 대표하여 게재한 것이다.

새벽일찍출발한타인지버스에서잠깐이라생각했던시간동안에, 어느새인천국제공항에다다랐다. 출발할땐깜깜한새벽이었지만, 어느새아침햇살이매우상쾌한그곳엔푸른하늘을이고있는인천국제공항이있었다. 몇일전부터, 아니면몇달전부터기대하던순간이었다.

첫번째해외여행이다. 여행을 좋아하던 나로서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을 누비며 다녔건만, 여지껏 비행기조차 타보지 않았으니 말이다. 항상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존재하는 그것, 그것은 바로 지역성이었다. 사람의 지역성일 수도 있었고, 문화의 지역성일 수도 있었고,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건축의 지역성일 수도 있었다. 항상 여행을 하며 지역성을 바라본다. 내가 살고 있는 곳과 여기는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행은 사유의 시작이자 끝이 날 수 없는 물음의 출발점이다. 곧 알게 될 그 물음이 무엇인지 예상하며 차에 오르는 것은 내 삶의 희열을 맛보는 순간이다.

그 순간을 맛보며 오르는 비행기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괜찮다. 내가 하늘 위에 있을 때, 구름을 스치며 하늘에도 착을 하면 화창한 파란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타고 있는 이 고철덩어리는 이정표가 없는 하늘에서 어딘가를 향해 있다는 것이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처럼 비행기는 상해 푸둥 공항을 향해 꾸준히 날아가고 있다.

날씨가 안 좋다. 상해 푸둥 공항에서 처음 우리를 맞은 것은 흐린 날씨이다. 중국은 날씨가 많이 안 좋다는 것을 예상은 했었지만, 흐린 하늘은 여행의 시작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 여행 내내 우리는 흐린 하늘이라도 기대했다는

것을... 비가오며우산을쓰며사진을찍고, 관광을하고, 걸어서다니는일은좀처럼쉽게적응되지않는일이었기때문이다.

공항에서가이드를만나고차에타는것은쉽게이루어졌다. 버스를타면이제곧중국문화, 중국인, 중국음식, 중국건축과의만남이다. 처음의해외여행은이렇듯모든사건들, 모든상황들을의미있게만들어버리는무언가가있다. 하지만그런기대, 그런의미는절대로소홀히해서는안된다고생각이든다. 다른문화를접하게될때, 그것은절대성과상대성, 그리고 지역성을토대로 오랜시간에걸쳐서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 나의 잣대로문화를 보지않으려는노력은필요한것이기때문이다. 이런많은생각을머릿속에품으며푸동공항을나섰다.

처음방문한곳은일제시대대국권회복을위해타국에서노력을했던선조들이세운상해 임시정부청사이다. 한국인으로상해에여행을온다면아마꼭한번씩은방문하는곳이다. 임시정부청사로가는그리키지않은규모의작은골목길을돌아들어가는길은, 한국에서는보지못했던 낮 설은 공간이다. 작은 규모의 집들이 모여 있는골목, 하지만골목의폭에비해유난히높아보였던3층인지4층짜리건물, 그 건물의입면은 낡은부채들로그득 차정리가 되지않은듯한모습들, 그리고빨래를널어놓는것처럼생긴철봉으로만든 ‘ㄷ’자형 구조물, 이런 작은 요소 모두가 내게는 새로운 모습이다. 나는 낡고허름한3층건물사이에서, 조그만하늘이보이는그곳을보며, 여전히 1930년의 모습인 공간을 느꼈다. 상해의 느낌은 항상 그렇다. 빗방울이 묻어있던버스의 차창에앉아서 바라보는도시는 모순에가득차있는것같은, 어딘가에맞출수없는것만같은, 비조화의미학이자리하고있는것같다. 모든아파트는 40층이상으로지어지는지, 초고층 아파트는깨알같은 모양의작은 유닛의집합으로 이루어진파사드를가지고있었고, 꽤규모있어보이는공사임에도불구하고 철거작업과 토목공사를 안전 펜스마저 없이 시공을 하고 있는 모습도, 그리고 무질서한 교통 문화와 사람들의 낮은 시민의식까지모두어색해보이기만하는도시의풍경이었다. 이런 공간에상해 임시정부청사가있었다. 그것의한국인으로서의역사적, 그리고정신적의의로매우상징적인공간이라볼수있다. 하지만내게더큰의미로 다가오는 건, 이런 조화롭지 않은 상해의 도시적 경관 속에서, 한국이란이름을내걸고, 새로운 도시적컨텍스트를 만들어가고 있

는그모습이느렘했다. 도시속에서임시정부는매우작은부분일뿐이었지만, 내가느낀 임시정부는더 이상 작지않았다. 아니당차 보였다.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사실 중국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다. 너무가까워서 모든것을 알고있는것 같으면서도, 전혀 알고있지않은, 어쩌면알고싶지도않은나라였을지도모른다. 한국의역사속에서쉬지않고간섭하고, 쳐들어오고, 사신보내는관계였다는것에 의한 한국인들 마음속에 내제되어 있는 작은 열등의식 때문인가? 어쨌든 그렇게 가까우면서 모르는 중국에 왔다. 감동을 하던지욕을해대던지중국에대해서느끼고갈생각으로, 마음에준비를하고온것이사실이다.

임시정부를보고나서, 우리는상해의발전과정을전시해놓는도시 건설회관을 갔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번의 충격을받게 되는데, 그것은 크게의미가있을까 라는상해도시의축소모형을상상할수없을정도로크게만들어전시했기때문이었다. 물론도시건설회관은전시관이기때문에, 층별로테마를가지고있고, 각각의공간전시방법과 기법도다르게 표현을 해놓았지만, 기억에남는 것, 또 가장 인상적인 것은 50m×50m 정도의 공간에 상해를 표현한 모형이라고볼수있다.

이전시실하나만보다도중국에대한느낌은매우남다르다고생각된다. 그것은무엇에대한열정인지, 혹은무엇에대한집착인지모를것이그들에게는존재한다는것이다. 전시실을나와서도시를바라보면상해를빼곡이채워놓은고층빌딩들이스카이라인을형성한다. 높고낮은건물들의조화, 각각의빌딩들의휘황찬란한네온사인은도시를더욱활기있게, 그리고역동적으로보이기에충분하다.

하지만나는왜그들도도시에서보여지는외관에집중을하는지, 또그것은다른형태, 다른층고, 그리고네온사인으로다양함이라는것을강제하는지, 중국인이아니기에알수없을것만같다. 다양성이라는것은서로간의존재를인정하면서관계를맺고, 존재를하는것이기에, 자연스러운발전은법과 사회와대중의 공론에의한 규칙에의해서생성이되는것이아니다. 하지만하루가다르게고층빌딩이생기고, 또그것을장려하고, 그것의최상층은꼭아름다운장식을해야 하는 그들만의 쇼는 그들이 목표로 하는 세계적으로 확대되기는어렵다고본다.



1_ 입구에서본상해임시정부청사 2_ 1930년대모습을유지하고있는상해임시정부청사골목 3_ 상하이도시계획박물관에서모형촬영에열중하고있는일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도로와 초고층 빌딩의 도시상해는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필히 도시계획적 측면, 미래 도시에 대한 새로운 계획안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것이 목표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차치한다면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것은 사실이다. 도시적 목적을 향해 도시 자체가 함께 꿈틀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일 것이다. 현재로서 상해의 20년은 미완성일 뿐이지만, 앞으로의 20년, 아니 100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열정,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의 집착과 같은 그들의 노력을 어떤 생각으로 도무시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첫날 일정을 끝내고 다음날은 소주로의 여행이다. 소주는 미래 도시상해와는 달리 오래된 사찰과 운하의 도시이다. 수나라 때의 운하는 비오는 날 버스를 타고 가면서 느끼기에도 매력적인 것이었다. 도시 건설 회관에서 거대한 모형, 그리고 상해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도시계획, 그리고 중국 하면 기억이나는 만리장성, 서안의 병마용과 함께 1000년 전에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긴 운하를 인력으로 구축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중국이란 나라를 운하를 보고, 운하를 느끼면서 조선에서 중국을 사대했던 것과 같이 대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그것은 조선 민족,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시도해 보지 않았던, 그리고 항상 그 누구보다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민족, 그것이 중국이란 나라였고, 중국의 지역성이라 생각할 수 있다.

소주에서의 첫 번째 관광 코스는 졸정원이다. 한국 건축을 사랑하고, 한국의 전통 건축을 공부하는 나로서는 중국의 건축을 보는 것은 숨이 멎을 듯 한紧张감과 기대감에서 사로잡혀 있는 일이라 말할 수 없었다. 문화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문화사는 결코 따로 읽혀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졸정원에 들어왔다. 한국에서 소쇄원을 보며 감동적이었던 적이

있었다. 계곡과 제월당과 광풍각, 두 채의 건물의 위치와 사람의 동선, 그리고 담장이기가 막히게도 유기적으로, 그리고 매력적으로 조합되어 있는 것에 감명받았었다. 하지만 졸정원은 그런 소쇄원이 10개, 아니 100개가 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물과 건축은 여기에서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중국인들이 건축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공부해야 할 수 있겠지만, 처음 보고 느낀 것은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산이 필요하면 산을 만들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만들며,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이 필요하면 지으면 되는 것이다. 그들은 지붕을 가지고 있는 복도와 건축, 그리고 담장을 그 넓은 공간을 하늘에서 바라보듯이, 자유자재로 구축했다. 그리고 부채꼴 형태의 건물과 동그란 건물, 네모난 건물과 같이 어떤 것도 자신있게 구축하고, 건설하였다.

이것은 한옥을 공부하는 나에게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다. 한옥의 처마 곡선과 온돌, 그리고 대청마루와 같이 세계적으로 특징 있는 부분이 있어 자랑스러웠던 것은 역시 중국과의 문화 교류가 아닌 우리 민족의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는 이의를 달 수가 없다. 하지만 한옥을 보면서 선향재의 벽돌로 쌓은 측면의 벽이라든지, 혹은 낙선재 뒤쪽의 동그란 문 등 한국 건축의 형태와 분위기가 다른 건축을 바라볼 때는 중국풍이라는 얘기로 일축해 버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졸정원을 보고 나서는 중국풍이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무엇이든지 시도해 보고, 건축해 보고, 불가능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들의 노력을 500년이나 지났지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졸정원을 보고 나서 한산사로 향했다. 졸정원에서 보았던 다양한 배치 기법과 그들의 구축 방법, 또는 그들의 건축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니 중국에 오길 한층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한국에서 한



4. 상해임시정부의 모퉁이를 둘러싼 한창 재개발 중이었다.
5. 졸정원의 전각.
6. 졸정원의 풍경.
7. 숙소장으로 보이는 야경. 동방명주탑이 중앙에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다.



8_ 한산사의 운하1
9_ 한산사의 운하2
10_ 동방명주 탑입구계단에서의
단체 사진
11_ 8만인의체육관



옥만배우며 우물안개구리신세를벗어나게 된처음의발걸음이었기에더욱그려졌다. 다음은소주의가장유명한운하를보러한산사에가는 길이란다. 1000년 전에인력으로 지은운하. 1000km나 되는구간을모두사람의힘으로건설을했다니, 운하를보면서대국으로서의중국과, 몇천년동안 가까이국경을 마주하고있으면서 중국에한 번도예속되지않았던조선훈족의위대함 역시동시에느끼곤했다. 운하는 생각보다 크진 않았다.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평소에보지 못한광경이어서 그랬을것이다. 우리의하천이나 강은 대부분의간선도로가좌, 우로뚝려있게마련이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아니면동부간선도로, 뿐만아니라모든크고작은강가엔크거나작거나 하는도로가 하나정도는위치하고 있다. 이것이강변에서 조용히 책을읽거나 휴식을취하기 힘든것 중에하나인 것같다. 도로를건너야하고, 차들의소음을들어야한다니말이다. 하지만운하는 건물이 바로 세워져 있고, 건물에서 배를 타는 선착장이 존재하고.... 강과함께살아가는것이좋은지나쁜지는모르겠지만, 그런점을차치하더라도, 새로운공간 분위기에 나는압도당했다. 다리에서 보이는풍경은너무도매력적이었기때문이다.

소주의운하의매력에빠지고나서우리는다시상해로향했다. 상해의 8만인을 위한체육관을관람을 해야 한다는것이다. 하지만 체육관에서는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다. 체육관이 크다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소주에서의 한산사 관람을 포기하면서까지 봐야 했던 것이 이거라는 것이 다리에 힘이 빠지게 했고, 오래 동안의 버스로의이동이나를지치게했다. 나를자극할거리가있다면다시

살아날텐데하는생각으로어느새해는지고어두워졌다. 앞으로남은일정은진마오빌딩과다음동방명주.

상해의야경을보고싶었지만날씨는우리에게호락호락하지않았다. 비와 구름이 가득했던 3일동안의 여정은 진마오 빌딩의 88층에서도 동방명주의 50층에서도 무용지물이었다. 하지만 상해의 야경을한장이라도건질수있었던곳은다름아닌숙소에서외탄의전경이보였고, 처음이자마지막으로외탄의사진을찍을수있었다.

3일동안의짧은여정은많은생각을하게됐다. 문화라는것이무엇이며, 여행이라는것에서부터얻을수있는 것은무엇인가라는 생각을하게됐다. 문화의다양성과상대성을기반으로한나의생각이올바른지 모르겠다. 하지만 틀린 생각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생각일수는있겠다. 상해의초고층과소주의운하와줄정원. 내기억엔가장 기억에남는것이었고, 그에따라많은생각을하기도했다. 중국인들의 집착과같은 노력은내겐 입을다물 수없는 것이었고, 그들의 다듬어지지않은상해의도시는다시한번기대하게만드는요인이되었다.

세가지나생각하고돌아왔다는것은매우고무적인일이다. 첫번째라는 것에 의의를 두려고만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뜻깊은시간이었다. 여행이라는것은언제나남는장사라한다지만이번엔함께했던사람들과너무도많은걸남긴것같았다. 앞으로 건축을하면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느껴야 하겠다는생각을하게된좋은시간이었다. 그렇기에이런자리마련해준건축사협회에 감사의인사를드리며글을마치려한다. ■

오 창 은
절강대학여유관리과(浙江大學旅游管理系)
by Oh Chang-eun

중국, 비, 만남

-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 해외건축탐방 III

China, Rain and Encounter

본 기행문은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건축탐방(중국-상해, 소주)에 참가한 오수희 학생의 친언니가 마침 중국 현지에서 유학중이어서 탐방단의 안내인겸, 옵서버로 흔쾌히 참여하였고 아울러 탐방에 대한 건축기행문을 게재토록 하였다.

여행은하나의심미적인활동이다. 많을것을보고듣고음미하고즐기려는사람들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하나의수단인것이다. 여행을이러한개념으로경험해왔던나에게이번여행은눈, 코, 입, 귀를즐겁게하는신체적만족감보다는좋은사람들과의만남과교류에서얻어지는정신적인만족감이더컸기에여행을또다른측면에서이해하게되었다.

중국(中國). 내겐이미익숙해져버린곳이다. 3년이라는시간을보내면서이들의문화를조금씩이해해가고적응해가고있는나로서는특히상하이(上海), 수조우(蘇州)는그어떠한신선함으로도다가오진못했다. 또한건축을전공하지않는나에겐함께여행했던 이번대회에입상한여러수상자들과심사위원들모두가부담이었다. 그래서처음엔그저1년만에보는여동생에대한기대감만으로“안녕하세요”하는어색한인사말로여행을시작했다.

중국사람들은중화사상만큼이나자신들에대한자부심이대단하다. 건물들, 거리들어느것하나하나에도힘이들어가지않은것이 없다. 그 자부심은‘ 웅장함과 화려함 ’으로 나타난다. 이건 건물이나 거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몇 해 전 상하이를 소위 ‘ 양쯔강 유역의 용머리(長江流域의龍頭) ’ 태평양아시아 경제 금융 무역 중심지(太平洋亞洲經濟貿易中心) “ 동북아 허브 ’ 등이라 일컫던명칭들이이젠 들리지않는다.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세계적인도시로 성장하는것을 목표로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표는건물, 거리만큼이나크고화려하며커다란꿈에맞춰세계적인도시로서의면모를갖춰가고있다.

상해의역사는그리오래되지못했다. 200년이라는짧은역사는 19세기아편전쟁이끝난후서구열강에개항되면서크게번성하

였다. 그러나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1949년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해는 그 명성을 잃게 되나 개방 이후 이른바 상하이파(上海派) 중국 지도부에 의해 옛 서구 열강에 의한 상업 도시의 명성을 다시 찾았고 “옛 중국은 시안(西安)을, 지금의 중국은 베이징(北京)을, 미래의 중국은 상하이(上海)를” 이라는 말처럼 상하이는 중국인들의 이상이고, 자부심이 되었다. 또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하면서 계속되는 경제 발전은 오늘날 한 나라의 경제, 무역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과학, 산업, 기술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중국의 전체 세균 중 약 1/5 정도를 상하이에서 거두어 들인다고 하니 그 경제 규모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하이의 역사와 지금까지의 발전상을 한 곳에 모아둔 곳이 첫 날 우리가 간 ‘상하이 도시계획 박물관(上海市規劃展覽館)’이다.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이 건물은 상하이 시청, 상하이 대극장과 나란히 서 있으며 상하이 모든 건물들이 그렇듯 독특한 현대적인 외양을 가지고 있었다. 1, 2, 4층은 여느 박물관과 다름없이 상하이의 역사에 대한 서적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기도 했고 도시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것들을 패널과 모형들로 전시 되어 있었다. 그러나 3~4층 중앙을 뺀 나머지 채운 하얀 건물 모형들은 모두의 발을 멈춰 세웠다. 너무나 커서 카메라 렌즈에 담기지 않을 정도였다. 상하이 시청 전체의 모형이 제작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단 그 스케일에 압도되어 버렸고, 건축에 문외한 나조차도 그 노력과 수고 얼마나 무모하리만큼 많았는지 알 것 같았다. 또 중국 사람들이 모든 걸 크게 만든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이 정도 일줄을 몰랐다. 그 크기는 그들의 자부심과도 직



결된다. 상하이를 세계 경제 무역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조금은 무섭게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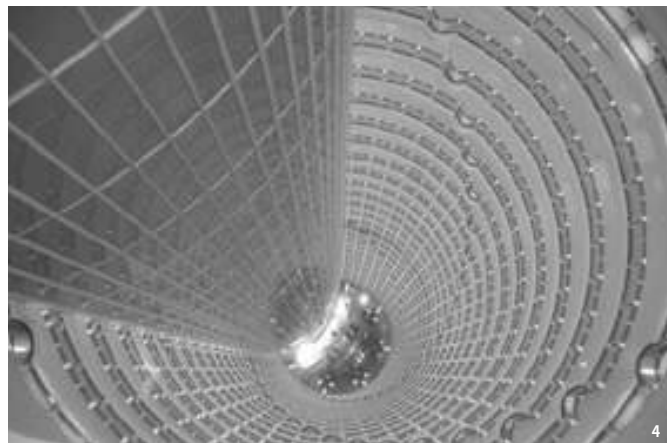
중국의 경제적 상징 도시가 상해라면, 상해의 상징은 둘째 날과 마지막 날 찾은 쩐마오(金茂) 빌딩과 동방명주(東方明珠) TV탑이다.

중국인들이 발(?)과 발음이 같은 숫자 8을 좋아한다. 다들 8과 관련짓는 것들이 많은데 중화 사상의 기개라 하는 쩐마오 빌딩 역시 예외는 아니다. 88층으로 높이 420.5m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빌딩이기도 한 이 빌딩은 1992년 건축을 시작하여 1999년에 완공식을 가졌으며 공무, 상무, 영빈관 등을 겸한 지능화 고급 건물로 1~53층은 사무실이, 54~87층은 하얏트 호텔이 들어서 있다고 한다.

88층은 중국에서 가장 크다는 관광 홀로 중국에서 가장 빠르다는 초당 9.1m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45초 동안 타고 중국에서 가장 높다는 88층 관광 홀에도 착했다. 상하이의 야경을 보려면 쩐마오 빌딩이 명당이라지만 비오는 날엔 그 이름이 무색해진다. 맑은 날의 쩐마오 빌딩은 만국 건축 박람회라 불리는 와이탄과 2층 건물보다 높은 고가도로, 남푸(南浦), 양푸대교(楊浦大橋)의 네온 사인이 보는 이의 눈을 만족시키지만, 이 날은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 그저 하얀 안개



1. 상하이 도시계획 박물관 3~4층 전체에 전시되어 있는 엄청난 규모의 상하이 도시 모형
2. 상하이 도시계획 박물관에서의 탐방단
3. 88층, 420m의 위용을 자랑하는 쩐마오 빌딩
4. 쩐마오 빌딩 88층 관광 홀에서 아찔하게 내려다 보이는 호텔 로비





동방명주탑. 비구름에 몸을 감춘 용처럼 그 위용을 다 내보이지 않았다.



운무에 가려 보이지 않는 동방명주탑의 상구체 내부

가 잠시나마 거쳐 보인 야경으로 그 씩씩함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보는 즐거움이 충족되지 않아서 인지 허기진 배는 더욱 고파왔다. 관광홀 안에 위치한 작은 커피숍에서 치즈케이크와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고픈 배를 달랬다. 금강산도 식후경! 역시 진마오 빌딩의 또 다른 볼거리로 태양이 아래에서 굴절하여 들어오는 곳이라는 ‘공중홀’이 눈에 들어왔다. 56층에서 꼭대기 층에 이르는 원형통 내부로 직경이 27m, 높이 142m로 홀 아래는 하얏트 호텔 로비로 사람도 테이블도 모두 깨알만하게 보이며 치난쟁이 마을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UFO처럼 생긴 동방명주는 상하이인들의 자랑거리이다. 캐나다 토론토 CN Tower(553.3m)와 모스크바 오스탄킨 TV탑(533.3m)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탑이며,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탑으로 높이 468m라고 한다. 와이탄과 마주보고 있는 동방명주는 주축기둥과 좌하구체, 상구체, 태공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구체는 직경이 약 50m로 98m의 관광통로와 각종 오락 시설이 있지만 시간상 다 보지는 못했다. 우리가 올라간 곳은 상구체라는 직경이 약 45m로 263m 높이에 있는 관광 전망대로 일반 관광객이 이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행의 시작과 함께 따라다니는 또말썽이었다. 전망대를 돌며 내려다보는 상하이의 빌딩숲과 황푸(黃浦)강의 전경을 막아버린 것이다. 진마오 빌딩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못했는데 마지막 가는 날까지 날씨는 심술이구나. 하얀 안개 때문에 밖을 보이지 않아 마치 큰 원형통 안에 있는 것 같아 거리감조차 없어 꽤 넓은 줄 알았다. 호기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씩 걸었더니 167번째 걸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또한 높이 267m 높이에 회전식당(한 시간에 한바퀴 회전)과 271m 높이에 가라오케 시설이 있으며, 350m에 타이콩추완(太空船)이라고 불리는 탑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가 있다고 엘리베이터 안의 안내원이 설명해주었다. 태공선 실내에는 각국 원수나 귀빈들을 대접할 수 있는 호화 회의장이라 일반인에게는 공개되

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이며 계급 차이를 확연히 느끼게 해주었다.

상하이에서 현재 중국을 보았다면 동양의 베니스라는 별칭을 가진 수조우에서는 옛 중국을 보았다. “하늘에 천당이 있으면 지상엔 수조우와 항조우(杭州)가 있다(天上天堂, 地下蘇杭)”라는 말이 있듯 수조우와 항조우는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미 관들은 인위적인 것이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항조우에는 서호(西湖)가, 수조우에는 조정원(拙政園)이 있다. 중국 명나라 때 한 거대 갑부가 만든 조정원은 그 규모로 따지면 정원이라기보다는 공원 더가깝다. 산이 없이 대부분 광활한 벌판의 특징 때문인지 중국의 정원은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서도 연못, 축산, 높은 담, 각기 다른 찻상 무늬 등으로 시선에 제한을 두었다. 전체 4ha 중 3/5가 연못이고 그 연못을 따라 전각과 누각들이 있다. 각 전각들은 배나 거북 등의 형상을 띠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 중 용의 형상을 띤 전각이 있는데 용은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징물이었다. 그래서 담은 용의 몸통으로 전각은 용의 머리로서 그 재귀로 꺾인다라는 용의 수염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황제가 다녀가도 워낙 커 그 형상이 용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었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하이 시내 전경

1. 줄정원의용형상의전각 중머리부분
2. 줄정원안의 다리. 강사가무서워건너지못하게 꺾어놓았다.
3. 줄정원 입구에서바라본 수로와주택들
4. 줄정원에서필자와 동생(오수희)



다고한다. 이는“ 졸자(拙者)가정치를한다 ”라는정원의이름에서도 알수있듯주인의정치적야망을내포하고있다. 그러나그는자신의 부와위험한야망을뽐내기위해 30여년간의공사를진행해줄정원을 지었지만정작3년밖에살지못하고생을마감했다. 그후도박꾼 인아들에 의해줄정원의 주인은바뀌게 된다. 줄정원의속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보슬보슬 내리는 늦가을 비와 함께 연못 옆으로 늘어선 버드나무는나를깊은생각속으로끌어들이고있었다.

처음엔하나의공통점으로모인그들이함께고된일정후에도 늦게까지초롱초롱한눈으로건축이라는주제로심사위원님들과함께 이야기하는모습에스스로이방인이라고생각했던나를관람자로 돌려놓았다. ‘열정 * 패기 라는단어로형용할수없는그런힘을보고 느꼈다. 사실 한국이라는올타리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제3자적 관점이되어점점무뎌진다. 타국이라는환경은‘ 우리 ’속에나를망각한 채 ‘그들’ 속의 나로 바뀌버리기 때문이다. 가끔은 한국에서 들어오는소식이다른나라이야기같기도하다. 무엇보다안타까운것

은경쟁에서한발물러나있으므로해서점차퇴보되어가는것이다. 이것은정보, 문화, 유행, 자아개발등모든것에해당된다. 한걸음씩 퇴보되다 보면조금씩 나른해지기마련이다. 그렇지만 함께했던 수 상자들을 통해 얼마나 내가 나른해져 있었는지를 느끼게 해주었고 다잡아주었다. 또그들의금지과자부심에대한여러선생님들의찬사와격려는스승애(愛)에꿇주렸던나로서는질투를느꼈다. 중국학생이아니라는이유로, 우리학교학생이아니라는이유로미운오리 새끼가 되어버린 나와 같은 유학생에게는 어쩔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이렇게멋진사람들과의만남을가질수있게해준우리 수희에게고맙고, 이런기회를잡을수있는한국인인것에자부심을 느낀다. 중국의웅장함만큼한국은커야할것이고, 우리네의단아함 만큼절제된아름다움을보여야할것이다. ■

류 재 경
비전건축사사무소(인천), 건축문화신문기자
by Ryu Jae-kyong, KIRA

2006인천건축문화제 평가와 과제

2006 Incheon Architectural Culture Festival: done and remains

새로운 지역건축 패러다임의 정착과 도시건축기능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2006인천건축문화제'가 지난 10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인천 지하철종합문화예술회관역전시장에서 열렸고 또한 최근에는 인천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고 동북아 허브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2009 인천 세계 도시 엑스포 발기인 대회 및 1차 이사회가 12월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있었다. 위 사실에서 건축인이자라면 기존 건축문화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 본다.

금년의 2006 건축문화제는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와 일간 인천신문이 공동주최하고 인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였다. 이번 축제는 '상생(symbiosis)'이라는 주제로 국제 도시에 걸맞은 도시 건축미관을 형성하고 이를 문화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해 온 건축행사이다. 10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각종 전시와 워크숍, 공모작품 전시가 11월 2일까지 예술회관역일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현장성을 살려 시민에게 다가서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예술회관역사를 행사장으로 선택한 이번 건축문화제는 초대 전시부문, 공모 전시부문, 이벤트 부문등으로 나뉘어진 전시와 이벤트가 일주일간 동시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특히 올해에는 잊혀가는 우리의 등대를 정보기능의 원초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등대고유의 감



2006 건축문화제 메인포스터

인한선과질감을살려한국등대의새로운방향성을제시한‘ 한국의 등대건축 60선-디지털드로잉전 ’을새롭게마련했다. 한층 성장된 행사를 통해 인천건축 문화운동의 불꽃이 타 오르기를 기원하며 냉정한평가를거쳐새롭게떠오른과제를위해노력하여야한다.

추진경과

이번 2006인천건축문화제는 지난 1999년 건축문화의 해에 ‘ 제1회 인천건축전 ’을 모태로 2005년까지 인천건축사회와 민·관·학이공동으로 진행해온인천시의 비중있는 문화행사이다. 특히 지역 유일의건축·설계관련행사로 2001년부터3년간 ‘ 인천건축도시주간 ’이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다 지난해부터 인천시의 지원과지역 건축사들의적극적인 참여로대규모행사로 새롭게자리 매김했다. 이를위해인천건축사회는매년민·관·학계로구성된 20여명의조직위원회(위원장임창희)를별도로구성하고건축문화제를 꾸준히 준비했다. 지난해 ‘ 도시재생 (Urban Regeneration)에 이 어울주제로확정된 ‘ 상생(相生) 은경제자유구역등대규모신도심의건설과동시에침체되어가는인천구도심의공존, 공생의방안에 대한필요성을인식하자는뜻에서결정되었다고한다. 이와같이 조직위에서는시민과함께하고도시건축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과미래의 인천모습을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많이 보여주고자 7개월간에 걸쳐 행사전반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으며 본 ‘ 행사가 또한단계발전되었다 ’는평가속에도모든행사를마무리했다.

행사프로그램구성

「2006인천건축문화제」행사 프로그램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4개 Section으로구성되어있다. 본전시부문은인천광역시건축상입상작전시, 인천건축사회회원 초대전으로, 초대 전시부문은대학교수와건축가작품전, 지역대학학생우수작품전, 외부초청특별전으로, 공모 전시부문은 국제학생건축 공모 입상작 전시, 도시건축사진 공모입상작전시, 건축백일장작품전으로, 이벤트부문은유명건축사초청심포지움, 조형물초대전, 개항장근대건축물등다양한행사계획으로좀더시민에게다가서는전시를실천했다.

특별전시를위해박인규(배재대) 교수가1년이넘는현장실사와해양유물로서등대의보존연구등을통해제작한 ‘ 옛팔미도등대 “ 부도등대 “ 호미곶등대 ’등 60점을엄선해전시해눈길을끌었다. 건축물계획을수립할수있는문화적기반조성을위한 ‘ 인천광역시건축상초대전 ’을비롯해대학교수와 건축사 초대전, 학생우수작품 초대전 등이 보행자들의 동선을 최대한 고려한흔적이 엿보인 전시였다. 동북아유명해외건축을소개하고인천도시재생의현주소를조명하는 자리로 지역 균등발전 전략의기본 구상을 확인하는외부초청 특별전과건축전문가의작품, 문제의식을통해인천의건축문화를되돌아보는유명건축사초청건축심포지엄등이핵심프로그램이다.

행사주제선정

자연과 사람은 항상 정지되지 않은 생명 활동으로 그들의 생활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변화를 통한 계속적인 창조활동으로 순간순간을 새롭게 하여 생(生)과 사(死)를 거듭시키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존재가 유지되고있다. 이는큰 것은작은 것이모여서 이룩되어 작은것을 보호육성하고, 작은것은 큰것에 뿌리내리고 성장하며부족한것은남는데서받아살고, 남는것은빈곳에줄으므로살아남는 상생(相生)의 원리에 기인한다. 건축 역시 항상 움직이면서 유지되고, 항상변하면서새롭게하며, 중단과종말없이지속되고있다. 건축이모여마을을형성하고마을이모여도시를형성함또한그와같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건축물과 도시가 과거를 안고 현재를 투영하며미래로나아갈수있는조화로운도시인천을그려보며, 상생의원리가 투영되는건축과 도시디자인의방향성제시를기대한다. 인천광역시에서는도시재생의네트워크를구축하여생활과경제와문화가 어울어진 내곳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또한서로의연계성을가지며공공이우선시작을하며점차적으로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인천광역시는경제자유구역등대규모신도심의건설과동시에침체되어 가는기존구도심 도시재생의필요성을 인식한것에본 조직위에서도큰뜻을동참하자는의지의행사주제어로선정되었다.

인천광역시건축상

인천광역시조례제73조에의거매년실시되는 「인천광역시건축상」은 인천지역내 소재한 건축물로서 공고일 이전 3년 이내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전이 개최되었다. 인천시청 주택건축과주관하에 각구청의 적극적인인승은 노력으로 예비 작품들을 48점 발굴하였으나 건축주들의 참여의식 결여로 인해공모 등록작품수가예년의범위를넘지 못했다. 최종8월11일 공고되어접수된 20점에대해 10월18일동정근(인하대) 교수를비롯한각계의저명한심사위원들이제출된작품설명서와판넬을기준으로1차심사하고현장답사를통하여본심사를실시하였다. 공모대상은아파트, 단독및다세대주택등주거용건축물부문, 학교청사등

<인천광역시건축상수상작현황>

구분	수상내역	수상자명단
인천광역시 2006년건축상	우수상	건축사서용주(해양경찰청)
		건축사김좌동, 이웅현(동양텔레콤사옥)
		건축사이동근(Beyond Habitation Urban)
	장려상	건축사안길원(인천대학교미래관)
		건축사윤장모(계산동근린생활)
		건축사김무언(기독교대한성경교회수정교회)
		건축사조재유(해모르아파트)
		건축사김영배(성지아파트)
		건축사임현봉(美陰慈集-미음자집)

공공건축물 부문, 리노베이션을 포함한 일반건축물 부문으로 모든 분야 응모작 수에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우수건축물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감점요인들이 많아 최우수작이 선정되지 못해 관계자들의 안타까움이 컸다는 후문이다. 꾸준한 지도계몽을 통해 빼어난 작품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인천건축사회회원전등초대전시

지역건축문화발전과 지역건축가의 창의적인 건축활동을 촉진하고자 계획작이나 사용승인된 건축물, Image Drawing, 모형, 패널 등을 전시에 초대요청한 결과 ‘서부발전소 * NPC 나노생산연구단지 * 화문석문화관 * 강화서문안골드빌 * 두리누리’ 등 30점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다. 대학교수와 건축사 초대전에는 인하대 교수를 비롯한 동국대, 성균관대, 국민대, 공주대, 중앙대, 재능대, 인천전문대, 인하전문대(건축과, 실내건축과)에서 참여하여 21점의 패널 등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건축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특히 지역소재 대학의 협조를 받아 예비건축사로 선발된 학생들의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계획패널 졸업작이나 대학원생들의 테마기획물, 학교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들의 과제물 등 전시된 110여점의 패널과 모형은 시민에게 건축의 의미를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협조한 15점의 조형물 초청전은 건축일색의 전시장 분위기를 빛나게 했다. 개막식 후 전시장을 관람하신 내빈들은 인하전문대 테마기획전의 대형모형을 가운데 두고 둘러서서 창의력이 특출한 작품의 팀에게 아이디어 대가를 지불하고 도시계획에 직접 반영시키자는 중론에 큰 박수가 터진 일은 값진 성과로 기록되었다. 이외 무영종합건축, 인천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포스코에서 특별후원과 함께 귀한 전시물을 함께 전시하여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국제학생건축공모전

(제2회 IASC 학생건축공모전의 명칭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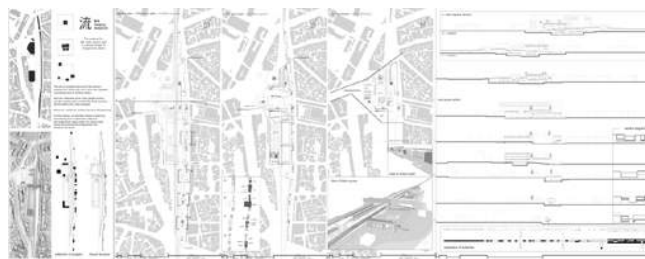


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는 10월13일 인천건축사회 회의실에서 ‘국제학생건축공모전’ 본심사를 열고 29명의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지난달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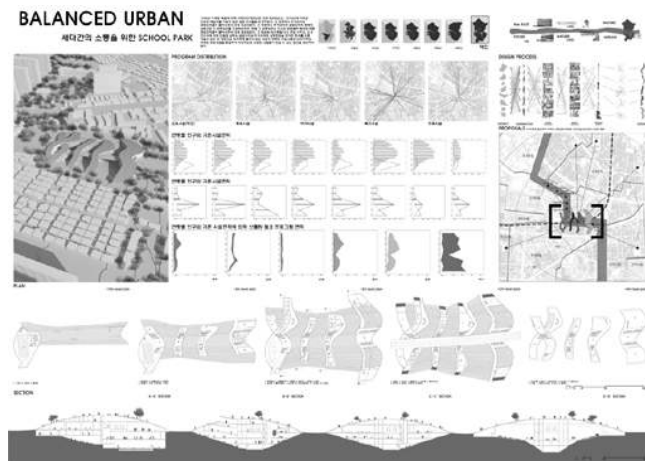
1차심사에서 68점의 응모작 중 선정된 29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출품자의 작품설명과 심사위원심사 등을 통해 대상(1점), 최우수(1점),

우수(3점),佳作(5점), 입선(19점)을 선정했다. 새로운 지역건축패러다임의 정착과 도시건축기능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제대회로 승격된 공모 작품 중 차분하면서도 사고의 진지함이 다른 제안과 차별화 된다는 점을 높이 인정받아 대상작으로 선정된 문장훈, 김기한(인하대)팀이 출품한 ‘류(流)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도식적이거나 건축결정론적인 여타 도시 제안에 비해 도시를 움직이는 기제에 대한 충실한 사고와 이를 움직여나가는 방식에 대한 성실한 제안이 돋보였다”는 평을 들었다. 대상 수상작과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최우수상 수상자인 김효상, 채진오, 임세미(인하대) 팀의 ‘Balanced Urban’도 심사위원들로부터 “대상지 선정의 참신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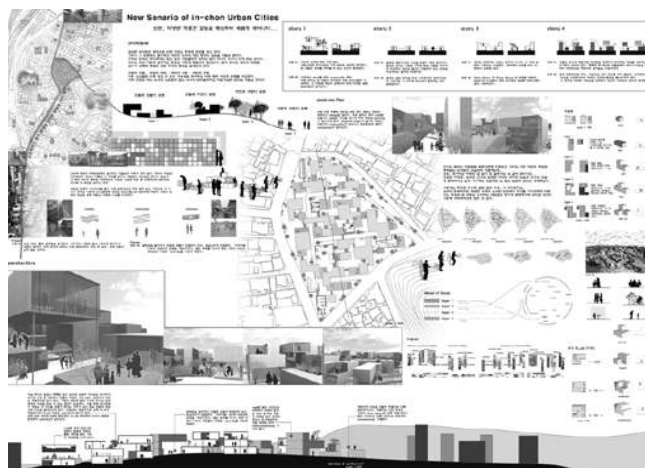
<국제학생건축공모전 주요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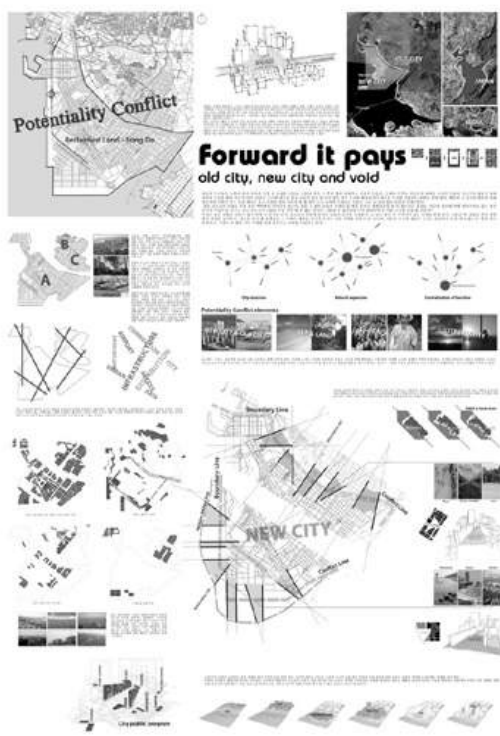
대상 류(流) (문장훈, 김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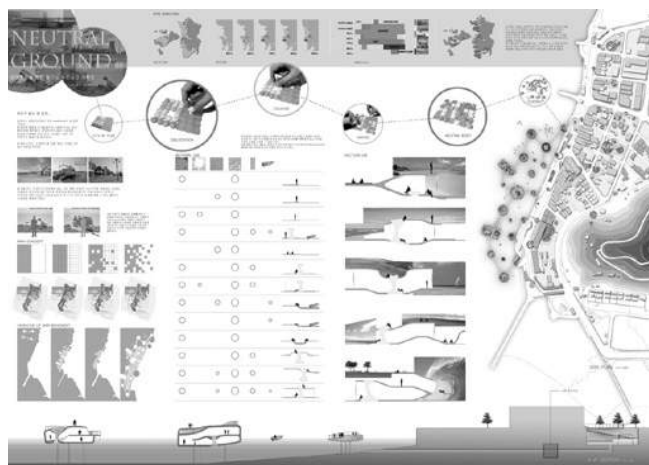
최우수 BALANCED URBAN (김효상, 채진오, 임세미)



우수1 NEW SCENARIO OF IN-CHON CITIES (김영태, 김은희)



우수2 FORWARD IT PAYS(안형욱, 김영수)



우수3 NEUTRAL GROUND(김대순, 권기영, 김준희)

서 일단 주목을 받는데다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유로운 상상력도 돋보였으나 도시적상상력을받쳐줄만한건축적제안에는미치지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아쉬움이 더했다. 우수상은 김영태, 김은희(경희대)팀과안형욱, 김영수(인하대학원)팀, 그리고김대순, 권기영, 김준희(인하대)팀이차지했다.

심사에는 정무웅(단국대 건축학과)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서현(한양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송복섭(한밭대 건축공학부) 교수가 수고했으며 수상자들에게는대상에 상금 700만원, 최우수상에 400만원, 우수상3점에각각 250만원 등 모두 2천100만원의상금이 주어졌다. 심사위원회는 본공모전은 학생을대상으로 했다는점을 강조하면서 그런 만큼 두가지 중요한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것은 얼마나 진지하게 주제에 접근했는가와

함께 제한 없는 상상력의 발휘가 같은 가치를 고려했느냐의 관점이며이런관점에서상투적인제안들은주목받지못했다고하였다. 입상작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들인 흔적을 보여주는 역작들이었으나 자신의 뚜렷한 목소리를 이야기 하려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도 했다. 학생공모전에서 기대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들어오던 내용이아니고듣지못하던 내용을큰목소리로 이야기하는것을 보려는 것이라는점을잊어서는안될것이라는메시지를남겼다.

도시건축사진공모전

(제3회인천도시건축사진공모전명칭변경)



금년에는 인천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현대 건축물과 인간과의 상생'을 주제로 했다. 이 공모전은 3회에 거쳐 인천 지역으로 한정하였으나 지역의 고

(古)건축이나근대(近代)건축, 도시재생건축의대상이매년유사해서 카메라 앵글을 통해 보여지는 인천의 향기를 어느정도 보여 주었다고판단되어범위를확대하였다고한다. 최난호씨의작품인'워터랜드' 작품은 색감, 사프니스, 구도, 앵글, 내용면에서 다른 작품보다

<도시건축사진공모전주요수상작>



대성 워터랜드(최난호)



우수1 어울림(김지환)



우수2 빛과그림자(이호원)

우수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우수상 김지완씨의 ‘어울림 온 강한 창틀이라는 구속 속에 평화로운 건축물들이매우자연스러웠으며, 이호원씨의 ‘빛과그림자’는목재계단의음영으로건축물의일부분을디데일하게표현하며건축물의전체모습을상상의세계로 인도하였다는좋은 평가를받아 우수상으로선정되었다. 그외특선이나입선모두작년보다다양성이나수준이높아보였다고김봉섭(한국사진작가협회인천지회장) 심사위원장이 전했다. 57점의 작품사진이 접수되어 10월11일 심사를 거쳐 30점이선정되고최종심사를거쳐수상작이발표되었다.

제8회건축백일장공모전



10월21일 본 전시
에 앞서 열린 건축모
형 만들기의 건축백일
장은 햇살만큼 밝은
모습의 많은 참가 가
족과 친구들이 한자리
에 모여 머리를 맞대
고 ‘상생 이란 주제로

준비한 다양한아이디어를 모형으로잘표현해주었다. 조직위가 준
비한 재료와 본인들이 챙겨 온 각종 폐품이나 재활용품들을 적절히
조화 시켜 미래의 건축물을 다양하게 형상화를 시도한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다고평가할수 있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남구청의 특
별 후원과 행사관리에 건축과 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동료 공직
자들마저 적극 호응하여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이 자원봉
사자로나서안전과행사지원을해주신일에도큰감사를드린다. 건
축백일장은 70여팀 300여명의 친구나 가족들이 참여하여 3시간동
안나무그늘속에서구상했던작품을열심히만들어최종 74팀이작
품설명서까지 작성 제출한 이야기는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여
운이 남아있는 멋진 행사였다고강용근(인천시주택건축과장) 심사
위원을비롯한심사위원들은말했다.

<건축백일장공모전주요수상작>



장원 환경친화주택(강민정의 3)



차상1 고향의집(정유석외 2)



차상2 빛집안가까이(김선욱외 2)

최고의 작품은 강민정의 3인의 친구와 가족 혼성팀이 만든 원통
형 통나무집과 태양열을 겸비한 환경친화주택 이란 작품으로 장원
으로뽑혔으며, 정유석외2인의팀과김선욱외2인의팀이차상으로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외 차하 4점, 가작 6점, 입선 13점이 상을
받고 전체 작품이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지하1층 무빙워크로 곁에
전시되고행사를촬영한화면을대형TV를통해연속방영되었다.

전체적으로전년도주제 ‘생태주택 과금년도 ‘상생 의주제해석
이크게다르지않아참가자대다수가 “자연을모티브화하여빠대를
만들고태양열, 물, 바람등미래에너지를효과적으로이용한섬세한
건축미를표현한작품도많았다”는심사평이매겨졌다.

인천건축문화제심포지엄

‘ 현대공원설계경향과자유공원의미래 플주제로연건축문화제
심포지엄에서 발제자와토론자들은일제히신중한 도시개발에의해
도시재생 개념으로 조성된 문화공간 상당수가 ‘흔적의 보존 과 ‘시
간의흐름’을주요디자인개념으로적용하고있다는의견을내놨다.
또진정한 도시재생으로서자유공원을개발하기위해서는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국공원 창조적 복원’ 대신, 지역사회에서 제기되
고 있는 다양한 제안을 바탕으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1월1일토지공사인천지역본부대강당에서열린이심포지엄은 우동선(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사회로 발제를 맡은 김인수(세계공원연구소) 소장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도시재생이란 우리 삶의 공간을 회복시키는 노력으로, 생활속에서 문화적인 풍요를느끼며 살수있는 공간이진정한 의미의문화공간이라는주장을 폈다. 즉살고싶고살기좋은도시로만들어가는것이문화공간으로서 도시재생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왕기(인천발전연구원) 실장은“도시재생에서시간의흐름은중요한의미로들어온다”고 전제,“중구지역 재생 접근방안으로 자유공원 조성과 더불어 월미산조성, 일대의근대건축물복원등여러자산을네트워킹함으로써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단계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 손장원(재능대) 교수는자유공원내건축물과공원의관계에대해접근, 건축물이갖는문화적가치를짚었다.“복원대상건물중존스틴별장의경우일반적으로별장보다는인천각으로기억되고있으며 이는 조선총독이 붙인 이름”이라며“더우기 내부를 일제가 일본풍으로고쳤다는데에서과연 현재에문화적가치를 인정해야할지의문”이라고 역설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나선 강신용 박사는‘조경의문화사와형태의본질’을주제로공원설계의세계적흐름과공원설계의역사를되돌아보고과거가공존하는세계공원계획의방향을조심스럽게추적하며자유공원의미래를보여줬다.

평가와 과제

지난해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올해는 과감하게 인천지하철 종합문화예술회관역에 전시장을 만들어 행사를 준비해온이무열(인천건축사회) 회장은“인천유일의건축문화행사인건축문화제가 지역 내 마땅한 상설전시장 하나 없어 지하철역사에서 열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인천시민의 동선에 맞춰 찾아가는 행사로 벌이고있다는점에서위안을삼고있다며매년눈에띄게달라지는행사규모와 하나하나 쌓여가는 기획력이 든든한 힘이 되긴 하지만 특히 주제인 ‘상생’은 대규모 건설이 추진되는 신도심과 기존 구도심을공존·공생의관계로연결하자는뜻에서선정한것이어서인천의 입장에서 어느 때보다 의미있는 건축문화제”라고 평가했다. 여기에일반시민들도쉽고친숙하게건축을이해할수있도록가족과친구 단위로 참여해 폐자재 등을 이용해 건축모형물을 만드는 건축백일장을 열고 입상작을 전시하는 등 저변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올해국제규모로확대된학생공모전활용방안으로앞으로는인천지역에서 발주하는 동사무소, 학교 등의 설계에 접목시키는 방안을적극적으로찾아내어지역내관공서의건축설계문화부터라도 변화시키는 세계적 흐름에 걸맞고 보다 창조적인 새로운 시도를 적용해야할것이다.

11월2일폐막된「2006인천건축문화제」를통해건축을이해하러 찾아준 모든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치밀하게준비한다면남녀노소의구분없이찾아드는건축문화제로자리매김할 수있을 것이라는 점을간과해서는안 될 것이다. 건축과 도시

환경을 한데 어우르는 ‘세계도시엑스포’를 준비하는동안 거듭나기를 기대한다.“선진 도시재생 사례와 지역의 과제를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도시가활성화된개성있는도시계획’을목표로우리건축사들이앞장서야할것이며아름다운그도시만의경관을영원히지켜가는건축문화운동으로정착시켜야하겠다며무엇보다이번행사가 전시효과 면에서는 어느 해보다 성공적이었다’는게 김현운 커미셔너와 조직위는평가하면서 주말에는 2천여명의 관람객이몰리는 등 일주일간의 행사기간동안 1만여명의 시민과 관계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본것으로자체집계되었다고밝혔다.

행사장과관련하여관객들을찾아나선다는차원에서시민들이많이 다니고 동선이 길어 전시효과를 보는데 적절했지만 개막식 장소가협소해불편을겪은 점등을고려하면 역시상설전시장의 필요성을 확인한 전시였다. 2006인천건축문화제는 지하철 역내 전시장을 이용한전시규모로도최대의행사가아닐수없다. 상대적으로전시장의환경이좋을수없기에그곳을이용해전시했던기존의여타장르전시의한계를극복할 수있을지에관해 인천건축계 내부에서조차우려의목소리가높았던것도사실이다. 다만, 기대했던것은지역의젊은건축인이혁준(인하전문대)교수와이기웅(인하대대학원) 코디네이터에의한전시장계획이성공적이기를바라는마음으로원만히마감되어지는모습에그나마감사한다.

인천시가준비하고있는세계도시엑스포의출발지점이이곳에있음을조직위원회나지역건축인들은한결같이강조하나이제까지발기인명단이나 시도시계획위원회에건축사의이름자는올리지못하고 있다. 세계인의건축잔치인도시엑스포가단지도시의비전과위원을전달하는공직자와청치인들의과시형프로그램이아니기를바라는바다. 또한적극적인 건축인들의참여를 통해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체험적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적 삶에 대한 긍지가 개선되어지기를 바란다. 인천건축의 발전적 모형이 건축문화제에 안에 담겨져있음이며, 엑스포라는 일회성 행사의 지속적 가치를 이어갈 적통의 건축행사로인천건축문화제의기반을유용하자는제안이다.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 제11회이사회

2006년도 제11회 이사회가 지난 11월 21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신축회관 입주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건, 전국대학 건축학과 학생협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 관한 건, 건축자재추천·인증업무규정개정(안) 승인의건, 건설기술사회계 재정지원금 배분방안에 관한 건, 한국건축산업대전개최에관한건,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비품처분승인의건등이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대형 건설회사의 설계업 허용요구」에 관한 건, 건축사등록업무 시행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의결내용은다음과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신축회관 입주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건
 - 원안대로승인함.
 - ▷행사내용 : 신축회관준공식, 회관준공 및건축문화신문창간기념송년리셉션
 - ▷행사일시: 2006. 12. 8(금)
16:00~19:00
 - ▷행사장소: 신축회관대강당
 - ▷초청대상: 대내외인사약 500명
- 제2호의안 : 전국대학 건축학과 학생대표 간담회개최에관한건
 - 일시와 장소,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참석대상은 건축학교육협의회와 4년제 건축학과 학생을 포함하기로 하고, 동 행사에임원및시·도건축사회회장이참석하기로함.
 - 업무는 이영수 이사가 주관하되, 이근창 부회장 및 박찬정, 한명수 이사와 역할을 분담하기로함.
- 제3호의안 : 건축자재추천·인증업무규정 개정(안) 승인의건
 - 제17조제2항의수수료는 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승인함. 다만, 문안에대해서는법

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기로함.

- 제4호의안: 건설기술사회계재정지원금배분방안에관한건
 - 배분방안을승인함.
- 제5호의안: 한국건축산업대전개최에관한건
 -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행사전담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강석후이사가담당하기로함.
 - ▷위원임기조정(1년→2년)을위한정관개정검토
 - 일반회계차입금은내년도행사준비를위하여 상환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함.
- 제6호의안: 예비비사용승인의건
 - 예비비사용을승인함.
- 제7호의안: 비품처분승인의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협회의 회원들이 필요시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함.

▲협의사항

- 제1호 : 「대형 건설회사의 설계업 허용요구」에관한건
 - 대형건설회사의설계업허용요구에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책방안은 임원/시·도회장 합동워크샵(11/27에서논의하기로함).
 - ▷FIKA 실무협의회(11/23에서도 공동대책기구설치및대응방안을논의
- 제2호: 건축사등록업무시행에관한건
 - 협회가 계속교육 프로그램 등 추후 건축사등록업무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시급히 마련하기로함.
 - 세부시행방안은이사4인(이근창부회장, 박찬정, 이영수, 한명수 이사)이 마련한 후, 추후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함.

■ 제6회임시이사회

2006년도 제6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12월 8일 오전 11시우리협회회의실에서개최됐다. 이번 임시이사회에서는 대형 건설회사의 설계업 허용방침에 대한 대책의 건과 제41회 정기총회

일시및장소결정의건이논의되었다.
주요의결내용은다음과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대형 건설회사의 설계업 허용방침에대한대책의건
 - 대형건설회사의설계업허용방침에적극대응하기위해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하여추진하기로함.
 - ▷위원장은이영순부회장으로하고기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과위원장이협의하여구성하기로함.
 - ▷추진일정 및 방법 등 세부적인 대책방안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고, 사용재원및예산집행방법에대해서는회장에게위임함.
- 제2호의안 : 제41회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결정의건
 - 제41회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같이결정하기로함.
 - ▷일시: 2007년2월 22일(목) 10시
 - ▷장소: 본협회회관1층대강당

■ 임원및시·도건축사회회장합동워크샵개최

임원 및 시·도 건축사회 회장 합동워크샵이 지난 11월 17일~28일 경북 문경에 소재한 한성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샵에는 본 협회 이영순 비상근부회장, 신인기 상근부회장과 강석후, 도무찬, 박무길, 박성인, 장기중, 정명옥, 한명수 이사가 참석하였고, 시도건축사회에서는강성익, 박신옥, 신동출, 이무열, 김용주, 최광식, 조성원, 이재춘, 정익현, 조형식, 김주식, 윤재화 시도회장이 참석하여 대형 건설회사의 설계업 허용요구에 관한 건과건축사등록기구설립에관한건, 2007년도주요사업시행에관한건, 정관개정에관한건 등을심도깊게논의하였다.

주요논의내용은다음과같다.

▲협회의주요현안문제

- 대형건설회사의설계업허용요구에관한건
 -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문제는 건축사들의생존에관한사안이므로집행부에서총력을기울여대처하기로함.

▷대처방법 및 시기 등 세부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하고, 추후 소요예산의 총회 승인문제등에대해서는임원과시·도건축사회회장모두가적극지원하기로함.

-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 감리문제에관한건

▷시·도건축사회장과 3,300여명의 회원 서명 등을 근거로 적극 대처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함.

- 건축사등록기구설립에관한건

▷건축사계속교육및실무수련프로그램 등을 협회가 시급히 마련키로 하고, 이사 4인(이근창 부회장, 박찬정·이영수·한명수이사)이시행방안을마련중에있으므로이에적극협력하기로함.

- 2007년도주요사업시행에관한건

▷2007 전국건축사대회와 UIA PPC회의, 아카시아회장국 업무수행 등 신규사업과임원수조정및회의비현실화, 대외협력 활동강화 등 협회의 효율적 운영에필요한사업들이적극적이고진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시반영해줄것을요청함.

- 정관개정에관한건

▷현행 정관중 임원의 수를 조정키로 하고, 나머지 조항에서도 개정이 불가피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2007년도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하되, 세부사항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함.

▷상근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6인을 증원하고, 부회장은1인을증원하되역할을부여

■ 2007년도정기감사실시

2007년도 정기감사가 실시된다(강신, 송평문 감사). 감사기간은 2006. 12. 12(화) ~ 2007. 2. 2(금)이며 시·도건축사회 감사 12일과본협회감사 10일이다.

감사방법 본협회 및 13개 시·도건축사회는 현지 감사와 기타 3개 시·도건축사회(대구, 인천, 전북)는서류확인감사다.

주요일정은다음과같다.

감사대상	기 간
경북	12월 12일(화)
제주	12월 14일(목)
부산, 울산	12월 18일(월)
경남	12월 19일(화)
광주, 전남	12월 20일(수)
대전, 충남	12월 21일(목)
충북	12월 22일(금)
서울	12월 27일(수) ~ 28일(목)
3개건축사회(서류감사)	12월 29일(금)
강원	07년1월 18일(목)
경기	07년1월 19일(금)
본협회	07.1.2(월) ~ 2. 2(금)

위원회회의

■ 2006년도제1회비상대책위원회회의

2006년도제1회비상대책위원회회의가지난 12월 13일 오후 2시 우리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과 비상대책위원회 세부운영방안에관한건, 예산조달방안에 관한 건이논의되었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회의결과

- 제1호: 비상대책위원회구성에관한건
 - 비상대책위원회를 원안대로 구성하기로함.
- 제2호: 비상대책위원회세부운영방안에관한건
 - ‘07년 2월 정기총회 이전에 대규모 집회를개최키로하고, 집회의 시기와방법, 소요예산 등 세부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작성한후전체회의에서는의·확정하기로함.
 - ▷거수표결결과, 위원 22명중 15명 찬성
 - 위원회의 담당업무는 대형 건설회사의 설계업 허용문제와 300세대미만 감리문제 등 주요현안을 포괄하기로 하고, 실행분과위원으로 시·도 건축사회 회장전원이참여하기로함.
 - 동사안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면담과 관계 기관 방문·건의등다각적인협력방안을모색하고, 관련단체 및 건축문화포럼 등과

도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함.

- 건설교통부차관 주재 회의(8/31)에서 허용방침이 이미 정해졌음에도 약 3개월 동안 협회가 관련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요청함.

• 제3호: 예산조달방안에관한건

- 예산조달은총회의결사항이므로위원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시·도 건축사회장들이총회에서통과될수있도록 사전에소속대의원의서면결의를받아 주기로함.

■ 제27회건축문화신문편집위원회의

2006년도 제27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가 지난 11월 28일 오후 4시 우리협회편집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문화신문 6, 7, 8, 9호 지면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회의결과

- 제1호: 건축문화신문6, 7, 8, 9호지면구성에대한건
- 건축문화신문 6, 7, 8, 9호 지면구성에 대해논의함.

■ 제28회건축문화신문편집위원회의

2006년도 제28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 오후 4시 우리협회편집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문화신문6호최종판수정에대해논의하였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회의결과

- 제1호: 건축문화신문6호최종판 수정에 대한건
- 건축문화신문6호최종판을수정함

■ 제29회건축문화신문편집위원회의

2006년도 제29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가 지난 12월 2일 오전 9시 30분 우리협회편집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문화신문 6호 최종판을 종합검토하고 수정하였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회의결과

- 제1호: 건축문화신문6호최종판을종합검토수정에대한건
- 건축문화신문 6호 최종판을 종합검토수정함.

■ 제30회건축문화신문편집위원회의

2006년도 제30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가 지난 12월 5일 오후 4시 우리협회편집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문화신문 7, 8, 9, 10호의 지면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회의결과

- 제1호: 건축문화신문 7, 8, 9, 10호의 지면구성에대한논의의건
- 건축문화신문 7, 8, 9, 10호 지면구성에 대해논의함.

■ 제31회건축문화신문편집위원회의

2006년도 제31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가 지난 12월 11일 오후 3시 우리협회편집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문화신문7, 8, 9, 10호 지면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회의결과

- 제1호: 건축문화신문 7, 8, 9, 10호지면구성에대한논의의건
- 건축문화신문 7, 8, 9, 10호 지면구성에 대해논의함.

‘2006 꿈과 희망’ 충청북도건축사대회 개최

충청북도건축사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동안 충북 제천에 소재한 청풍리조트 힐 호텔에서 ‘2006 꿈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충청북도건축사대회’를 개최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회원의

친목과단합을위해개최된이번건축사대회에는 88명의 회원과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회원자유토론, 초청강연회, 마술쇼, 사물놀이 공연, 등산, 축구, 청풍문화재단지 관람, 유람선관광등알찬행사를가졌다.

- 문의: 충청북도건축사회

043-223-3084~6



회관신축공사진행경과

(2006년 11월 30일현재)

공사진행현황

06. 11월중 진행된 본 협회 회관신축공사의 건축공정은 주출입 전면 외부마당 석공사, 공용부무늬코트공사, 조경공사등의 주요 마감공사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기 및 소방공정은 전기수전에 따른 사용점검 및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의 시운전 등이 진행되었으며, 기계공정은 냉난방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의 점검 및 시운전등이진행되었다.

회관다목적강당및국제회의실의인테리어공사는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협회 사용층 인테리어 공사는 06. 11월초에진행되어 06. 11. 20일경완료됨과동시에 사용승인 신청을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회관신축공사의공정진행은 06. 11월말 현재 완료되어 준공청소가 진행되었으며, 06. 12. 8일에는 회관준공식이개최되었다.

회관건립위원회회의현황

06. 11. 13일 신축회관현장에서개최된 제20회위원회에서는 06. 11. 20일경사용승인신청서를 관할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키로하고협회사용층(7~9층)에대한소화설비는사용실에적합하도록조정하여소방검사를신청키로협의하였다.

그리고 당일 사전 준공검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간 진행된 시공품질관리 점검사항을회관공사에조속히반영토록시공자및감리자에통보키로하였다.

06. 11. 21일개최된제21회위원회에서는 06. 11월말 신축회관 입주를 위한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의 추가 변경사항을준공식(06. 12. 8) 이전조치토

록협의하였다. 그리고회관준공에따라그간 신축회관 건립의 추진경과 및 공사관련 자료를 설계자에게 제출받아 회관건축백서를준비키로협의하였다.



공개공지조경 공사



주출입구준공청소



전면부도로 포장



공사전경



투시도

‘원효대교 12월의건축환경문화로선정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김진애)는 80년대교량에 대한디자인페러다임을변화시키고, 구조적안전성과 자연미를 가미한 아름다운 ‘원효대교’를 12월의건축환경문화로선정하였다.

원효대교는미인의눈썹같은상부구조의아치형상과V형상의강렬한교각이잘어우러진단아한모습으로 1981년도에완공되어그당시일반화된직선형의둔하고단조로운과는 대조적인 느낌을주며, 곡선이 주는부드러움과 교각의날렵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동적인즐거움을주는안정감과우아함으로 기하학적인아름다운 교량의 시각을 주도하였다는평가를받고있다.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서울대)의 김남희 책임연구원은원효대교의 여러 특성들을 감안하여 이달의건축환경문화로선정된 사유를 밝혔는데 “당시 독일에서 개발된 Dywidag System방식의 새로운 공법을 과감히 도입하고, 구조적으로 의도했던 아치형상과 국내 최초로 긴 경간(100m)이 통일성과대칭성을이루어균형적인미를갖추었다는 점과 국내최초로 민간자본을 투입, 시공사인 동아건설이건설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 함으로써 기업이윤을 사회로 환원했다.”는점이다.

금번 제9호로 선정된 이달의 건축환경문화인 원효대교는서울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안전한 교량설계의필요성과 건설방향을 제시하는좋은귀감이되었으며, 향후에도“이러한교량이시행자와시공자에의하여탄생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관계자는밝혔다.

이달의 건축환경문화는 건축문화에 대한국민들의인식을높이고자연과조화되는예술적이고건강한문화를확산시키기위한목적으로, 지역주민·시민단체 및 관련기관 등의 신청으로 올해 4월부터 매달마다 선정되어오고있다.

• 작품개요

- 소재지: 서울시용산구원효로4가~영등포구여의도동
- 용도: DB-24 교량
- 공사기간: 78. 7. 17 ~ 81. 10. 27 (약3년3개월)
- 사업비: 약 258억원
- 시행자: 서울특별시
- 설계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 감리사: 동아엔지니어링(주)
- 시공사: 동아건설산업(주)
- 문의: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기획단 031-436-8900~1

KCC, 이맥스클럽 세미나 및 신규회원사가입식행사개최



KCC는 지난 11월 22일서울메리어트호텔에서이맥스클럽사장단세미나및신규회원사가입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맥스클럽은 KCC 대리점 가운데 복층유리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우수한 품질의 복층 유리를 생산하는 가공업체들의모임을 뜻하며 지난 2월에발족한바있다.

이번행사는기존회원사9개업체와신규

회원사7개 업체, KCC 임직원등 40여명이 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KCC 관계자는향후 계획에 대해, 앞으로 이맥스클럽 샘플 검사 및 정기적인 기술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고품질의 복층유리 보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품질 관리에모든역량을집중하여운영할예정이라고밝혔다. 또한앞으로대고객광고, 현장판촉,인터넷 판촉 등을 통해 이맥스클럽 브랜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이맥스클럽사장단세미나에참석한 회원사들은 “금번 세미나가 이맥스클럽의 운영 계획 및 미래 비전을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이맥스클럽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좋겠다”는의지를밝혔다.

• 문의: KCC 홍보팀02-3480-5884

2007 Xi Design Festa

GS건설은 Xi 디자인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주거공간, 주거문화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2007년 ‘Xi Design Festa’를 개최한다.

‘Xi Design Festa’는 워크샵 부문과 공모전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는데, 워크샵 부문은 국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및 디자인 관련학과 대학(원)생 대상으로 하며, ‘Return to the core (본질로의 회귀)’라는 주제로 2007년 1월 8일에서 12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2007년 2월 5일에서 8일 (3박 4일)간 진행되며, 공모전 부문은 국내 디자인과 국내 건축 및 디자인 관련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Motion to Emotion(감성으로의손짓)’을 주제로 12월 18일에서 2007년 2월 15일까지 참가등록을 받고 2007년 2월 12일에서 15일까지 1차작품접수를받는다.

• 문의: www.xidf.co.kr

쌔미스페이스외부기획전

지난 2005년 홍영인 조각가와 유석연 건축사의 공동작업으로 소개되었던 ‘Art



Ventilation Tower - 예술환기를 위한 굴
목 의 제2부전시이다.

서울 마포구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2012
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발전소’로 개발하
는 방안이 번복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당인리 문화발전소 조성가능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예술계와 건축계의 국내외 작가
약 30명이 참여하였다.

문화예술과 사회, 권력의 관계에 대한 질
문들로 구성된 미디어, 설치, 회화, 건축개념
작업 등 시각작품 25점과 12점의 글이 소개
될 예정이다.

• 참여작가

- 예술가 : 프란시스코 발데스(런던, 비
디오, 회화), 새이디 머독(런던 비디
오, 사진), 사빈 헤그만(스위스, 퍼포
먼스), 너츠 소사이어티(방콕, 비디오
DOCUMENT 상영), 베로니크 찬스(런던,
사진), 자코모 피카(런던, 회화), 수하
시니 케주리얼(캘리포니아, 회화), 다이안
바우어(런던, 회화), 김형관(회화), 권
대훈(런던, 조각, 설치), 한승진(사진,
한정림 · 서승모(설치)
- 건축사 : 김택수, 안우성, 이충기, 정
재현
- 작가글 : 수하일 말릭(런던, 미술, 문
화비평 및 이론가), 요하네스 마이어
(런던, 예술가), 토이암 스리슈룻(방
콕, 예술가), 류제홍(문화비평가), 최
범(비평가, 공공미술), 박철수(건축
사), 고정애(기자), 이혜윤(기자), 권문
성(건축사), 정기용(건축사), 홍보라
(갤러리 팩리 디렉터), 정현(파리, 미
술, 비평가)

• 전시일정

- 일시: 2006년 12월 22일~2007년 1
월 10일
- 장소: 쌈지스페이스전관

TEE와UIA 국제건축공모전공동주최



지난 20여년 동안 쓰나미, 태풍, 지진, 홍
수, 화산폭발 등 자연의 대재앙으로부터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그리스 기술의회(TEE)와 국제건축사
연맹 (UIA)의 국제 워크 프로그램인
ARES(Architecture and Renewable
Energy Sources)가 공동으로 국제 건축공
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과
기후조건을 활용하여 재해지역의 난민을 위
한 임시주거를 제안하는 것으로 2006년 11
월부터 2008년 7월까지 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응모자들은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기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빠르
고 새로운 건축기법을 고안하여 식수 및 에
너지 공급, 주소지정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주단위를 제안하여야
하는데, 주최측은 이것이 세계 어느 지역에
서도 적용가능한 프로토타입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한다.

심사는 UIA 스페인 사무총장인 파란도
홀지와 1지역의 회장인 이우스 지안카를로
를 포함한 11명에 의해 이루어지며, 3개의
우수작과 5개의 가작에 총 7만 유로의 상금
이 주어진다. 2007년 12월 아테네 포럼에서
전 참가자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2008년 7
월에는 제23회 UIA 국제건축회의가 있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수상작에 대한 전시가
있을 예정이다.

- 공모일정: 2006년 11월 1일 ~ 2007년
1월 31일
- 작품접수: 2007년 6월 29일
- 발표: 2007년 11월 예정
- 문의: www.arescompetition.com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일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 ~ 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강북구건
축사회/903-4666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관악구건축사회
/888-2490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구로구건축사회/864-
5828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노원구건축사회/937-1109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동작
구건축사회/814-8843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서대문구건축
사회/324-3810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성동구건축사회
/2292-5855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송파구건축사회/423-
9158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영등포구건축사회/2634-
3102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중구건축사회/2266-4904 중랑구건
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 ~ 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 ~ 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 ~ 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 ~ 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광명건축사회/(02)2684-
5845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부천지역건축사회
/(032)327-9554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수원지역
건축사회/(031)246-8046 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
6713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안양지역건축사회
/(031)449-2698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이천지역
건축사회/(031)635-0549 광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
/(031)234-8872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광주지역
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양양지역건축사회/(033)533-
6651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2 평평정태지역건축사회
/(033)374-6471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0 춘천지역건
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 ~ 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천안지역건축사회/(043)732-
5752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충주지역건축사회
/(043)842-3899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9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
5110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아산지역건축사회
/(041)549-5001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논산지역
건축사회/(041)662-3388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8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
2217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홍성지역건축사회
/(041)632-2755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태안지역
건축사회/(041)674-3733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계룡지역건축사회/(042)841-5722 홍성지역건축사회/(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
2223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8 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완주지역건축사회/(061)726-
6877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나주지역건축사회
/(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 ~ 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8 영주지역건축사회/(054)772-
4710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 ~ 8 완주지역건축사회
/(054)436-2651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상주지역
건축사회/(054)536-8855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천주지역건축사회/(054)337-
0085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포항지역건축사회
/(054)278-6129 울진·영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동
지역건축사회/(054)373-2332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
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
6090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마창지역건축사회
/(055)245-3737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사천지역
건축사회/(055)832-9009 양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진주
지역건축사회/(055)741-6403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
6666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하동지역건축사회
/(055)864-7400 함안지역건축사회/(055)585-8587 창녕지역건
축사회/(055)533-2473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알기쉬운「위험물안전관리법」

이 책은 위험물의 제조, 저장, 운반, 취급 및 위험물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독자들에게 하여금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해설서이다.

현행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등에 걸쳐 각종 규정과 설치기준이 분산 수록되어 있어서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관련되는 다른 법령까지 섭렵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편저자는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하여금 번거로움을 덜게 하였으며, 아울러 위험물과 관련되는 각종 민원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서식 및 행정절차 등을 수록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



김도한 편저 / 500쪽 / 50,000원 /
대건사 펴냄 02-715-6683

한국건축답사수첩

신간 「한국건축답사수첩」은 우리의 다양한 건축을 종류별로 열거하고 그 특징이나 세부 사항을 한눈에 익힐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답사를 가려는 사람들의 길잡이를 목적으로 출간되었다.

우리 건축역사의 흐름과 성과를 건축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답사길에는 물론 책상의 사전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 책은 역사의 개요와 구조와 시공, 궁궐과 관아, 마을과 읍성, 살림집, 유교건축, 불교건축, 원림과 누정 등 모두 9개장으로 꾸며져 한국건축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답사를 준비하고, 실제 답사에서 이 지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감동을 부여한다. 또한 도면과 원색사진이 첨가되어 이해가 빠르고, 호주머니 크기라서 휴대가 간편한 것도 장점이다.



한국건축역사학회 편 / 684쪽 / 280,000원 /
도서출판 동녘 펴냄 031-955-3000

건축에게 시대를 묻다

- 민현식의 한국현대건축읽기

이 책은 저자 민현식 건축사가 “건축을 통한, 이 시대와 이 땅에 대한 진정한 질문과 성찰의 결과로서, 새로운 태도와 제안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지금 여기’의 건축과 건축사들을 사유해 나간 기록이다.

그는 서두에 “지난 10여 년 동안 이분들은 새로운 건축의 화두를 가지고 저를 끊임없이 자극해왔고, 제 건축적 상상력을 부추겼으며, 저의 건축 작업을 깊게 성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분들에게 보내는 저의 연애편지 ‘하고 밝히며, 19가지의 한국현대건축 작업과 건축사들의 작가 정신, 획기적인 건축적 성취를 보여줌과 동시에 중요한 건축의 담론과 시대적 의의를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 작업에 대한 분석과 사유를 통해 다양성과 불확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건축계의 현재와 우리 시대를 진단하며, 나아가 보다 선(善)한 미래를 예측한다.



민현식 지음 / 360쪽 / 23,000원 /
도서출판 돌베개 펴냄 031-955-5020

건축

시계루반에의한새로운풍피두센터착공



시계루반에의한 새로운풍피두-메츠 센터

30년전 파리 중심부에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시대를 앞서나간 풍피두센터가 세워졌다. 이 건물은 건축사리차드로 저스와렌조피아노를 국제적 관심의 대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계와 전 세계 의도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현대 갤러리나 뮤지엄 없이 어느 정도라도 완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를 부여한 작품이기도 하다. 현재 매년 600만명이 파리 풍피두센터를 방문하고 있으며, 현재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 건축사 시계루반에 의하여 설계된 새로운 풍피두-메츠 센터의 착공이 있었다. 이 건물은 파리의 동쪽 200마일 떨어진 곳이며, 독일,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경계에 위치한 메츠시에 있다. 이 건물은 풍피두의 첫 지소이자 또 하나의 건축적 상징물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시계루반은 파리 시장에서 본 중국 농부의 모자에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대나무로 엮은 모자의 모습이 건축적 개노피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새로운 풍피두 센터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적 결합시키는 원뿔형 지붕으로 형상화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건물은 뮤지엄의 기능을 위한 갤러리, 회랑, 그리고 사무공간들 각기 용도에 필요한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들 다른 형태의 공간들을 지붕을 이용하여 단일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건물은 고정성과 가변성, 그리고 개방과 폐쇄라는 대조적 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건물의 중앙 홀은 대형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으며, 포럼, 오디오리움, 사무소, 레스토랑 등의 다양한 공간을 수용하고 있다. 정

형적 갤러리와 다르게 다양한 용도로의 사용을 위한 공간적 변형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필요에 따라 주변 공원과 개방 전시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건물은 녹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붕과 조경이 연결되어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지붕의 경량감에 의하여 건물은 파빌리온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 건물은 2008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홍콩의 새로운 늪지공원

홍콩에 세계에서 가장 큰 습지 생태공원이 문을 열었다. 이 공원은 홍콩이 환경을 주제로 만든 최초의 시설물이자 홍콩의 가장 중요한 관광 명소로 기획되었다. 영국 디자인 회사 매트 스튜디오 디자인에 의하여 오랜 기간 계획 되었다. 매년 50만명 이상 방문을 할 것으로 홍콩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공원은 145 에이커의 자연습지에 만들어졌으며,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조류 이동 경로 중 하나이다. 공원 중심부에는 반지하의 형태로 방문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이 건물에는 갤러리와 함께 악어가 살아 있는 늪지를 구경하는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공원은 습지대를 이해하고 보전하며, 방문센터를 통하여 자연적 환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 생태공원의 방문센터

미국 클리브랜드 현대미술관, 새로운 건축을 위한 FOA 건축사사무소 선정

클리브랜드 현대 미술관(MOCA)은 새로운 건물의 확장 설계를 위하여 런던의 건축회사 Foreign Office Architects(FOA)를 선정하였다. 새로 지어질 시설은 클리브랜드 문화 중심지인 대학서클 지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부근 케이스 서부 대학 캠퍼

퍼스의 상가지역의 입구 역할을 할 것이다. FOA는 1992년 파시드 부사비와 알레잔드로 자라폴로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젊은 건축사사무소이다. 이회사는 세계 14개 도시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디자인적 우수성과 기술적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또한 기능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이 디자인은 미국에서의 그들의 첫 번째 작품이자 뮤지엄에 대한 최초의 경력이다.

MOCA Cleveland는 건축사 선발 팀을 구성하였으며, 젊고 창의적 회사를 물색하여 왔다. 많은 건축사의 작품을 검토하였으며, 2006년 봄 6개 회사로 압축하였으며, 이들의 작품들이 공개적으로 전시되었다. FOA가 작품의 일관된 우수성과 뮤지엄에서 요구하는 가변적 공간과 다양한 청중의 요구에 대응하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뮤지엄은 현재 크리브랜드의 웨스트페이크리드레스코스키사와 새로운 건물을 위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다. 이 작업은 2006년 11월에 완성될 예정이며, 이어서 FOA가 개념설계를 할 예정이다. 뮤지엄은 새로운 건물을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500만을 목표하고 있다.

영국 브리스톨 항만 부지에 새로운 뮤지엄 계획

영국 브리스톨시는 새로운 뮤지엄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해리티지 로터리 재단의 £1,020만 기부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 산업 뮤지엄 대지 위에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 뮤지엄은 2009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과거 신대륙 등의 탐험 여행과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브리스톨 시민의 눈과 경험을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할 예



브리스톨의 새로운 뮤지엄 계획

정이다. 즉, '무엇이 브리스톨을 만들었는가?'에 대답하고자 하고 있다. 이 도시의 미래 가능성 또한 탐구하고자 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것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뮤지엄은 기존의 건축적 흔적과 부둣가의 역사적 창고들의 파사드를 보존할 것이다. 새로운 뮤지엄은 기존의 시설과 최신의 전시 기법, 동적인 시청각 자료, 그리고 도시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역사적 수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뮤지엄 건물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LAB 건축 스튜디오에서 설계하였다. 기존 건물의 역사적 파사드를 보존하며, 작업 중인 크레인과 항만 철도가 항만 조경과 뮤지엄 자체의 주요 요소로 활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 뮤지엄은 영원히 문을 닫을 예정이다.

모쉬 사프디, 몬트리얼의 맥길 대학 글렌 캠퍼스 마스터플랜 건축사로 선정

맥길 대학 보건 소장 아서 포터 박사는, 맥길 대학의 졸업생이자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건축사 모쉬 사프디를 글렌 캠퍼스의 마스터플랜 건축사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캠퍼스 부지는 43에이커의 면적으로 재개발을 할 예정이다. 맥길 대학을 졸업한 지 3년 후 모쉬 사프디는 엑스포 67의 마스터플랜의 책임을 맡았으며, 해비타트 67로써 20세기의 아이콘을 만들어 세계적 이목과 함께 몬트리얼의 주요 인사가 되었다. 이 처음 작품 이후 세계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여 왔며, 공공 및 대학 기관 및 주요 문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다.

세계적인 대학의 보건 캠퍼스의 설계는 진료와 연구, 강의 등을 수용하여야 하는 수많은 난제를 가진 프로젝트이다. 기능적이며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방문객 그리고 직원을 위한 사용자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의학 기술과 실무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계획하여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노만 포스터, 캘거리 도심에 새로운 건물 개발 계획

엔카나사는 캘거리 도심에 새로운 건물 개발 계획을 신청하였다. 노만 포스터가 설계한 작품으로 59층 규모의 유리 와 강철로 만들어진 건물이며, 캘거리의 도심에 지어질 예정이다. 굽은 모양의 이 건물은 170만 ft²의 연면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내부에서 서쪽으로 로키 마운틴과 보우강 협곡, 동쪽으로 캐나다 평원과 보우 강 등 주위 환경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건물 서쪽 부분에 3개 층의 내부 공원 아트리움이 있다.



노만 포스터에 의하여 계획된 캘거리 도심 오피스 계획

빌 게이츠 - 컴퓨터 역사 박물관에 \$1,500만 기증

빌 게이츠 재단은 컴퓨터 역사 박물관에 \$1,500만을 기증하였다. 이 박물관은 정보화 시대의 유산과 이야기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 실리콘 밸리에 세워져 있다.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의 확충, 그리고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은 \$1.25억을 목표로 모금 중이며 현재 \$7,300만의 기금이 형성되어 있다. 빌 게이츠 재단의 기부는 이 박물관에 대한 가장 큰 기부였으며, 보다 많은 지역 사회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대응 자금의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 박물관은 컴퓨터 역사에 관한 인터랙티브 전시의 형태로 800년에 걸친 컴퓨터 혁명을 조명하고, 인간의 경험에 대한 영향을 재조명하고자 하고 있다. 이 기부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컴퓨터 역사의 시간' 갤러리를 빌 게이츠의 이름으로 할 예정이다.

스위스 건축사 자크 에르조와 베에르 드 피롱 영국 왕립 건축 금상 시상

영국 왕립 건축사 협회의 의장인 잭 프린글

씨는최근이사회에서테이트모던뮤지움으로 유명한 스위스 건축사 자크 에르조와 빼에르 드 뢰롱은 건축 분야에서 가장 명성이 있는 로열 골드 메달을 수상 대상으로 지명 발표하였다. 이상은 영국여왕에 의하여 시상되며, 건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개인이나 그룹에게 수여된다. 두 수상자의 세계 건축사로써의 영향력과 함께 스위스에서 그들의 작품 활동, 2000년 테이트 모던 뮤지움 프로젝트, 그리고 2003년 라반댄스 센터를 통한 스틸링상, 그리고 바셀로나에서의 그들의 최근 작품 및 현재 진행 중인 작업, 그리고 동경과 북경에서의 공적에 따른 결과이다.

리버풀 재생 계획 전시



리버풀 도심 모델

영국 리버풀에서는 도심 재생을 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리버풀의 비전을 보여주며, 세계적 해변으로 변모할 모습을 전시하고 있다. 이 개발 계획은 £2억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흥미로운 공공 공간을 만들어 국제적 방문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덴마크 건축사사무소 3XN에 의하여 뮤지움에 설계 되었으며, 운하의 확장 계획, 그리고 공공 기능을 갖춘 부두 선착장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과 애니메이션에 의하여 전시가 되고 있으며 상세한 계획 내용들을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건축 이미지 전시회 - Architecture in Perspective 21

시카고 건축재단은 ‘ Architecture in Perspective 21 ’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는 시카고의 존 벅 회사의 갤러리에서 11월 초까지 열렸다. 미국 건축 삽화 동

호회의 지원에 의한 이번 전시회는 건축 도면과 시각화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전시회이다. 5개 대륙 500개 작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위원들은 60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기타 초청 작품이 추가적으로 전시되었다. 심사자는 건축사, 삽화가, 사진작가 등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올해 전시는 2차 세계대전 기념관인 ‘ 2006 휴페리 기념상 ’ 수상자 데니스 알라인에게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시상은 디지털 랜더링 기법을 이용한 작품에 주어졌다. 심사자상, 형식 부분과 비형식 부분, 그리고 신인 멤버상 등 다른 6개의 부분의 작품들도 또한 전시되어 있다. 54개 작품들이 우수상을 수여 받았으며, 디지털 미디어로부터 연필과 잉크, 그리고 수채화로부터 디지털 프린트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수상하였다.

중국 중앙 방송 본부 건물 전시회



중국 중앙 방송 투시도

뉴욕 현대 예술 뮤지움은 OMA 설계에 의한 중국 중앙 방송국(CCTV) 프로젝트 전시를 필립 존스 건축 및 디자인 갤러리에서 열고 있다. OMA는 1975년 렘 쿨하스와 그의 동료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뉴욕 현대 뮤지움과 공동으로 주최된 이 전시회는 중국의 CCTV 프로젝트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거대한 시공 사진과 함께 실내 랜더링과 모델 등이 미국에서는 처음 전시되고 있다. 이 전시회에서는 CCTV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문화적 역사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형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으로 고층 건물 재창조를 위한 도전의 예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건물의 기능과, 공간적 구성 등에 관하여 완전한 새로운 발상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사회적 그리고 도시적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

에 두고 계획되었다. OMA는 2002년 CCTV 본부 건물 국제 현상에 당선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04년 9월에 착공 되었으며, 2008년 북경 올림픽에 맞추어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 후에 CCTV 본부는 매일 10,000명의 스태프와 방문객을 맞이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250개 채널을 방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북경 도심 지역의 215만 ft² 대지 위에 6백만 ft²의 연면적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 건물은 CCTV 건물, TV 문화센터, 그리고 서비스 빌딩의 세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지는 주위 미디어 공원으로 둘러 쌓여 있어 외부에서의 촬영과 공공 이벤트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전시는 현대 예술 뮤지움의 심층 전시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 시리즈는 지역 및 국제적 관심이 있는 단일 현대 건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획 전시되고 있다. 전시되는 프로젝트는 건축적 문맥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예지적인 건물로 도시와 사회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미래 디자인전: ENTRY2006

“ 미래에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제품이 있을 것이며, 어떠한 집이 등장할 것이며, 어떠한 디자인이 있을 것인가? ”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100일간의 전시회가 독일 에센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에



미래 전시관 내부

서 20개국 300작품이 전시되었다. 이들 작품 중에는 혁신적 제품, 재료, 기술, 아이디어와 미래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건축계와 디자인계의 인사, 그리고 문화와 과학분야에서의 국제기구의임원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이 전시회는 산업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전시회이기도 하다.

과거 석탄 공장이었으며 줄베린 세계 문화유산 부지로 램쿨하스에 의하여 국제센터로 새로이 단장 되었다. 새 건물들은 3년간의 공사를 통하여 처음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방문객은 58미터의 긴 강도를 따라 전시회장에 들어가게 되며, 맨 꼭대기에는 전체 사이트를 볼 수 있다. 이 전시회는 정부의 비즈니스 증진과 지역 개발에 대한 노력을 알리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디자인이 경제 개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와 건축 설계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의 출시는 보다 중요시 되고 있으며, 추한 것은 팔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좋은 디자인이 판매의 중요 요소로 인식된다. 이 전시회는 다음 10년 20년을 대비하여 미래 비즈니스를 위한 경향을 읽고, 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전시회이다.

신간도서 - 디자인을 위한 재료

자재의 선정은 오늘날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며, 일반적으로는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 최근 통합적 설계 · 시공 과정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적인 부분과 재료의 관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책 'Materials for Design'은 디자인과의 관계를 통한 재료에 관한 기초 지식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유리, 콘크리트, 나무, 금속, 그리고 플라스틱의 5가지 분야로 되어 있다. 디자인을 위한 재료로 각 재료의 특성, 역사, 변형, 생산 기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세계의 가장 혁신적 건축사들의 60가지 예를 통하여 이들 재료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보여 주고 있으며, 각 건물에서의 형태와 구조에 선정된 재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VM+SD 점포 혁신 공모전

VM+SD 출판사는 모든 설계사, 시공사 그리고 소매업자들에게 혁신적 상업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한 제출을 받고 있다. 혁신적 소매점 프로젝트 제출은 식품점, 백화점 등으로 2006년 1월 부터 2007년 1월까지 완공된 건물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접수를 위하여는 '이전', '진행' 그리고 '이후' 등의 완공 과정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기한은 2007년 3월 19일이다. 각 분야에서 수상작이 선정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올해의 혁신' 작품이 선택될 것이다. 선정된 작품은 2007년 9월 호에 게재될 것이며, 또한 아틀란타에서 9월 19~21일 사이에 열리는 2007년 국제 소매자인 컨퍼런스에 서 발표 기회가 주어진다.

디지털

아도비사, 경량의 PDF 리더 발표

아도비사는 아크로벳 리더의 경량 버전인 디지털 에디션을 발표하였다. 이 버전은 플래시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플래시에서 PDF 파일을 열 수 있다. 현재 각 페이지를 다양한 크기로 열어볼 수 있으며, 내용 검색을 할 수 있다. CAD 도면은 2D PDF로만 볼 수 있다. 아도비사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으로 출시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설치만이 가능하며, 이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확인하며, 그리고 광고를 전시하게 된다.

- 디지털 에디션의 다운로드 사이트:
<http://labs.adobe.com/technologies/digitaleditions/install/>

무료 CAD 소프트웨어

Think3사는 무료로 free2Design을 배포하고 있다. 이 무료 배포는 전세계적으로 행

하여지고 있으며, 영어 버전만이 가능하다. 이 회사에 따르면, free2Design은 중국과 인도 시장을 겨냥하여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UGS사는 Solid Edge 2D Drafting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Delcam사는 서피스 모델러인 PowerShape - 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로 3D CAD 사들이 무료 2D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2D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친숙한 사용자의 인식을 주고 자하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2D 소프트웨어는 3D 버전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료 2D 소프트웨어 사용자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이를 3D CAD 의 매출과 연계 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 free2Design 다운로드 사이트:
<http://www.free2design.org/>
- 무료 소프트웨어 정보:
www.freecad.com

무료, CAD, 그리고 스파이웨어

인터넷에는 무료 검색엔진, 무료 뉴스레터 그리고 무료 CAD 소프트웨어가 있다. 많은 경우 그 비용은 광고를 통하여 충당되기도 하다. 그러나 진정한 수익원은 데이터 마케팅이다.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라이브 모두가 무료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사용자들이 클릭하는 것을 비교하고, 검색 단계, 그리고 어떤 페이지를 보고 있는가를 알아낸다. 이러한 사용자에 대한 행동이 파악된다. 예를 들어 구글의 페이지 랭크 작업의 경우 구글은 검색 단어와 함께 사용자가 클릭하는 주소를 근거로 다른 수 많은 다른 검색 단계와 클릭의 결과와 비교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행동은 정보 수집, 추적과 판매에 연결된다.

CAD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예를 들어 think3사의 free2Design을 사용할 경우 사용 명령어에 대한 데이터를 보낸다. AutoCAD 2006과 2007의 경우 사용자가 컴퓨터를 시작할 때 오토 데스크 서버에 정보를 보낸다. 사용자의 어떠한 정보가 보내지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오토 데스크 사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 명백한 것은 오토데스크사가 어떤 고객인 AutoCAD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오토데스크사의 재정을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DBIA 컨퍼런스

DBIA (Design - Build Institute of America) 컨퍼런스와 전시회가 지난 10월 미국 테네시 내쉬빌에서 열렸다. DBIA는 1993년 발족된 기관으로써 설계와 시공 분야에서의 보다 협업이 강화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단체이다. Design - build는 이 협회에서 정의한 바로는 건축, 엔지니어링, 시공 서비스를 하나의 단일 계약으로 묶어 진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디자이너와 시공사의 역할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올해의 14주년 행사에는 1,300명이 3일 컨퍼런스 기간에 참여하였다. 올해에 BIM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는 design - build 부분이 새로운 기술과 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이에 따라 BIM 부분의 컨퍼런스를 조만간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AIA CBSP의 BIM 심포지움 개최

지난 10월 미국 AIA의 CBSP (Center for Building Science and Performance)는 워싱턴에서 장래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사용한 에너지 효율성과 건물의 높은 성능의 기술로 관한 심포지움을 열었다. BIM은 건물에 대한 표현 다양한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의 성능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친환경적 건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황에서 에너지 분석이 연구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기술이 기도 하다.

이 심포지움의 목적은 건물의 성능에 대한 현재 BIM의 상황과 이 분야에서 미래 사용 가능성을 타진하여, 센터가 앞으로 어떤 분야의 연구를 지원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심포지움은 다양한 산업체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GSA, SOM,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 조지아 공대, 녹색 건물 스튜디오, 게리 테크놀로지

등이 참석하였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토론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달의 주제인 '미래의 건설'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었다.

이 심포지움은 세 가지 주 발표로 이루어졌다. 첫 째는 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의 관계자에 의한 발표가 있었다. 이 기관에서의 현황과 보다 구체적으로 BIM이 현재 시설 에너지 효율성 디자인에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발표되었다. 두 개의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정부 건물로, 현재 시공 중이며 2007년 완공될 예정인 건물과 쉼트레이크 시티의 연방법원 건물로 현재 개념 설계 단계의 건물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정부의 건물은 일반 건물 절반에 에너지만을 사용하고 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은 자연 조명과 환기를 위한 최적의 폭으로 설계되었다. 쉼트레이크 시티의 연방법원은 현재 개념 설계 단계이며, GSA가 에너지 효율 디자인의 분야에서 BIM을 사용하는 좋은 시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건물은 친환경적 건물로, 에너지 성능에서 중요한 요소인 차양 도구의 설계와 재료의 선택을 우선으로 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녹색 건물 스튜디오의 존 케네디에 의한 발표로, 웹 기반 서비스로 ArchiCAD와 Revit을 포함한 다양한 BIM 소프트웨어로부터 gbXML 파일로 보내져 기존의 에너지 분석을 위한 DOE - 2, eQuest와 EnergyPlus 등의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성능 평가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방식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 세 번째 주요 발표로는 게리 테크놀로지의 말콤 데이비스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이는 에너지 효율보다 BIM의 주제에 관하여 초점이 맞추어졌다.

벤틀리사 - 2007년 학생 디자인 공모전 일정 발표

BE 경력네트웍은 2007 BE 우수학생 공모전을 발표하였다. 4명의 선정자는 2007 BE 컨퍼런스 기간인 4월 29 - 5월 3일 열리는 기간에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수

상을 하게 된다. 공모전은 대학부와 고등학교 부분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다. 이 세상은 증가하는 사회의 하부 구조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건축사와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야에서의 학생들의 진출을 돕기 위한 특별한 공모전으로 개최하고 있다. BE 우수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모전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같은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실제 세계의 기반 구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건축, 엔지니어링 (토목, 구조, 그리고 지구 과학), 그리고 수자원의 세 가지 부분에서의 프로젝트 디자인을 제출할 수 있다. 수상작은 각 분야에서 선정될 것이다. BE 경력 아카데미 섹스 크립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디자인 완성을 위하여 50여 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공모전은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에 의하여 심사될 것이다.

새로운 스캐너 ZScanner(tm) 700

Z Corporation은 새로운 제품 ZScanner(tm) 700를 발표하였다. 이 제품은 Popular Science 지에서 인정을 받았으며, NASA Tech Briefs 에도 제품이 소개되었다. Popular Science 지는 이 제품을 올해의 새로운 제품 상으로 지명되었다. 이는 올해의 수많은 제품 중에서 가장 탁월한 제품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이 제품은 손으로 잡고 작업을 할 수 있는 3D 스캐너이다. 이 제품은 패키지 디자인, 리버스 엔지니어링 및 시공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스캐닝을 하는 도중 제품을 이동시킬 수도 있다. 이 제품의 속도와 이동성은 일반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에서도 사용 가능성이 있다. 환자 의 신체에 대한 스캐닝을 실시간에 수행하여 보조 기구 등을 만들 수 있다. NASA Tech Briefs 에서는 2006년 10월 이달의 제품으로 지명되었다. 

<제공: 윤기병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2006년 건축허가 현황(10월)

■ 용도별

(단위: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0월)			누계 (1~10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1,282	14,729	30.6%	106,375	151,372	42.3%
	연면적	9,090,004	7,353,116	-19.1%	86,463,084	107,584,260	24.4%
주거용	동 수	2,997	4,382	46.2%	30,448	43,032	41.3%
	연면적	3,943,580	2,657,705	-32.6%	37,342,303	42,925,272	15.0%
상업용	동 수	3,324	4,696	41.3%	31,989	46,077	44.0%
	연면적	1,703,728	1,988,460	16.7%	19,012,220	26,520,677	39.5%
공업용	동 수	1,706	1,621	-5.0%	16,507	21,951	33.0%
	연면적	1,088,481	1,044,251	-4.1%	11,156,198	13,629,344	22.2%
문교및 사회용	동 수	1,050	964	-8.2%	8,053	10,027	24.5%
	연면적	1,225,572	701,704	-42.7%	8,206,009	9,616,119	17.2%
기 타	동 수	2,205	3,066	39.0%	19,378	30,285	56.3%
	연면적	1,128,643	960,996	-14.9%	10,746,354	14,892,848	38.6%

■ 구조별

(단위: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0월)			누계 (1~10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1,282	14,729	30.6%	106,375	151,372	42.3%
	연면적	9,090,004	7,353,116	-19.1%	77,373,080	107,584,260	39.0%
철 근 철골조	동 수	9,891	12,120	22.5%	93,174	130,469	40.0%
	연면적	8,980,122	7,154,331	-20.3%	85,351,903	105,838,872	24.0%
조적조	동 수	1,193	1,943	62.9%	11,301	16,550	46.4%
	연면적	92,900	151,181	62.7%	924,029	1,309,536	41.7%
목 조	동 수	198	572	188.9%	1,893	4,074	115.2%
	연면적	16,982	42,827	152.2%	186,464	350,379	87.9%
기 타	동 수	0	94	0.0%	7	279	0.0%
	연면적	0	4,777	0.0%	687	85,473	0.0%

■ 시도별

(단위: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0월)			누계 (1~10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1,282	14,729	30.6%	106,375	151,372	42.3%
	연면적	9,090,004	7,353,116	-19.1%	86,463,084	107,584,260	24.4%
수도권	동 수	3,359	4,286	27.6%	32,922	49,181	49.4%
	연면적	2,986,792	2,609,460	-12.6%	37,172,213	44,008,083	18.4%
서 울	동 수	617	700	13.5%	6,069	8,429	38.9%
	연면적	530,152	518,436	-2.2%	8,849,430	11,522,143	30.2%
인 천	동 수	305	367	20.3%	3,054	3,816	25.0%
	연면적	264,261	224,452	-15.1%	3,611,416	3,869,633	7.2%
경 기	동 수	2,437	3,219	32.1%	23,799	36,936	55.2%
	연면적	2,192,379	1,866,572	-14.9%	24,711,367	28,616,307	15.8%
지 방	동 수	7,923	10,443	31.8%	73,453	102,191	39.1%
	연면적	6,103,212	4,743,656	-22.3%	49,290,871	63,576,177	29.0%
부 산	동 수	441	337	-23.6%	4,174	5,000	19.8%
	연면적	845,736	217,833	-74.2%	4,524,968	8,436,881	86.5%
대 구	동 수	412	496	20.4%	3,977	5,062	27.3%
	연면적	720,007	813,412	13.0%	6,293,739	6,036,890	-4.1%
광 주	동 수	309	358	15.9%	2,886	3,767	30.5%
	연면적	148,719	444,332	198.8%	2,387,532	3,503,227	46.7%
대 전	동 수	267	345	29.2%	2,370	3,234	36.5%
	연면적	338,641	308,534	-8.9%	2,094,540	2,593,011	23.8%
울 산	동 수	290	358	23.4%	2,773	3,911	41.0%
	연면적	128,940	74,748	-42.0%	1,472,817	2,106,846	43.0%
강 원	동 수	616	977	58.6%	5,811	8,588	47.8%
	연면적	282,659	386,444	36.7%	3,772,052	4,138,898	9.7%
충 북	동 수	558	982	76.0%	6,194	9,047	46.1%
	연면적	874,136	386,072	-55.8%	4,468,713	4,598,731	2.9%
충 남	동 수	783	1,068	36.4%	7,596	10,881	43.2%
	연면적	699,848	438,587	-37.3%	5,757,817	7,215,859	25.3%
전 북	동 수	538	1,019	89.4%	5,673	9,181	61.8%
	연면적	185,977	335,730	80.5%	2,980,690	3,412,912	14.5%
전 남	동 수	694	1,061	52.9%	6,432	10,377	61.3%
	연면적	146,574	231,626	58.0%	2,065,350	3,926,314	90.1%
경 북	동 수	1,511	1,667	10.3%	11,695	15,901	36.0%
	연면적	574,507	527,883	-8.1%	5,583,688	6,841,258	22.5%
경 남	동 수	1,210	1,475	21.9%	11,331	14,181	25.2%
	연면적	1,038,766	510,515	-50.9%	7,080,662	9,860,107	39.3%
제 주	동 수	294	300	2.0%	2,541	3,061	20.5%
	연면적	118,702	67,940	-42.8%	808,303	905,243	12.0%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사무소수, 회: 회원수)

2006년 10월말

구 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무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065	5,065	152	304	24	76			5,241	5,445	1,480	269	538	69	207	33	132	32	212						1,883	2,569	7	7	7,124	8,014	100.0%	100.0%
서울	1,117	1,117	41	82	10	31			1,168	1,230	843	843	172	344	40	120	20	80	18	126					1,093	1,513	6	6	2,261	2,743	33.2%	35.4%
부산	486	486	17	34	5	16			508	536	82	82	16	32	5	15	4	16	4	23					111	168			619	704	8.9%	9.1%
대구	422	422	24	48	6	19			452	489	53	53	22	44	6	18	1	4	2	10					84	129			536	618	7.3%	7.5%
인천	235	235	2	4	0	0			237	239	49	49	6	12	0	0	0	0	0	0					55	61			292	300	3.9%	3.5%
광주	213	213	2	4	0	0			215	217	33	33	7	14	1	3	2	8	3	17					46	75			261	292	3.5%	3.6%
대전	199	199	16	32	1	3			216	234	25	25	10	20	3	9	0	0	1	12					39	66			255	300	3.6%	3.7%
울산	161	161	7	14	1	3			169	178	16	16	4	8	1	3	0	0	0	0					21	27			190	205	2.6%	2.5%
경기	666	666	7	14	0	0			673	680	213	213	17	34	4	12	1	4	1	5					236	268			909	948	12.7%	12.1%
강원	159	159	3	6	0	0			162	165	21	21	3	6	0	0	0	0	1	5					25	32			187	197	2.5%	2.4%
충북	176	176	8	16	0	0			184	192	25	25	2	4	1	3	1	4	2	14					31	50			215	242	2.9%	2.9%
충남	163	163	4	8	0	0			167	171	33	33	1	2	1	3	3	12	0	0					38	50			205	221	2.7%	2.6%
전북	188	188	3	6	0	0			191	194	21	21	2	4	2	6	1	4	0	0					26	35			217	229	2.8%	2.6%
전남	132	132	0	0	0	0			132	132	8	8	0	0	2	6	0	0	0	0					10	14			142	146	1.9%	1.7%
경북	304	304	7	14	1	4			312	322	29	29	2	4	1	3	0	0	0	0					32	36	1	1	344	358	4.6%	4.2%
경남	345	345	11	22	0	0			356	367	21	21	5	10	2	6	0	0	0	0					28	37			384	404	5.2%	4.9%
제주	99	99	0	0	0	0			99	99	8	8	0	0	0	0	0	0	0	0					8	8			107	107	1.5%	1.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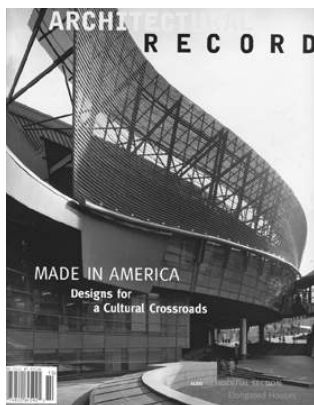
구 분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014	10	8,024	100.0%	23
서울	2,743	3	2,746	35.4%	10
부산	704	1	705	9.1%	9
대구	618	0	618	7.5%	0
인천	300	0	300	3.5%	0
광주	292	0	292	3.6%	0
대전	300	1	301	3.7%	0
울산	205	0	205	2.5%	0
경기	948	2	950	12.1%	2
강원	197	0	197	2.4%	0
충북	242	0	242	2.9%	0
충남	221	3	224	2.6%	0
전북	229	0	229	2.6%	0
전남	146	0	146	1.7%	0
경북	358	0	358	4.2%	1
경남	404	0	404	4.9%	1
제주	107	0	107	1.4%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445	2,569	74	8,088	
비 율	67.32%	31.76%	0.92%	100.0%	
사무소수	5,241	1,883	-	7,124	
비 율	73.57%	26.43%	-	100.0%	

ARCHITECTURAL RECORD

10월호



Architectural Record 10월호는 ‘모든 미주인들(all American)이 공감하고 있는 이슈들과 문화시설과의 교집합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주도적인 양상을 표현하는 요소로 교차로(crossroads)라는 개념을 들어설명하고있다. 즉인종, 계층, 장소, 정치적 성향과 건축에서 보이는 복잡한 다양성들이 어떻게 미국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보이고 있는것이다. 이를위해광장히다른건축어휘를 사용하는 렌조 피아노와 모포시스, 오랜만에 작품을 보이고 있는 레온 크리에 등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작가적 개성을여전히발산하면서도 그들 작품에서 보이는 것들이 바로 미국적 다양성으로부터자유롭지못함을증명하며, 이를 통해 공존을 통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의도를시사하고있다.

■ 신간서적 리뷰

이번호는어떻게전쟁과파괴행위를겪은도시가우리가현재거주하는‘장소들’을만들어내고있는가에대한메카니즘의설정과실증에 관련된여러가지서적들이소개되고있다.

- The Destruction of Memory : Architecture at War , by Robert Bevan,:Reaktion Books, 2006
- The Arc: A Formal Structure for a Palestinian State, by Doug Suisman 외4인, Rand Corporation, 2006
- Structure and Meanings in Human Settlement, edited by Tony atkin 외1

인, Upenn Press, 2005

- Informal City: Caracas Case, edited by Alfredo Brillemboug 외 2인, Prestel Publishing, 2006

■ 작품 리뷰

미국이라는상황의다양성에대한 건축사의 반응을흥미롭게보여주는건축물로렌조피아노의 Morgan Library 증축안(맨하탄, 뉴욕), 모포시스의신시내티 대학 캠퍼스 레크리에이션 센터(신시내티), 레온 크리에의 Jorge M. Perez Architecture Center(마이애미), Patkau 의 Grand Bibliotheque(몬트리올), 그리고 Gould Evans와 Wendell Burnette 의 Palo Verde 도서관과 Maryvale 커뮤니티 센터가제시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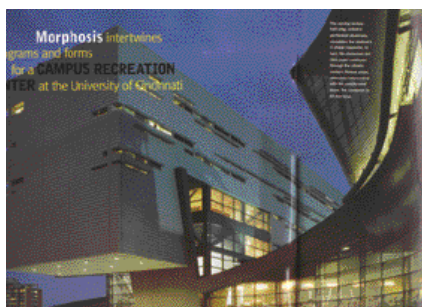
Morgan Library는 그간 현대의 미술관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렌조 피아노가 뉴욕의 파편화라는특이성을 상황적 인식에서 나아가 역사적 맥락에서 결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이트는 J.P. Morgan이 1884~1904년 사이에 구입한건물과 1928년벤자민 위스터모리스가이건물에부가적으로첨가한부속 건물과 중정에 위치하고 있으며, 렌조 피아노는이부속건물과원래도서관건물인맥킴, 매드 앤 화이트 라이브러리를 연계하고 있다. 투명도가 높은 저철분 유리를 중앙 큐브에 둬으로써 사이트 주변의 역사적 구조의 특성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새로운 건축물이 이전 건물



Renzo piano-morgan library expansion

들에 비해 지나치게 도드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단단한 기반암을 가지고 있는 뉴욕에서 공연 홀을 지하에 위치시켜 높이는 낮추는 대단히 수고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다. 한편 이 디자인에서 렌조 피아노는 그가 자연광을 다루는 재주가 남다른 것을 여지없이 확인해주고 있는데, 이는 큐브에서의 빛의 처리나 1928년 건축부를 전용한 열람실의 톱라이트 처리 방식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주변 맥락의 처리 방식을 통해 렌조 피아노는 도시적 삶을 반영하는 도시의 일부분으로서의 건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관습적 디자인과 역사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뉴욕의 정체성에 대한 건축적 대안을 실현시키고 있다.

신시내티 대학의 캠퍼스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모포시스는 학생들이라면 기대할 만한 기능들의 모든 조합들을 거의 경이로움의 스케일로 결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 스타일적 특징을 드러내지 않지만 도시에서의 캠퍼스가 보이는 대표성을 반영하여 마스터플랜상의 기대들을 충족시켜내고 있다. 건물은 ‘내부적으로는’ 기숙사와 강의실, 수영장, 스파, 피트니스와 요가, 라켓볼과 스쿼시, 농구 코트와 트랙과 같은 레저 시설, 푸드 코트와 편의점들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기존의 스타디움과 주변 건물들과 최대한 가까이 위치시킴으로써 주변과의 건물들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결절점이 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하부의 처리나 강의동 외부의 울동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 동시에 스타디움의 동적 흐름과 연결되는 - 루버의 처리 방식, 건물 하부에서비스타가 연결되는 방식 등에서 이 소통과 연계의 의도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훌륭하게 드러나고 있다.



Morphosis - campus recreation center



Leon Krier - architecture center

레온 크리에의 Jorge M. Perez 건축센터는 이전에 다른 두 건축사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주변과의 연계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렌조 피아노가 기존의 건축물에 남겨진 것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모포시스가 프로그램상의 강력한 결합을 통해서 연계를 구현하고 있다면, 레온 크리에에는 그가 견지해온 유형학의 특성을 고수하면서 고전 건축의 특징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근거들 사이의 결절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공간 배치상으로는 중심성을 가진 팔각형의 강의홀과 갤러리와 강의실을 가지고 있는 장방형의 건물을 결합하여, 선형과 중심형의 결합이라는 서양 고전 건축의 기본적인 성향들을 근대적 관점으로 연관시키고 있다.

ARCHITECTURAL REVIEW

10월호

문화를 ‘오래된 것들의 소비’로 정의했던 키니코스 학파의 자유주의적 견해는 정의를 내린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지만, 문화의 수용체인 건물, 특히 미술관이 역사에 기반한 사물들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상황과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MoMa와 V&A가 그것의 폴 네임

(Museum of Modern Art / Victoria & Albert Museum)보다 더 큰 반향을 가지는 것은 그 공간들이 가지는 어떤 대표성 때문일 것이다. Architectural Review 2006년 10월호의 주된 관심은 대표성이 도시와 연계되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기를 추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화적 시설은 그것이 수용하고 있는 ‘역사적’ 대상들에 대한 ‘동시대적’ 시각을 보여주며, 이런 공간들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역사나 성향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도시 안에서 문화 시설은 역사와 현재에 대한 동시적 반응임을 증거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 시설의 방점을 문화 ‘시설’로 봤을 때의 새로운 가능성과 양상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comment

하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by Peter Buchanan

이론가들의설전은나름대로의전투적성격 때문에 재미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가지는 서로 다른 역사적 관점과 어떤 이론이 역사로 이행되기까지의 숙성과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번호의 피터부캐년의에세이는지난호의찰스젠크스의 의견에 대한 직격탄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는 건물이 하나의 아이콘으로 읽힌다는 것은그 건물이 어떤방식으로든그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대 건축사들은이격리의방식을충격의요법을 사용하여 건물들을 지어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그 건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결방식이나 대표성을 가질 수 없게 되며, 그런차원에서아이콘으로설명하는찰스젠크스의 방식이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이번호에서 다루고 있는 렌조피아노의하이뮤지움증축안과리차드마이어의Ara Pacis 박물관등에 대한비판적 견해들이가지는이론적바탕이바로젠크스와 동일한 뿌리를 가지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Renzo piano-high museum expansion

■ 작품리뷰

이번 Review 지의 이슈는 ‘도시에서의 문화’이다. 이것이 건축화의 과정을 거치는 데에있어리뷰지는문화의태생지와전시되

는 방식의관습성이라는 기준으로 작품들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장 누벨의 선사박물관(파리)은이국적문화의체험과학습을다룬다는점에서, 리차드마이어의Ara Pacis 박물관(로마)은 자국의 문화 유적의 보호를 위해지어졌다는점에서, UN 스튜디오의벤츠 박물관(스튜트가르트)는 전시방식에서의관습을탈피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한 사례들이다.

장 누벨의 선사미술 박물관은 프랑스의 대통령에의해주도되는건축프로젝트전통의 가장 최근 결과물이다. 건축사는 ‘장착’이라는방식을통해이국적인수집품들의놀라움과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녹화된 입면은 원시 혹은 선사라는 것에대한서구가가지고있는 ‘이미지’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양 옆에 있는 기존 건물의 파사드와 충돌하는 형식으로 된 입면을 가지고 있는 노변의 건물과 220m에 달하는 전시홀, 전시홀 하부의 출입 파빌리온과 카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느강과 에펠탑과 같은 주변 요소들에 대한 조응을 시도하고 있다. 장 누벨은 전시홀을 디자인함에 있어 영화적 경험-시간과 공간의 직조와 뒤섞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들이 전체성으로 인식되기를 바랐다. 그런 의도는 상당부분 구현되고 있으며, 장누벨은궁극적으로전시물들이스스로말하는단계의전시공간을만들어내고있다.



Jean Nouvel-quai Branly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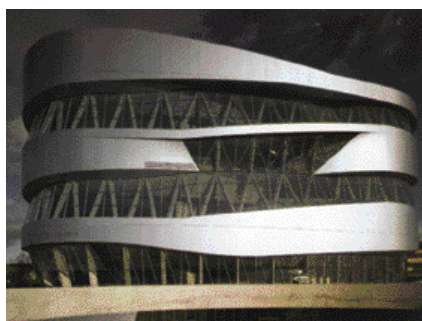
외부로부터의건축에대단히보수적입장을견지했던이탈리아건축의역사적배경과 로마 건축에의 자긍심을 생각해보면, 다른 이탈리아 건축가를제쳐두고고전건축을 반대하던 코르비제를가장 성실하게 수용하고 있는마이어가로마의역사적유물을보호하

기 위한 박물관의 디자인을 맡았을 때의 극렬한반대는어느정도이해할수있다. Ara Pacis는 평화의 제단(Altar of Peace)라는 의미로 로마의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지어졌다가, 붕괴되었다가 파시즘의 국가주의적성격에따라무솔리니에의해원래 있었던 자리 근처에 재건되었다. 사이트의 콘텍스트가 굉장히 복잡한데, 무솔리니 시기에아우구스투스의영묘주변에등근행태의광장이파시스트특유의신고전주의성향으로 완성되고, 이광장의 서쪽 끝에 같은 시기에 지어진 Murgugli의 건물이 티베르강둑과 대치되는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마이어는 험난한 사이트 조건에 맞추어 리셉션 공간과 제단을 전시하는 공간, 오디오로움으로 구성된 좁고 긴 건물을 만들고 제시하고 있다. 리셉션 공간은 적절한 어두움과 열주를 통해 원래 외기에 노출되었던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전시 공간은 최대한 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시에 그리드 형태의 창틀과 상부의 처리를통해공간의근대적모듈레이션을보여주고있다.



Richard Meier-Ara Pacis Museum

UN 스튜디오의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은 자동차에 의한 인간의 지각 변화와 이것이가져온생활양식의변화의계보를추적하는 작업이다. 이 박물관에서 방문자는 대상과 움직임, 역사와공간의 종합적 경험을하게되어 있는데, 사이트 또한 120여년 전에이회사가처음의자동차를주행했던장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전체적으로 두 개의 나선이 중심부를 휘감으며 9개의 레벨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같은 레벨에서 공간은 꼬인 세입 클로버의 형태를 취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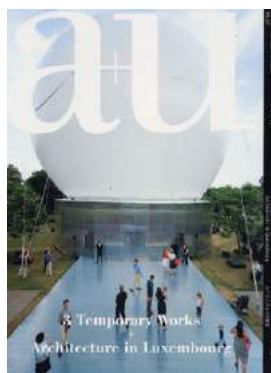
UN studio-mercedes benz museum

다. 외부에서 보면 알루미늄 패널로 마감된 부분과 개구부의 6각 단면을 가지는 역V자 형태의 기둥들이 서로 바느질로 꿰매듯이 구조적으로 직조되어 있다. 자연광을 도입하는 방식도 매우 교묘해서 빛을 통해 내부의 금속적 마감에서 보이는 건물의 조각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건물 안을 당신이 ‘주행’ 하게 될 때, 당신은 이 건물이 트랙을 내부에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미스와 스텔링을 넘어 UN 스튜디오는 스투트가르트 의 오늘을 규정할 새로운 건축을 완성한 것이다.

(글/김훈/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인천전문대출강) ㉮

a+u

10월호



이번 호는 최신 작 소개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소특집을 마련하고 있다. 최신작에서는 미국의 산업도시 미네아폴리스에 새로 이전한 거쓰리 극장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집으로는 ‘임시 건축물’과 ‘룩셈부르크의 건축’ 두 가지가 꾸며졌다. 임시 건축물인 쉘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언은 표지를 장식했고, 룩셈부르크 건축에 대한 소개는 최근 EU의 주요 기관들이 들어서는 키르히베르크 평원지대의 도시개발과 이 지역의 최신작들이 다루어졌다.

■ 특집: 칠레-머나먼 남쪽

▶ 거쓰리(Guthrie) 극장 - 장 누벨(Jean Nouvel) 설계, 미네아폴리스, 미국, 2001-2006

거쓰리(Guthrie) 극장. 외관부터 심상치 않다. 짙은 군청색 외피에 마치 공장 건물을 연상시키는 이 외관은 통상의 극장 건축이 보여주었던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 여기에 건축사 장 누벨의 거쓰리 극장과 극장이 위치한 미네아폴리스에 대한 해석과 설계 개념이 담겨져 있다.

현재의 거쓰리 극장은 미네아폴리스의 발원지가 된 공업지대의 폭포 근처 오래된 제분공장에 가까이 위치하며, 이는 역사적인 황금사각형 지역에 이전한 것이다. 이로써 2개의 역사와 2개의 전설 즉 굴뚝 산업과 문화 산업이 하나가 되어 만나는 것이다. 거쓰리는 극장이 일종의 산업이며 여러 기능이 연결되어야 작동되는 세트와 거대한 화물차를 갖춘 생산 설비임을 보여준다. 극장은 스펙

터클을 구성하고 보여주는 과정인 것이다. 건축적으로 이 과정은 산업 시설과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미네아폴리스는 역사가 되풀이되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하천 유역에서 발달한 산업이 예전의 명성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문화가 오늘날의 이미지와 매력을만 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거쓰리 극장의 외관이 그 크기와 색채에 있어서 사일로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이유이다. 또한 공용 로비가 폭포를 살펴 볼 수 있는 전망대이자 공장의 연결 다리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점 등 새로운 거쓰리 극장은 산업 시설로서의 은유적 표현이 담겨 있다. 그러나 남겨진 건축은 노스텔지어 없는 건축이다. 사용된 역사적 참조물들은 오히려 새로운 발명과 21세기의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구실이 되었다. 역사와 모더니티가 공존하는 형태로 거쓰리 극장은 사일로와 다리들 사이에서 21세기 초 미네아폴리스의 문화를 이끌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거쓰리(Guthrie) 극장

▶ 쉘펜타인(Serpentine) 갤러리 파빌리언 2006 - 렘 쿨하스(Rem Koolhaas)+세실 발몬트(Cecil Balmond), 런던, 영국, 2006

쉘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언 2006은 쉘펜타인 갤러리에 세워진 임시 건물이다. 346m²의 이 건물은 주간에는 오디오리움을 겸한 카페로, 야간에는 이벤트 장소로 사용된다. 이 구조물은 총 플로어 플랫폼(Floor



씨펜타인 갤러리파빌리언 2006

platform), 원형으로 둘러싸는 벽(Circular wall enclosure), 공기로 부풀려진 루프 캐노피(Inflatable roof canopy) 등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파빌리언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위의 세 가지 구성요소중바로 헬륨과 공기를 섞어 넣어 띄워진 기구모양의 지붕일 것이다. PVC코팅된 반투명의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이 기구모양의 지붕은 주간에는 적당한 밝기의 빛을 내부로 들여보낼뿐만 아니라 가설구조물이 지탱해야 할 하중을 경감시켜 기초공사에 대한 부담 또한 덜어주고 있다. 전동기에 연결된 로프로 고정된 이 떠있는 지붕은 그 높이가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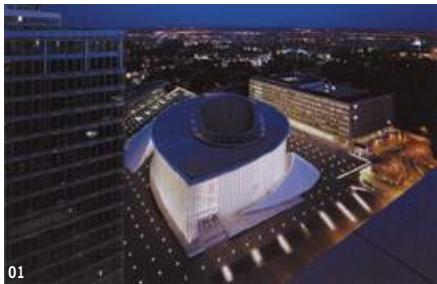
이 가능하다. 가변성, 가벼움 등 임시건물의 요소를 고루 갖춘 건축이라 할 수 있다.

▶ 룩셈부르크의 건축

룩셈부르크는 국가 자체의 크기가 작고, 몇 안 되는 도시를 갖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규모 도시계획은 이루어진 예가 없었다. 그 대신 룩셈부르크 내의 도시들은 독일의 트리에, 자르브뤼켄, 프랑스의 메츠를 엮는 콤팩트 폴폴어번네크워크를 결성하여 국경을 초월한 협력관계 속에서 경쟁력과 자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룩셈부르크 정부는 앞으로 닥칠 도시문제에 대비하여 여러 기금을 설립해 두었고, 룩셈부르크시의 키르히베르크(Kirchberg) 평원의 도시개발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제까지 농경지였던 키르히베르크는 1950년대 이래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EU의 주요시설을 수용하는 장소로서 선출됨으로써 여러 저명 건축사 팀에 의해 역사적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는 성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활기찬 도시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다음의 단계에

서는 키르히베르크의 정주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현재 이 도시의 노동력 인구는 거의 20,500명에 이르지만 거주자는 2,0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팽창하고 있는 3차산업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발계획은 주거공간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키르히베르크 기금에서 작성한 키르히베르크 평원의 도시개발 역사에 대한 에세이와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홀(크리스티앙포잠박설계)과 그랑뒤익장근대미술관(페이콧 프리드 & 파트너스 설계) 등 키르히베르크에 최근 완공된 건물들과 국립역사예술박물관(CBA - 크리스티앙 바우어 & 어쏘씨에 아키텍츠 설계) 등 룩셈부르크에 완공된 최신작들을 소개하고 있다. 



01

01, 02_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홀
03_ 그랑뒤익장 근대미술관
04_ 국립역사예술박물관



02



03



04

건축마당

자재정보

Product Information

건축용내·외장재‘ 스피릿블록 ’ 블록식조적방법으로시공간편하고자연질감느낌



스피릿블록은 건축용 내외장재로서 미국이나 유럽지역에서는 1970년도 이전부터 건축용 자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4~5년전부터 설계에 적용되면서 학교, 공공시설물, 등 다양한 건물들의 주요외장재로 사용되고 있다. 시공방법은 블록식조적방법으로 시공이 간단하고 자연적인 질감을 느낄 수 있다. 규격으로는 4(390×190×100), 6(390×190×150), 8(390×190×190)가 있으며 규격에 따른 형태, 색상 등이 다양하여 여러 건축물의 단독외장이나, 포인트로도 충분한 연출이 가능하다.

대명콘택주식회사

Tel_ 031- 352- 8801 | www.dmcon.co.kr

세계가 사랑하는 욕실‘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 ’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에 의한 최적의 욕실 구현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주)는 한국 현지 법인으로서, 1984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품질, 세계적인 디자인 및 서비스로 업계 선도하고 있으며, 94년 동종업계 최초로 단일 품목 1천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주)는 국내에 자리매김한 지 20여 년 동안 늘 인간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욕실 문화를 추구해 왔다. 이를 위해 늘 신기술 개발의 첨단에서, 범 세계적인 경험과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를 미래에 접목시키고 있다. 또한 세면대, 양변기, 욕조, 수전, 욕실 액세서리 에 이르기까지 욕실의 전 제품들을 하나의 디자인 컨셉 하에 디자인하여 하나의 스위트(Suite)가 갖는 아름다운 욕실을 탄생시키는 "Design solutions by American Standard"라는 마케팅 전략 아래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에 의한 최적의 욕실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례가 바로 디자인과 기능별 욕실 제품과 인테리어를 살릴 수 있는 쇼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과부산의 쇼룸 외에 구매까지 가능한 쇼룸 대리점의 전국망을 갖추나가고 있다. 욕실이 생활의 중심, 가정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리아(주)는 앞으로도 인간의 생활과 세계의 욕실이 더욱 중요해지고, 아름답게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주)

Tel_ 1588- 5906 | www.amstd.co.kr

친환경 건축 자재 ‘쌍용ALC’

ALC 전문 생산 기업 (주)SYC



세계적인 ALC 제조업체인 독일 HEBE와 기술 제휴를 통해 국내 ALC 산업을 선도해 온 쌍용양회공업(주). 그 전문적 노하우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축 자재 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난 (주)SYC는 현재 국내 최고의 ALC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제품종류>

- BLOCK : 일반, 발수, 고강도
- PANEL : 일반, 발수, 고강도, 디자인, 파워보드, 라이트보드
- 기타제품 : 건강 내장재 사라라

<용도>

- 내벽, 외벽, 바닥 및 붕스라브 등 모두 적용 가능
-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형 공장, 업무용, 교육용, 상업용 건축물, 대형할인점, 지하차수벽, 전원주택 등

<장점>

- 건식공법으로 동절기 시공 가능
- 환경친화적 자재로 거주 환경 우수
- 법정당연내화구조(두께 100mm 이상)
- 고온고압 증기양생 제품으로 실내 온습도에 따른 변형 없음

주식회사 SYC

Tel_ 02- 2270- 5771 | www.syc-alc.co.kr

VOCs, 폼알데하이드를 제거하는 천연벽지 생산

에덴바이오텍



벽지의 욕구는 심미성과 보온성, 안락함이지만 이만치에는 건강이 우선이다.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환경호르몬까지 나오는 벽지는 단연 새집증후군의 원인이다. 유해한 재료를 사용해서 집 전체를 둘러싸기 때문이다. 소나무, 편백나무(히노끼), 잣나무, 향나무는 피톤치드의 기능이 뛰어나고 은은한 나무 향이나 은 재료이다. 향토의 기능성을 내는 광물질은 숯, 쪽, 녹차 등의 천연 재료와 함께 탈취, 향균, 원적외선 기능을 발휘한다. 천연벽지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을뿐더러 실내의 VOCs, 폼알데하이드를 제거하여 아토피, 비염,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광물질의 코팅은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목본의 천연질감은 다양한 디자인과 함께 자연스러움을 더해준다. 환경부의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친환경 상품 인증을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고 매립 및 소각에 의한 폐기물 환경 부하가 적은 천연벽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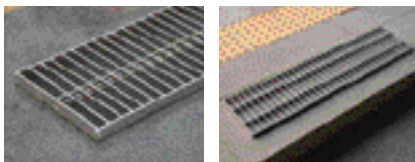
에덴바이오텍

Tel_ 031- 445- 3106 | www.edenwp.com

※ 자재정보 원고 모집
건축사회원과 우수한 건축자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재사용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gods@kira.or.kr
• 원고내용
— 사진 1컷(300dpi 이상)
— 제품정보(원고지 3매 이내)
— 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기재

클린고강도스텐레스그레이팅탄생!

스텐레스건축자재전문제작사(주)유수기업



<제품내용및특성>

○압연스텐레스평철그레이팅

기존에 사용되던 일반 스텐레스 평철 자재를 강도 보강을 위해 신소재인 냉간 압연 스텐레스 평철 자재로 사용함은 물론 제작 방식도 우리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make a hole, cross-stitch(타공식십자결합)제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2배강도와 전해연마 처리로 세련되어 깔끔한 이미지를 갖춘 제품으로 종류는 요철은 슬립형과 일반형이었다.

○T바논스립그레이팅

T자형 테이스텐레스바를 사용 제작되는 T바 그레이팅은 빗살 형태에 음양각을 조각한 슬립형과 표면이 매끄럽고 깔끔한 이미지에 그릴로 사용 가능한 그레이팅으로 구분하며, T바의 간격이 6m~8m까지 제작되어 견고함과 고급스러움이 더해지는 제품이다.

<사용용도>

호텔, 사옥, 공항, 병원 등의 각종 빌딩과 화학 공장, 임해 지역 공장 등의 각종 공장 및 의료 시설 건물, 원자력 발전소 등의 각종 특수 건물의 바닥용, 계단용, 배수용, 맨홀 뚜껑 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수기업

Tel_ 02-2678-3251, 2635-6240 | www.yousu.com

생활속의 웰빙 ‘숯을 먹는 소년’

새집증후군 발생 제거 코팅액



‘숯을 먹는 소년’ 은 쉼투비코리아가 웰빙 하우스를 만들기 위하여 새집증후군 제거용으로 개발, 출시한 친환경 코팅액으로 페인트 도배 등을 하기 전에 벽면에 도포하여 시멘트 페인트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중화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 방부효과: 곰팡이 미생물 방지 효과
- 여과 효과: 숯의 다공성 구조가 오염된 공기 정화
- 유해 전자파 방사선 차단: 숯의 전기적 특성이 전자파를 숯의 내부로 흡수하여 소멸 시킴
- 습도 조절 효과: 건조기 수분 배출 장치 흡수
- 냄새 제거 효과: 부패균 발생 억제 및 제거
 - 적용 범위: 실내 콘크리트, 석고보드 종이 합판 가구
 - 시공 방법: 일반 페인트를 칠하는 형태로 2회 정도 붓이나 롤러를 에어건(후기)으로도 가능합니다

쉼투비코리아(주)

Tel_ 031-946-1654 | www.c2bkorea.com

확산형 조명기구 ‘LED BLOCK’

저전압, 고효율 조명 가능, 다양한 색상 변화 연출



(주)샘라이팅의 LED BLOCK은 LED를 광원으로 하는 확산형 조명기구로 옥외 바닥 마감, 건축물의 벽면에 설치되어 다양한 경관 조명 연출을 할 수 있다.

LED를 광원으로 함으로써 저전압, 고효율 조명이 가능하며, LED의 제어를 통하여 다양한 색상 변화 및 연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마감: 강화 유리 및 SUS
- 규격: 200(W)x200(L)x80(H), 300(W)x300(L)x80(H) 등 다양한 크기
- 전원: DC12V 또는 DC 24V, 소비 전력: 4W
- 광원: LED Red, Green, Blue

(주)샘라이팅

Tel_ 02-3487-2222 | www.saem.co.kr

합성목재 'CorrectDeck'

나무의 단점을 보완한 신소재 혁명



Composite Deck란 나무의 목본과 플라스틱 수지를 섞어서 압출하여 생산한 제품이다. 미국에서는 약 15년 전부터, 방부목을 대체하는 상품으로서 널리 알려져 왔다. 현재 미국 외에도 일본 및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도 방부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러한 Composite Deck 상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생산을 하고 있다.

CorrectDeck은 미국 메인(Maine)주에 위치한 Correct Building Products LLC.사가 나무의 단점을 보완하는 Composite Wood(합성목재)를 연구 개발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북미산 Hard Maple Powder(단풍나무가루) 60%와 Polypropylene(리프로필렌) 40%를 합성하여 제조한 합성목재이다. 또한, CorrectDeck은 15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며, 자연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인류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획기적인 상품이다.

(주)아론물산

Tel_ 031-767-8695~7 | www.correctdeck.com

친환경 원적외선 필름 난방 - 그린라이프 온돌 필름

혁신 사용으로 효율적인 청정 난방 구현



주성분이 천연 소재인 흑연(Graphite)로 탄소 대비하여 전기 전도도가 10~1,000배 이상 높아 발열체 전체를 고르게 발열시킬 수 있는 시간이 짧아 대면판 상발열체 제작에 적합하며, 인체에 무해하고 냄새, 소음, 먼지가 없는 청정 난방이다.

- 친환경, 건강성 신소재. 천연 소재 흑연, 원적외선 고발출
- 부하 대응 쾌속 온난. 필름 전체에서 고르게 열 발생, 원적외선 복사열로 높은 체감 온도
- 안전성. 내구성이 강하며, 필름 가공에 해를 끼치지 않고 전자파가 거의 없다(3mG).
- 시공의 편리성. 초박형 구조로서 건물의 공간(층고, 보일러실) 사용도가 높고, 3D 입체 난방(바닥, 벽, 천정) 가능, 시공 비용 및 시간 절약됨.
- 경제적 난방. 간헐 난방 및 부분 난방에 효율적임.

(주)이애플루션스

Tel_ 02-548-4545, 051-863-3700 | www.ondolfilm.com

패적하고 경제적인 웰빙 냉난방 시스템

저온도 차복사 냉난방 시스템 - 폴리프로필렌 모세유관 매트



폴리프로필렌 모세유관 매트는 90년대 초 독일에서 개발된 저온도 차 복사 냉난방 시스템으로 기존의 냉난방 시스템과는 비교될 수 없는 패적한 실내 환경을 가능케 한다.

바닥 난방 시 공급 온수 온도 약 32°C, 환수 온수 온도 약 29°C이며 유량 대비 방열면적이 X-I 대비 5배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특히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최상의 시스템이다.

- 재질: PP-type3
- 규격: 주유관 20 x 2mm, 모세유관 4.3 x 0.8mm의 병렬 구조
- 장점: 에너지 절약, 쾌적감, 빠른 반응 속도, 공간 확보 증가, 태양열·지열에 최적, 리모델링에 최적, 반영구적

에이텍 C&H

Tel_ 031-558-0301 | www.atechpoly.com